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장 혜 진 교수지도
박사학위 청구논문

철학적 그림책에 대한 기호학적 연구

2019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
산업디자인 전공
신 소 연

철학적 그림책에 대한 기호학적 연구

장 혜 진 교수지도

이 논문을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6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

산업디자인 전공

신 소 연

인 준 서

신소연의 박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9년 6월

심사위원장.....(서명 또는 인)

심사위원.....(서명 또는 인)

심사위원.....(서명 또는 인)

심사위원.....(서명 또는 인)

심사위원.....(서명 또는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 개요

앨빈 토플러는 자신의 저서 『제3의 물결』에서 오래도록 해답을 찾아왔지만, 그릇된 물음에 대한 올바른 해답보다는 ‘올바른 물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한다. 철학적 성찰은 급변하는 이 시대에 수많은 지식, 넘치는 정보, 다양한 가치관 속에서 근본적인 삶의 문제를 사유하게 하는 가치 있는 질문들이다. 현대인들은 자신에게 올바른 물음을 던지고 사회와 타인, 개인의 삶에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철학적 사유를 통해 실천적 사고로 나아가게 된다. 21세기 현대 그림책 시장은 실험적이고 독창적인 형태의 작품성을 지닌 다양한 그림책들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어린이들의 전유물이었던 단순하고 평면적이었던 과거의 그림책과 차별화된 더욱 다층적 의미가 내재된, 예술적 가치를 지닌 작품으로서의 그림책은 세대를 초월하여 독자층과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현대인들에게 철학적 성찰을 가능케 하는 철학적 그림책의 등장은 최근 그림책 시장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영역 중 하나일 것이다.

새로운 영역의 예술적 매체로서 인식되기 시작한 그림책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성인독자의 적극적인 활동과 호응으로 이어져, 타 장르와도 긴밀한 연관을 가지며 성장하고 있다. 철학적 그림책의 출판 증가와 국제 공모전의 수상작들을 통하여 이런 관심과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철학적 그림책은 심층적 의미를 내재한 복합적이고 상징적인 형태를 하고 있으며, 그림책 안에서 만나는 철학적 성찰은 급변하는 이 시대에 수많은 지식, 넘치는 정보, 다양한 가치관 속에서 근본적인 삶의 문제를 사유하게 하는 가치 있는 질문들이다.

새로운 경향의 그림책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이런 그림책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나 체계적인 분석 방법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철학적 그림책을 더욱 효과적이고 심도 있게 독해하고 교감하기 위하여 3단계에 걸친 기호학적 분석 방법을 제시하고자 했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기호학적 분석 방법을 바탕으로 이보나 호미엘레프스카의 철학적 그림책인 『마음의 집』을 분석하고 철학적 그림책인 『어떤 선물』을 제작하여 본 기호학 분석 방법론의 효용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었다.

첫째, 본 논문에서는 철학적 그림책의 특징과 가치를 연구하여 정의하고, 철학적 그림책을 유형별로 분류한다. 여기서 주목하는 철학적 그림책은 ‘삶을 성찰하는 메시지와 미술 작품적 요소가 어우러져 현대인들에게 삶의 의미를 반추하고 사유하게 하는 예술 매체’다. 철학적 사유는 현대인들이 자신에게 삶의 의미를 던지는 과정을 통해 타인과 사회를 향한 실천적 사고로 이어지게 할 수 있다. 철학적 그림책이 전하는 메시지에 따라 ‘자의식의 성장과 성찰’, ‘타인과의 관계’, ‘사회적 인간으로서 환경과 세상과의 연대’와 같이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둘째,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을 담고 있는 철학적 그림책을 더욱 효과적이고 심도 있게 독해하고 교감하기 위하여 3단계에 걸친 기호학적 분석 방법을 제시한다. 1단계는 ‘그림책의 7유형 분석’이다. 서사적 분류체계에 따른 분석으로 각각의 그림책을 통합체적 기호로 보고 전체 스토리와 구성 형식에 따라 7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파악한다. 2단계는 한 권의 그림책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언어적 기호체계의 ‘이분법적 의미 작용 분석’이다. 통합체의 순차적인 문단 흐름과 계열체의 이항대립 요소를 찾아 전체 구조를 파악한다. 3단계는 각 페이지를 면밀하게 분석하는 비언어적 기호 체계의 ‘삼분법적 의미 작용 분석’이다. 실질적인 문자와 이미지를 연결하고 그 상징적 의미들을 구체적이고 면밀하게 해석한다. 지금까지 그림책 분석은 크게 이분법 계열의 분석과 삼분법 계열의 분석으로 각각 구분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의 방법론적 한계를 고려하여 두 가지 분석을 단계

별로 시행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셋째, 본 연구의 3단계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볼로냐 라가치상 수상작인 이보나 호미엘레프스카의 철학적 그림책인 『마음의 집』을 분석하였다. 이 그림책은 스토리나 사건을 중심에 두지 않고 그 속에 담긴 인간 삶에 대한 사유와 성찰의 메시지가 전달에 중심을 둔 특징적 요소를 강조할 수 있는 그림책의 7유형 분석의 ‘괄호연결통합체’로 전개된다. 철학적 메시지는 전달하는 서사 유형에 영향을 받지 않고 다채로운 형식으로 표현되고 제작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두 번째 이분법적 의미 작용 분석 단계를 통하여 『마음의 집』의 통합체적 구조와 각 페이지의 계열체적인 요소를 연구하였다. 구간별(시퀀스) 분할로 중심 주제가 되는 사유의 흐름, 질문의 형식, 성찰의 진행 등 구조를 파악하고 문장 안에서의 갈등과 대립의 이항대립적 요소를 찾는 분석으로 조화롭고 완성도 있는 언어적 구성과 짜임새를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 삼분법적 의미 작용 분석을 통해 『마음의 집』의 미술적 표현 방식, 문자적 의미 전달, 내적·외적으로 내포된 철학적 메시지와 예술적 표현의 비언어적인 측면을 세부적으로 탐색하여 교감하였다. 『마음의 집』의 분석을 통해 독자가 무심히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밀도 있게 접근하여, 작가의 함축적 의미를 심도 있게 독해하는 분석 도구로서의 유용성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현대인들에게 평범한 일상의 가치를 되돌아보게 하는 철학적 그림책 『어떤 선물』을 제작하였다. 『어떤 선물』은 삶에서 만나는 과거, 현재, 미래의 ‘선물’에 대한 이야기다. 이 그림책에서 언급하는 선물들은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주어진 것, 존재하는 환경이나 물질, 감정까지도 포함한다. 영속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인간의 삶과 자연의 모든 것들은 유한성을 지닌 선물이다. 선물은 주체적 의지로 생성되지 않고 존재의 노력과 의지와도 상관없이 타자에게 전달되어 일정시기가 지나면 소멸된다. 인간의 삶도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나 사멸하는 한정된 시점을 살기 때문에 봉투

나 상자의 유통 기한과도 일맥상통하다. 이러한 철학적 그림책 『어떤 선물』의 전체적 주제와 계획을 세우고 3단계의 기호학적 분석방법을 『어떤 선물』을 적용하여 제작하였다. 프레임마다 독립적인 하나의 스토리를 가지고 철학적 메시지를 건네는 서사 구조인 괄호연결통합체의 유형을 선택하였다. 그림책의 7유형 분석은 서사 유형 중 비非연대기적 통합체의 형식으로서 통합된 줄거리 없이 시간과 사건의 흐름을 따르지 않는 특징을 가진, 세번째 유형이다. 『어떤 선물』의 전체 구조와 문단의 기승전결, 문단의 흐름, 이항대립적 요소들이 적절히 배치되었는지 이분법적 의미 작용 분석에 대입하여 점검하였다. 본문 텍스트의 시작과 마지막을 처음 받은 선물과 마지막 받을 선물로 대치시키고 주변 텍스트의 배열도 반복하여 주체가 되는 이미지와 표현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삼분법적 의미 작용의 분석 틀을 통해 각 프레임의 세부적 요소들을 체크하며 완성도를 높였다. 『어떤 선물』에서 일관되게 반복되는 봉투와 상자 속에 담긴 철학적 메시지는 사랑, 위로, 축복, 격려, 공감 등의 인생 여정에서 만나는 소중한 선물들이다. 이러한 작가의 의도가 프레임별 미술적 표현 방식, 문자적 의미 전달, 내적 외적인 요소들에 적절히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조율하였다.

본 논문은 기호학이론을 바탕으로 철학적 그림책을 하나의 기호체로 보며 접근하여 더욱 깊이 있는 감상과 창작을 이끌어 내려 하는 논리적인 분석 도구에 관한 연구이다. 기호학 분석은 철학적 사유를 더욱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며, 철학적 그림책을 기획하는 제작자나 작가가 점검하는 분석 틀로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현대인들에게 철학적 사유와 예술적 감성을 일깨우는 새로운 예술 매체인 철학적 그림책의 기호학적 연구들을 통하여 완성도를 갖춘 철학적 그림책들이 보급되고 많은 독자의 호응과 관심으로 이어져 철학적 그림책 활성화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 론

- 1. 연구배경과 목적 1
-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II. 이론적 배경

- 1. 그림책 5
 - 1.1 그림책의 역사..... 5
 - 1.2 그림책의 동향 6
- 2. 기호학 9
 - 2.1 기호학의 시작 9
 - 2.2 현대 기호학 12

III. 철학적 그림책

- 1. 철학적 그림책의 의미 15
- 2. 철학적 그림책의 종류 18
 - 2.1 자의식의 성장과 성찰 20
 - 2.2 타인과의 관계 22
 - 2.3 사회적 인간으로서 환경과 세상과의 연대 25

IV. 그림책의 기호학적 분석

1. 그림책의 기호학적 분석 방법 도출	30
1.1 기호학 이론 분석	30
1.2 그림책의 기호학적 분석 방법 제안	36
1.2.1 그림책의 7유형 분석 방법 도출	36
1.2.2 이분법적 의미 작용 분석 방법 도출	40
1.2.3 삼분법적 의미 작용 분석 방법 도출	43
2. 그림책의 기호학적 분석 방법	44
2.1 그림책의 7유형 분석	47
2.2 이분법적 의미 작용 분석	56
2.3 삼분법적 의미 작용 분석	58
3. 철학적 그림책 『마음의 집』의 기호학적 분석	63
3.1 이보나 호미엘레프스카 작가 연구	63
3.2 『마음의 집』 그림책의 7유형 분석	66
3.3 『마음의 집』의 이분법적 의미 작용 분석	68
3.3.1 통합체 분석	68
3.3.2 계열체 분석	68
3.4 『마음의 집』의 삼분법적 의미 작용 분석	72
3.4.1 주변 텍스트 분석	72
3.4.2 본문 텍스트 분석	78
3.5 『마음의 집』의 기호학적 분석 결과	106

V. 철학적 그림책 제작	
1. 철학적 그림책 『어떤 선물』 작품 연구	108
2. 『어떤 선물』의 기호학적 분석	111
2.1 『어떤 선물』 그림책의 7유형 분석	111
2.2 『어떤 선물』의 이분법적 의미 작용 분석	143
2.2.1 통합체 분석	143
2.2.2 계열체 분석	145
2.3 『어떤 선물』의 삼분법적	146
2.3.1 주변 텍스트 분석	147
2.3.2 본문 텍스트 분석	152
3. 『어떤 선물』의 기호학적 분석 결과	177
VI. 결 론	179
참고문헌	186
ABSTRACT	194

그림 목 차

그림 1. 최초의 그림책으로 알려진 코메니우스의 『그림의 세계』	5
그림 2. 정유미의 그림책 『먼지 아이』	8
그림 3. 손 텐(왼쪽)과 피터 시스의 철학적 그림책	16
그림 4. 헬메 하이네이의 철학적 그림책 『코끼리 똥』과 세르쥬 블로슈의 『나는 기다립 니다』	21
그림 5. 유타 바우어(Jutta Bauer)의 그림책 『셀마-셀마가 간직한 행복의 비밀』	22
그림 6. 앤서니 브라운의 그림책 『터널』	23
그림 7. 기쿠치 치키와의 『흰고양이 검은 고양이』와 이보나 호미엘레프스카의 『두 사 람』	24
그림 8. 야로스와프 미코와예프스키의 『Wędrówka Nabu』와 존 버닝햄의 『깃털 없는 기 러기 보르카』	27
그림 9. 존 버닝햄의 『야, 우리 기차에서 내려!』와 찰스 키핑의 『낙원섬에서 생긴 일』	28
그림 10. 움베르토 에코의 삼분법	36
그림 11. 퍼스의 유기적 삼분법	43
그림 12. 그림책의 3단계 기호학적 분석 과정	45
그림 13. 그림책의 기호학적 분석 과정	45
그림 14. 크리스티앙 메츠의 영화 이미지의 거대 통합체 유형	49
그림 15. 그림책의 7유형 분석	50
그림 16. 람바로스 자의 『물 속 생물들』, 비르지니아 아라가 드 말레르브의 『깃털과 단 어』, 솔 운두라가의 『여름 안에서』	52
그림 17. 모리스 샌닥의 『괴물들이 사는 나라』, 손 텐의 『도착』, 이호백의 『세상에서 제일 힘 센 수탉』	54
그림 18. 피터 시스의 『장벽』, 에즈러 잭 키츠의 『휘파람을 불어요』	55

그림 19. 그림책 프레임	60
그림 20. 『마음의 집』의 전체 프레임	67
그림 21. 『어떤 선물』 프레임 1	113
그림 22. 『어떤 선물』 프레임 2	114
그림 23. 『어떤 선물』 프레임 3	115
그림 24. 『어떤 선물』 프레임 4	116
그림 25. 『어떤 선물』 프레임 5	117
그림 26. 『어떤 선물』 프레임 6	118
그림 27. 『어떤 선물』 프레임 7	119
그림 28. 『어떤 선물』 프레임 8	120
그림 29. 『어떤 선물』 프레임 9	121
그림 30. 『어떤 선물』 프레임 10	122
그림 31. 『어떤 선물』 프레임 11	123
그림 32. 『어떤 선물』 프레임 12	124
그림 33. 『어떤 선물』 프레임 13	125
그림 34. 『어떤 선물』 프레임 14	126
그림 35. 『어떤 선물』 프레임 15	127
그림 36. 『어떤 선물』 프레임 16	128
그림 37. 『어떤 선물』 프레임 17	129
그림 38. 『어떤 선물』 프레임 18	130
그림 39. 『어떤 선물』 프레임 19	131
그림 40. 『어떤 선물』 프레임 20	132
그림 41. 『어떤 선물』 프레임 21	133
그림 42. 『어떤 선물』 프레임 22	134
그림 43. 『어떤 선물』 프레임 23	135

그림 44. 『어떤 선물』 프레임 24	136
그림 45. 『어떤 선물』 프레임 25	137
그림 46. 『어떤 선물』 프레임 26	138
그림 47. 『어떤 선물』 프레임 27	139
그림 48. 『어떤 선물』 프레임 28	140
그림 49. 『어떤 선물』 프레임 29	141
그림 50. 『어떤 선물』 프레임 30	142

표 목 차

표 1. 현대 기호학의 창시자와 두 이론의 특징 비교	11
표 2. 그림책의 기호학적 분석 방법	14
표 3. 그림책의 종류와 특징	15
표 4. 철학적 그림책의 특징	18
표 5. 그림책을 분석하는 기호학적 분석 방법	33
표 6. 그림책에 대한 기호학적 분석의 단계별 특징	46
표 7. 그림책의 이분법적 의미 작용 분석	57
표 8. 그림책의 삼분법적 의미 작용 분석	59
표 9. 그림책 텍스트 『마음의 집』의 이분법적 의미 작용	69
표 10. 『마음의 집』 삼분법적 의미 작용 분석-프레임 1	73
표 11. 『마음의 집』 삼분법적 의미 작용 분석-프레임 2	74
표 12. 『마음의 집』 삼분법적 의미 작용 분석-프레임 3	75
표 13. 『마음의 집』 삼분법적 의미 작용 분석-프레임 32	76
표 14. 『마음의 집』 삼분법적 의미 작용 분석-프레임 33	77
표 15. 『마음의 집』 삼분법적 의미 작용 분석-프레임 4	78
표 16. 『마음의 집』 삼분법적 의미 작용 분석-프레임 5	79
표 17. 『마음의 집』 삼분법적 의미 작용 분석-프레임 6	80
표 18. 『마음의 집』 삼분법적 의미 작용 분석-프레임 7	81
표 19. 『마음의 집』 삼분법적 의미 작용 분석-프레임 8	82
표 20. 『마음의 집』 삼분법적 의미 작용 분석-프레임 9	83
표 21. 『마음의 집』 삼분법적 의미 작용 분석-프레임 10	84
표 22. 『마음의 집』 삼분법적 의미 작용 분석-프레임 11	85
표 23. 『마음의 집』 삼분법적 의미 작용 분석-프레임 12	86

표 24. 『마음의 집』 삼분법적 의미 작용 분석-프레임 13	87
표 25. 『마음의 집』 삼분법적 의미 작용 분석-프레임 14	88
표 26. 『마음의 집』 삼분법적 의미 작용 분석-프레임 15	89
표 27. 『마음의 집』 삼분법적 의미 작용 분석-프레임 16	90
표 28. 『마음의 집』 삼분법적 의미 작용 분석-프레임 17	91
표 29. 『마음의 집』 삼분법적 의미 작용 분석-프레임 18	92
표 30. 『마음의 집』 삼분법적 의미 작용 분석-프레임 19	93
표 31. 『마음의 집』 삼분법적 의미 작용 분석-프레임 20	94
표 32. 『마음의 집』 삼분법적 의미 작용 분석-프레임 21	95
표 33. 『마음의 집』 삼분법적 의미 작용 분석-프레임 22	96
표 34. 『마음의 집』 삼분법적 의미 작용 분석-프레임 23	97
표 35. 『마음의 집』 삼분법적 의미 작용 분석-프레임 24	98
표 36. 『마음의 집』 삼분법적 의미 작용 분석-프레임 25	99
표 37. 『마음의 집』 삼분법적 의미 작용 분석-프레임 26	100
표 38. 『마음의 집』 삼분법적 의미 작용 분석-프레임 27	101
표 39. 『마음의 집』 삼분법적 의미 작용 분석-프레임 28	102
표 40. 『마음의 집』 삼분법적 의미 작용 분석-프레임 29	103
표 41. 『마음의 집』 삼분법적 의미 작용 분석-프레임 30	104
표 42. 『마음의 집』 삼분법적 의미 작용 분석-프레임 31	105
표 43. 그림책 텍스트 『어떤 선물』의 이분법적 의미 작용	143
표 44. 『어떤 선물』 삼분법적 의미 작용 분석-프레임 1	147
표 45. 『어떤 선물』 삼분법적 의미 작용 분석-프레임 2	148
표 46. 『어떤 선물』 삼분법적 의미 작용 분석-프레임 3	149
표 47. 『어떤 선물』 삼분법적 의미 작용 분석-프레임 28	150
표 48. 『어떤 선물』 삼분법적 의미 작용 분석-프레임 30	151

표 49. 『어떤 선물』 삼분법적 의미 작용 분석-프레임 4	152
표 50. 『어떤 선물』 삼분법적 의미 작용 분석-프레임 5	153
표 51. 『어떤 선물』 삼분법적 의미 작용 분석-프레임 6	154
표 52. 『어떤 선물』 삼분법적 의미 작용 분석-프레임 7	155
표 53. 『어떤 선물』 삼분법적 의미 작용 분석-프레임 8	156
표 54. 『어떤 선물』 삼분법적 의미 작용 분석-프레임 9	157
표 55. 『어떤 선물』 삼분법적 의미 작용 분석-프레임 10	158
표 56. 『어떤 선물』 삼분법적 의미 작용 분석-프레임 11	159
표 57. 『어떤 선물』 삼분법적 의미 작용 분석-프레임 12	160
표 58. 『어떤 선물』 삼분법적 의미 작용 분석-프레임 13	161
표 59. 『어떤 선물』 삼분법적 의미 작용 분석-프레임 14	162
표 60. 『어떤 선물』 삼분법적 의미 작용 분석-프레임 15	163
표 61. 『어떤 선물』 삼분법적 의미 작용 분석-프레임 16	164
표 62. 『어떤 선물』 삼분법적 의미 작용 분석-프레임 17	165
표 63. 『어떤 선물』 삼분법적 의미 작용 분석-프레임 18	166
표 64. 『어떤 선물』 삼분법적 의미 작용 분석-프레임 19	167
표 65. 『어떤 선물』 삼분법적 의미 작용 분석-프레임 20	168
표 66. 『어떤 선물』 삼분법적 의미 작용 분석-프레임 21	169
표 67. 『어떤 선물』 삼분법적 의미 작용 분석-프레임 22	170
표 68. 『어떤 선물』 삼분법적 의미 작용 분석-프레임 23	171
표 69. 『어떤 선물』 삼분법적 의미 작용 분석-프레임 24	172
표 70. 『어떤 선물』 삼분법적 의미 작용 분석-프레임 25	173
표 71. 『어떤 선물』 삼분법적 의미 작용 분석-프레임 26	174
표 72. 『어떤 선물』 삼분법적 의미 작용 분석-프레임 27	175
표 73. 『어떤 선물』 삼분법적 의미 작용 분석-프레임 28	176

I.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오늘날 사회는 물질적 풍요, 보장된 복지, 쾌적한 환경, 편리하고 신속한 서비스의 발달로 과거의 어느 시대보다 안락한 삶을 향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의 정신은 변화와 속도에 적응하지 못하여 날로 피폐해져 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인 우리나라는 지난 13년 동안 자살률 1위 국가다. 인간의 역할을 대신하는 인공지능(AI)과 로봇이 개발되고, 의료 기술의 발달로 수명이 연장되는 시대에 삶에 대한 가치관을 다시금 정립해야 한다. 삶의 가치와 의미를 되돌아보게 하는 철학이 필요한 시기이며, 철학적 성찰은 현대인들에게 인간과 세계에 대한 근본 원리와 생의 본질을 깨닫게 한다.

그림책은 우리가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가치관, 문화, 이데올로기, 지식, 철학 등을 투영하여 학습시키는 소통의 도구이며, 철학적 성찰을 할 수 있는 복합예술 매체다. 21세기 그림책 시장에서는 실험적이고 예술적인 형태의 다양한 그림책들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현대 그림책은 수준 높은 작품성을 갖추며, 어린이들의 전유물이었던 그림책 시장에 성인 독자까지 흡수하였다. 새로운 영역의 예술적 매체로서 인식되기 시작한 그림책은 메타담론으로서 많은 모임과 연구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광고, TV, 연극, 뮤지컬, 영화와 같은 타 장르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그 잠재성을 탐색하며 발전하고 있다. 그림책 안에서 만나는 철학적 성찰은 급변하는 이 시대에 수많은 지식, 넘치는 정보, 다양한 가치관 속에서 근본적인 삶의 문제를 사유하게 하는 가치 있는 질문들이다. 현대인들은 자신에게 올바른 물음을 던지고 사회와 타인, 개인의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철학적

사유를 통해 실친적 사고로 나아가게 된다. 철학적 그림책의 출판 증가와 국제 공모전의 수상작들을 통하여 이런 관심과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철학적 그림책은 단순하고 간결한 과거의 그림책과 차별된, 더욱 심층적 의미를 내재한 복합적이고 상징적인 형태를 하고 있다. 철학적 그림책에 대한 대중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이런 그림책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나 체계적인 분석 방법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기호학은 시각 이미지를 기호, 텍스트로 보고 접근하는 연구 방법으로 논리적으로 시각화하고 주체적인 사고 능력을 육성하고 함양한다¹⁾.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철학적 그림책을 더욱 효과적이고 심도 있게 독해하고 교감하기 위하여 3단계에 걸친 기호학적 분석 방법을 제시하고자 했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기호학적 분석 방법을 바탕으로 이보나 호미엘레프스카의 철학적 그림책인 『마음의 집』을 분석하고 철학적 그림책인 『어떤 선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연구된 기호학적 분석 도구를 활용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기호학 분석 방법론의 효용성을 확인하고자 했다.

1) 방혜옥, 「공공도서관 영유아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2012, p.2.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시각적 예술 형식(Marantz, 1977)의 하나인 그림책²⁾은 글과 그림이 하나로 통합된 기호체로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유기적 복합체다. 현대 그림책은 어린이들의 교육과 지식전달 기능을 넘어 정서적 교감, 삶에 대한 성찰, 작가의 개성적인 창작품, 예술적 모티브로 확장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유통되는 그림책을 조사하고 그림책의 철학적 주제에 대한 의미와 정의를 연구한다. 또한 독자들이 그림책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더욱 논리적이고 심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호학적 방법을 제시한다. 이러한 분석 방법으로 기존의 철학적 그림책을 분석하고, 철학적 그림책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검증하는 도구로서 활용한다.

다음은 본 연구의 세부적인 범위와 방법이다.

첫째, 그림책의 역사를 조사하고 현대 그림책의 새로운 흐름과 동향을 파악한다.

둘째, 기호학의 기본 사상과 이어지는 현대 기호학의 이론과 개념들을 연구하여 그 분석 방법과 흐름을 연구한다.

셋째, 현대 그림책 시장에 회자되는 철학적 그림책을 정의하고, 독자에게 전달하는 철학적 메시지를 연구하여,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넷째, 앞서 기술한 기호학적 연구를 기초로 그림책을 분석하는 심층적 방법을 도출한다. ‘그림책의 7유형 분석’, ‘이분법적 의미 작용 분석’, ‘삼분법적 의미 작용’의 순으로 해석하는 3단계 분석 방법을 제시한다.

다섯째, 위에서 기술한 기호학적 분석 방법을 바탕으로 한국 최초의 라가치상 수상작이고 세계적 작가로서 대중적 관심을 받고 있는 이보나 호미엘레프스카의 『마음의 집』을 분석한다.

2) 최성진, 서정숙, 「퍼스의 기호학적 관점에 의한 그림책 분석」, 어린이문화교육연구, 15권 4호, 2014, p.53.

여섯째, 철학적 그림책 『어떤 선물』을 직접 제작하고 위에서 기술한 기호학적인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그 제작 과정을 검증하고 그림책의 완성도를 높인다.

II. 이론적 배경

1. 그림책

1.1 그림책의 역사

일반적으로 그림책은 어린이가 처음 접하는 교육적이고 미술적인 요소를 조화시킨 책을 의미한다. 그림책은 ‘복제 예술’로서 ‘인쇄’라는 출판(복제)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다. 15세기에 발명된 인쇄술은 서구의 극소수 부유층에게만 이루어진 교육 혜택을 필사본을 통해 더 많은 사람에게 보급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유럽 회화사에서 종교화나 신화화를 제외한 서민의 일반 생활을 표현한 그림은 중세에서 근세로 넘어가는 16세기쯤에 나온 것으로 추정되고³⁾ 그림책은 19세기 말엽에 시작하여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완전한 형태를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활자와 그림이 함께 인쇄된 최초의 그림책으로 보노(Ulrich Boner)의 『보석 Der Edelstein』(1461)이 인용되기도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1658년 뉘른베르크에서 출판된 코메니우스 Comenius의 『그림의 세계 Orbis Sensualium Pictus』⁴⁾(한국어판 『세계도회』, 1998)다.

이 그림책은 책 내용을 전달하는 데에 문



그림 1. 최초의 그림책으로 알려진 코메니우스의 『그림의 세계』

3) 가와이 하야오, 마츠이 다다시, 야나기다 구니오, 『그림책의 힘』, 마고북스, 2003, p.136.
4) 마틴 솔즈베리, 모랙 스타일스, 『그림책의 모든 것 Children's Picture books』, (주)시공사, 2012, p.12.

장보다 그림이 더 알기 쉽고 정확하여 그 독자성, 커뮤니케이션 요소 때문에 이미 글과 그림이 함께 어우러진 책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를 위한 최초의 그림책으로 인정받고 있다.⁵⁾ 현대적 의미의 그림책이 등장한 시기는 정확히 밝히기 어렵지만, 19세기 말에 칼데콧(Randolph Caldecott)과 같은 그림책 작가들이 빅토리아 시대의 토이북 형태를 현대적인 그림책에 가깝게 변형한 것이 그 시작으로 추정되고 있다. 1960년대에 기계적인 기술이 발달·보완되자 출판업자들이 양질의 그림책을 만들고 대량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⁶⁾. 1960년대 이후에는 매년 더 많은 그림책이 출판되고, 포스트모던 회화의 영향으로 실험적이고 예술적인 그림책이 출현하였다. 글자 없는 그림책⁷⁾도 전통 그림책에서 1970년대 새롭게 등장하여 발전된 변형의 한 예다. 21세기 초반인 오늘날에는 개성 있는 작가의 기록물이자 작품으로서 독자적인 예술성을 표현하는 그림책이 존재하기도 한다. 이처럼 새로운 표현 방식의 현대 그림책이 등장하면서 기존의 고정된 틀이 깨어지고 다양한 형식과 시도로 그림책의 영역은 날로 확장되고 독자층도 넓어지고 있다.

1.2 그림책의 동향

현은자·김세희(2005)는 『그림책의 이해』에서 한국 그림책의 역사를 1980년대 이전은 전(前) 그림책 시기,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초까지는 그림책 인식기, 1990년대 중반부터 현재는 번역 그림책 정리기와 본격적인 창작 그림책 출간기로 보았다. 실물 자료로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된 한국 그림책은 1946년 『우리 마을』(조선아동문학협회)이나 일제 강점기와 전쟁을 거치면서 1970년대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 어효선(1966)은 1961년 문교부가 ‘우

5) 신명호, 『그림책의 세계』, 김영사, 2009, p.27.

6) 데이비드 루이스, 『현대 그림책 읽기』, 작은씨앗, 2008, p.12.

7) 상계서, p.66.

량 도서 선정 기준' 을 발표하면서 아동도서가 제대로 책의 꼴을 갖추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1963년 '도서관법' 의 제정은 그림책 시장을 활성화하여 금성출판사, 삼성당, 삼성출판사, 계몽사 등이 어린이 전집물을 활발히 기획하고 출판하였다⁸⁾. 1960~70년대에는 외국 출판사들이 검증된 그림책을 수입하여 제작한 전집류나 기획물이 대다수였다.

1980년대 들어 '일러스트레이터' 라는 본업 작가들의 작품과 작업들이 미술계나 출판계에 자리매김하기 시작하였다. 1988년 우리나라 최초의 단행본인 류재수의 『백두산 이야기』는 '읽는 책' 에서 '보는 책' 개념으로 독자들에게 '그림책' 을 하나의 장르로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⁹⁾. 1980년대는 번역 그림책들이 많았던 그림책 시장에 우리의 색과 이야기를 담은 창작 그림책이 등장하여 양적·질적으로 팽창하고 새로운 인식으로 변화하고 도약하는 시기였다.

1990년대 중반 이후는 본격적인 창작 그림책 출간기다. 그림책 출판사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번역 그림책뿐만 아니라 한국 그림책도 출판 시장에 진입하였고, 한국 창작 그림책만 출간하는 출판사도 생겨 외국 그림책에 비견할 만한 많은 그림책을 출간하였다. 1990년대 말에는 그림책 관련 연구자가 생기고 서평지가 창간되어 그림책 작가, 기획자, 독자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게 되었고 그림책 수상 제도가 마련되면서 한국 그림책의 준도 높아졌다. 1990년대 말부터 한국 그림책의 일러스트레이션은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하였다. 그림책 일러스트레이션이 독자 예술 장르로 인정받고 그림책 원화 전시회가 열리기 시작하였다. 또한 한국적인 것을 모티브로 한 일러스트레이션은 세계 아동문학계로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1986년 류재수의 『턱 없는 탈』이 노마 국제 그림책 원화 콩쿠르(Noma Picture Book

8) 조은숙, 「1990년대 이전 한국 그림책의 시대 사회적 조건 고찰」,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7권 1호 1-24, 2016, pp.2-6.

9) 박상률, 「그림책의 힘」,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기획회의 424호, 2016, p.27.

Original Illustration Concours)에서 가장 입상한 것을 시작으로, 1989년 강우현의 『사막의 공룡』은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브라티슬라바 국제 일러스트레이션 비엔날레(The Biennale of Illustration Bratislava, BIB)에서’ 황금패상을 수상하였다. 1990년 류재수의 『백두산 이야기』가 볼로냐 그림책 공모전 지명 작가로 선정되었고, 1990년대 말에는 BIB에 이호백·이억배의 『세상에서 제일 힘센 수탉』과 리춘길의 『재주 많은 다섯 친구』가 초청되었으며, 한병호의 『새가 되고 싶어』가 BIB 황금사과상을 받았다¹⁰⁾. 1992년에는 김의숙의 『피노키오의 모험』이 볼로냐 일러스트레이션 공모전에서 수상하였다¹¹⁾. 또한 2004년 윤미숙의 『팔죽할멈과 호랑이』, 신동준의 『지하철은 달려온다』가 세계 최대 규모인 볼로냐 라가치상(Bologna Ragazzi Award)에서 각각 픽션과 논픽션 분야 수상을 하였다. 2011년 조은영의 『달려 토토』는 BIB 원화전 그랑프리를 수상하였다. 이후 우리 그림책은 일러스트레이터를 대상으로 하는 국제 공모전에서 준한 성과들을 거두며, 2015년에는 볼로냐 라가치상의 모든 부문(픽션, 논픽션, 뉴호라이즌, 오페라 프리마, 북앤시즈)에서 수상작이 나와 총 6권의 한국 그림책이 수상하며 세계적인 무대에서 경쟁하게 되었다¹²⁾. 이 밖에 BIB, 뉴욕타임즈의 올해의 그림책, IBBY 명예리스트에서도 다수의 국내 그림책 수상작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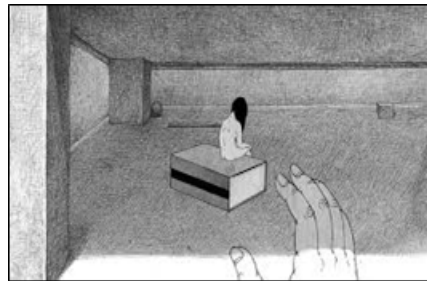


그림 2. 정유미의 그림책 『먼지 아이』

10) 이지현, 「그림책의 역사, 그리고 현대문학이론과 기호학적 관점에서의 그림책의 커뮤니케이션 분석」, 조형미디어학 10권 1호, 2007, p.39.

11) 박상률, 「그림책의 힘」,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기획회의 424호, 2016, p.28.

12) 한아름, 「해의 아동문학상 수상 한국 그림책의 페리텍스트(Peritext) 연구」, 성균관대학교, 2017, pp.19-20.

1. 기호학

2.1 기호학의 시작

기호학이란 인간 문화 전체에 나타나는 표현 요소들이 기호로 구성되어 있다고 전제하며 기호의 일반 성격과 생성 방식을 파악하는 학문이다. 고대 그리스의 수사학 및 논리학에서 출발한 기호학은 19세기 중반에 이르러 학문적 토대를 이루고 발전하게 된다. 현대 학문 중 기호학은 철학, 심리학과 더불어 여러 학문의 기본이 되는 3대 학문으로 평가된다.¹³⁾ 기호학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미국의 논리학자이며 실용주의 철학자 찰스 샌더스 퍼스(Charles Sanders Peirce, 1839~1914)와 스위스 언어학자 페르디낭 드 소쉬르(Ferdinand de Saussure, 1857~1913)에 의해 시작되었다.¹⁴⁾ 두 학자는 서로 교류 없이 같은 시기에 다른 장소에서 각기 다른 체계로 ‘기호’에 대한 독자적인 이론들을 만들었다. 소쉬르를 태두로 발전한 유럽 기호학과 퍼스를 중심으로 발전한 미국 기호학이 두 축이 되어 현대 기호학을 이끌고 있다. 소쉬르는 ‘구조’를 중요시하며 기호를 청각 영상(sound Image)과 개념(concept)이 합쳐진 언어의 의미로 이해하고 그 기호를 표상하는 기표와 기호의 의미를 내포하는 기의를 이원적 〈랑그(langue)와 파롤(parole)〉로 구조화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징후, 표시, 행동, 대화, 소통의 의미가 기호의 개념으로 첨가되었다. 이러한 기호학 연구는 기호의 개념을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 특히 문자 언어 중심으로 바라보는 인간의 언어와 담론을 중심으로 다루는 원리를 연구하는 데에서 출발했다¹⁵⁾. 이원적 구조의 기호학 개념은 체계적으로 연구·세분화되어 계승되었다. 20세기 중반에는 엘름슬레우(Loui

13) 김경용, 『기호학이란 무엇인가』, 민음사, 1994, p.11.

14) 로리 슈나이더 에덤스, 『미술사방법론』, 서울하우스, 2014, p.177.

15) 송문석, 『예술의 기호 기호의 예술』, 푸른사상사, 2006, p.34-35.

s Hjelmslev), 로만 야콥슨(Roman Jakobson), 바르트르(Roland Gérard Barthes), 그레마스 (Algirdas Julien Greimas) 등의 학자들이 소쉬르의 기호학 이론에 영향을 받아 기호학을 연구하고 레비스트로스(Claude Lévi-Strauss) - 라캉(Jacques Lacan)으로 이어지는 구조주의-후기구조주의 철학으로 이어졌다¹⁶⁾.

또 다른 접근 방법으로 현대 기호학의 시작을 알린 찰스 샌더스 퍼스는 독창적인 논리학자이며, 실용주의의 창시자인 미국의 철학자다. 퍼스의 기호학은 ‘구조’를 중요시했던 동시대의 소쉬르 개념과 차별화된 ‘과정’으로서의 기호 작용을 강조했다. 즉 소쉬르가 기호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가치의 개념을 강조했다면, 퍼스의 관점은 이보다 진보적이고 차별화된 대화적 사고(dialogical thought)개념으로 접근하였다.¹⁷⁾ 이같이 소쉬르와 같은 시기에 퍼스는 인간의 행위와 이를 규정하는 세계로 확장시킨 삼원기호 체계를 연구하였다. 퍼스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학문적인 목표는 실험과학의 정신에서 잉태된 경험 철학자 칸트에 영향을 받아 과학, 수학, 철학, 천문학, 기호학의 광범위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모든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철학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퍼스의 기호학 연구는 대상 세계를 합리적으로 탐구해 나가는 논리학이며 언어뿐 아니라 비언어적인 현상과 자연현상조차 기호로 간주할 만큼 의미 생산 영역의 모든 것을 기호로 파악하는 범 기호적 관점을 가졌다¹⁸⁾. 퍼스는 삼분법¹⁹⁾으로 철학과 논리적인 바탕에서 소통과 해석의 영역까지 확장하였다.

16) 게오르크 W. 베르트람, 『언어, 의미 그리고 철학』, (주) 박이정, 2015, p.6.

17) 대니얼 챈들러, 『미디어기호학』, 소명출판, 2006, p.77.

18) 최성진, 서정숙 「퍼스의 기호학적 관점에 의한 그림책 분석」,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5권 4호, 2014, p.55-57.

19) “기호란 어떤 거래를 위하여 동의를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것으로 삼원적인 특성을 갖는다(CP:6.344)” 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문서를 통해 그의 기호 개념이 삼원적 방식에 근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퍼스는 기호가 삼원적인 관계에 있다고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연구 기록을 통해 “...기호는 대상체와 해석체의 관계 속에 있는 어떤 것이다.” (CP:1.339,1.540,2.228,5.283,6.347 등)라는 말을 여러 번 언급한 바 있다(조창연, 『기호학과 뇌인지과학의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북스, 2014, p.56).

표 1. 현대 기호학의 창시자와 두 이론의 특징 비교

구분	페르디낭드 소쉬르	찰스 샌더스 퍼스
출현 시기	19세기 말	19세기 말
장소	스위스 -제네바대학교	미국- 하버드대학교
분절 체계	이분법	삼분법
개념	언어적 개념	비언어적 개념
분절체	기의, 기표	표상체, 대상체, 해석체
범위	언어, 청각음(구조)	인식, 관념, 모든 기호체
기호 과정	종결	계속적 의미 작용
계승자	엘름슬레우, 로만 야콥슨, 바르트르, 그레마스, 크리스티앙메츠 레비스트로스, 라캉	단절
		모리스
		움베르토 에코

퍼스의 기호 유형 중 가장 유명한 도상, 지표, 상징의 삼분법은 기호(표상체)와 대상의 관계에 따른 분류로 시각 이미지의 해석에 유용하다는 견해로 연구에 응용되어 이러한 퍼스의 기호학은 현대 미술 이론 분야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다.²⁰⁾ 퍼스는 시각예술인 미술을 기호와 의미 작용 간의 커뮤니케이션으로 보았고, 세미오시스 과정을 통한 인식을 사고와 생각의 바탕이라고 했다. 기호 작용에 대한 많은 관념과 연구들은 논리적 정서를 목적으로 하고 삶과 믿음에 있는 진정한 항상성을 목표로 하였다. 이러한 그의 이론은 사후 오랫동안 단절되었다가 모리스(Charles Morris, 1901 ~1951)에 의해 체계적으로 이론화²¹⁾되었다. 1940년대 이후에는 야콥슨(Roman Jakobson,

20) 김민규, 「도상학과 기호학을 활용한 미술 작품의 해석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2, p.129.

21) 모리스의 미학과 기호 이론(1939년)은 기호학적 미학의 형성에 결정인 역할을 하고, 이후

1896~1982)의 시학이론과 언어학에도 영향을 주었다. 기호학자, 철학자, 문화 비평가 등으로 알려진 움베르토 에코(Umberto Eco)는 퍼스의 연구를 높이 평가하고 그의 기호학에 영향을 받아 연구하였다. 기호학의 해석의 핵심 부분이라 말할 수 있는 ‘관념에 대한 인식연구’로 ‘퍼스의 기호학’을 재조명한 바 있다.

2.2 현대 기호학

기호학은 커뮤니케이션의 의미와 해석에 대한 논리적인 연구에서 출발하였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사이에 일어나는 소통의 메시지는 기호이며, 이를 통하여 소통이 이루어지고 결과적으로 다른 이에게 동일하거나 유사한 개념을 이해시키고자 시작되었다. 기호학은 이러한 의미 전달과 해석을 통해 신호와 사물이 주는 의미를 이해하거나 해석이 불분명한 기호를 비교적 논리적으로 해석하여 전달받을 수 있다는 데 의의를 가진다. 현재 새롭게 등장하는 특별한 형태의 그림책을 기호학 분석으로 분석한다면 더욱 명료하고 심층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국내에서 그림책들이 기호학으로 연구되고 있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기호학분석틀로서는 소쉬르의 구조주의의 영향을 받은 유럽의 기호학자들 중 그레마스²²⁾와 바르트르²³⁾의 기호학 이론들이 있다. 또 다른 분석 방법으로

기호학적-미학적 연구에 지속적인 영향력을 미친다. 인간의 모든 기호 행위를 조사하기 때문에 모리스는 미학을 기호학의 한 분야로 이해한다. 이러한 미학 논문에서 미학적 숙고를 위한 출발점은 기호 이론의 토대에서 발전된 3 단계의 기호 과정의 모형이다. 그 후 사원적 이상의 기호구성 사례로 모리스(1969)와 클라우스(Klaus, 1969)의 연구가 있었고, 모리스(1975)는 구성요소들의 관계에서 기호화 과정을 다섯 가지로 모색하기도 한다. 구성요소가 다차원적인 기호 구조는 단순한 차원의 기호구조보다 대상체를 더욱 객관적으로 재현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런 의미에서 여섯가지 혹은 그 이상의 차원으로 구성된 기호형식을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사례는 지금까지 알려져 있지 않다(조창연, 『기호학과 뇌인지과학의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북스, 2014, p.57-59).

22) 프랑스 언어학자인 알지르다스 줄리앙 그레마스(Algirdas J. Greimas 1917-1992)는 파리 기호학파의 창시자이며, 행동자 모델, 서사 프로그램, 기호 생성 모델, 기호사각형 등의

서 퍼스의 기호학적 삼분법 분석이론으로 압축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대표적인 기호학이론들을 활용하면 어떠한 대상이나 어떠한 분야에도 적용하여 분석할 수 있다²⁴). 그레마스의 ‘기호학’은 기호와 언어 및 문학적 텍스트의 분석에 국한되지 않고 학문적 담론이나 다양한 분야의 분석에도 응용되었다. 그레마스 이론에서 핵심적인 모델로 텍스트의 근간을 이루는 이항대립쌍을 구조화한 호사변형은 이항대립(binary opposition) 구조로 설명할 수 있다²⁵). 그림책 연구에 이항대립적인 측면과 서사적 내레이션 측면, 행위소 분석 도구로 응용하여 연구되고 있다. 바르트르의 기호학적 연구로서 신화론(Mythologies)은 사회문화적 모든 매체에서 내재된 이데올로기를 연구하고, 외시적, 내시적, 함축적 의미를 찾아내고자 하는 분석이론이다. 신화론은 바르트르가 고대의 신화 개념을 차용하여, 영화, 무대공연, 연극, 사진, 신문기사, 전시회 등 당대 문화 체계 내에서 당연히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회 보편적 가치관을 ‘신화’로 정의하였다. 새롭게 확장된 ‘신화’라는 개념을 정의하고 분석함으로써 그 속에 위장되고, 내재되어 있는 숨겨진 가치관을 밝히려 하였다²⁶). 이러한 방법들을 연결하여 그림책을 분석하고 해석한다. 여기서 신화는 이야기의 핵심 의미를 개념화하거나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형성하며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는 시대와 사회상을 반영한 시대의 조류가 모든 매체와 작품을 통해 드러나 암암리에 우리를 지

개념을 창시한 기호학자이다. 유럽의 현대 언어학사에서 매우 독창적이며 생산성이 탁월한 ‘구조주의 의미론자’ 또는 ‘생성적 기호학자’ 들 중의 한 사람이다.

23)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 1915-1980)는 프랑스의 철학자, 문학평론가, Collège de France 교수 그리고 구조주의자이자 기호학(semiotics)자다. 『일상생활 속의 신화들(Mythologies)』에서 현대인들의 평범한 일상생활 속의 사물과 관습들은 무심코 지나칠 평범한 것들이 사회나 혹은 어떤 집단의 신화로서 채워진다는 것을 인식하여 사회에 자리 잡은 신화들을 파악하려 하였고, 현대 브루조아와 대중문화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날카롭게 비평하였다.

24) 홍승연, 「그림책 〈지각대장 존〉의 의미 구조에 관한 기호학적 분석」, 기초조형학연구 14권 3호, 2013, p.371.

25) 임영내, 이규백, 「김개천의 종교 공간에 나타난 기호학적 특성 연구: 그레마스 기호사변형을 중심으로」, 기초조형학연구 16권 5호, 2015, pp.510-511.

26) 백선기, 『미디어, 그 기호학의 해석의 즐거움』,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7, p.3.

배하고 있다고 경고한다. 그림책을 포함한 문화 전체의 매체에서 그 시대와 사회를 반영하는 시각적 분석 도구로서 바르트르의 ‘신화’가 자주 사용된다. 피스의 기호학 연구도 다각적인 분야에서 적용되고 특히 시각적 이미지와 건축물 연구까지 확대되었다. 그의 삼분법 이론은 철학과 논리적인 바탕에서 소통과 해석의 영역까지 확장된 연구다.

피스는 기호의 범주를 표상체(Representamen), 대상체(Object), 해석체(Interpretant)의 삼원적 구조로 보았다. 삼분법 기호관계는 복잡한 분류 체계로서 각각을 계속 세부적으로 나누었다. 세 가지 기본적인 존재 범주가 공통된 삼분법적 관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무한한 기호 작용의 해석으로 이어진다. 그의 기호 유형 중에 가장 대표적인 도상, 지표, 상징의 삼분법은 많은 그림책 연구에 분석 도구로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삼분법을 기초로 한 의미 작용 틀을 응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표 2. 그림책의 기호학적 분석 방법

구분	바르트르	그레마스	피스
특징 요소	이데올로기	기호사각형의 행위소	무한한 해석
특징 개념	이분법 + 신화	이분법 + 행위소	삼분법

현대 기호학은 다양한 기호이론과 방법론 연구를 통하여 많은 영역에 영향을 미치며 기호학 연구를 통해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매개 역할을 한다. ‘분석’하고 ‘해석’하는 구조 분석은 우리들에게 현실의 기호와 텍스트를 새로운 시각으로 인식하고 자각하게 하는 도구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것들을 ‘읽어내는’ 것은 독자의 경험과 역량에 따라 개인적인 차이가 있다.

Ⅲ. 철학적 그림책

1. 철학적 그림책의 의미

현재 국내 도서관에서는 표준분류표라 할 수 있는 한국십진분류법(KDC)에 따라 책을 분류하고 장르별, 주제별, 형태적 유형에 따라 구분한다. 본 논문에서는 현대 그림책의 내용 요소에 중심을 두어 놀이 그림책, 옛이야기 그림책, 정보 그림책, 운문 그림책, 창작 그림책, 판타지 그림책, 철학적 그림책 등 7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놀이 그림책은 영·유아들이 태어나 처음 만나는 그림책 유형으로서 촉각적인 감각이나 시각적, 청각적인 요소가 강조되어 함께 어우러진 그림책이다. 옛이야기 그림책은 구전, 전래동화, 신화, 우화, 설화, 전설을 포함한 그림책이다. 정보 그림책은 특정 사건, 인물, 역사, 여행 등 정보나 학습, 교육에 필요한 모든 지식적인 책이다. 운문 그림책은 동시, 산문시, 서정시와 같은 많은 시와 전래 동요 등 운율이 강조된 그림책을 말한다. 창작 그림책은 작가가 자신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이야기를 엮은 창작물이다. 판타지 그림책은 현실 세계에서 일어날 수

표 3. 그림책의 종류와 특징

종류	특징
놀이 그림책	기능성이 첨가된 영, 유아 대상의 놀이용, 감각 자극
옛이야기 그림책	전래동화, 신화, 우화
정보 그림책	역사, 학습, 지식을 전달하는 그림책
운문 그림책	운율적 요소를 지닌 시, 가락, 운율
창작 그림책	새롭게 만들어낸 생활 그림책, 창작 그림책
판타지 그림책	환상 세계를 담은 그림책
철학적 그림책	철학적 메시지와 미술적 요소가 조화된 그림책

없는 환상적인 내용과 요소들이 담긴 그림책이다.

마지막으로 철학적 그림책은 삶을 성찰하는 메시지와 미술 작품적 요소가 어우러져 현대인들에게 삶의 의미를 반추하고 사유하게 하는 그림책이다.

철학적 그림책이라는 명칭은 일반적으로 출판사에서 홍보용 책자나 소개 글에 사용²⁷⁾되었다. 대형 서점이나 출판사들은 감성 철학 그림책, 철학 그림책, 비타민 철학 동화, 생각하는 그림책 등의 시리즈나 날권으로 분류하여 제작·유통되고 있다. 철학적 그림책은 독자가 관계, 현상, 사물들을 접하며 ‘왜?’ 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들로 시작된다.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 “이건 왜 그럴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합리적 대답을 얻으려 노력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그림책 전체에서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철학적인 질문, 성찰, 지혜 등을 담고 있는 그림책을 철학적 그림책이라 부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철학적 그림책은 삶의 진리나 다양한 교훈들을 훈계하는 방법이 아닌 간접적으로 빗대어 전달하는 형식으로써 화두를 던지고 독자들은 그 답을 찾아간다. 전 세계적으로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손 탠(Shaun Tan)이나 지미 리아오(Jimmy Liao), 피터 시스(Peter Sis) 같은 작가의 작업들이 철학적 그림책, 철학 그림책으로 소개되는 그림책이다.



그림 3. 손 탠(왼쪽)과 피터 시스의 철학적 그림책.

27) 신소연, 장혜진, 「이보나 호미엘레프스카의 그림책에 관한 연구 -퍼스의 기호학을 바탕으로 한 분석을 중심으로-」, 기초조형학연구 15권 5호, 2014, p.330.

철학(哲學, philosophy)이란 용어는 오늘날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학문으로서의 철학, 난해하고 어려운 철학이다. 그러나 조금만 가까이 들여다보면 일상의 생각이나 태도, 삶을 헤아리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 오랫동안 변함없이 계속된 성찰이 철학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던지는 끊임없는 질문,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사유, 살아가는 데 중요한 가치관이나 자신의 경험에서 얻어진 세계관이나 인생관인 것이다. 소크라테스(Socrates)가 스스로에게 던졌던 ‘삶에서 비롯된 질문’과 같이, 인간 본질에 대한 성찰이며 현명하고 올바른 지혜에 관한 사랑이다²⁸⁾. 칼리클레스(Callicles)²⁹⁾는 역사상 최초로 철학을 반대했던 사람으로 철학을 ‘애들 잡동사니’로 폄하할 정도로 하찮고 가볍게 여겼다.³⁰⁾ 보편적으로 철학을 심오하고 어렵게 여기는 경향이 있지만, 본래 철학은 어린이들 것으로 과소평가될 정도로 일상의 기준이 되는 단순한 것이었다. 오늘날의 철학도 그 시대와 사회의 가치관을 유기적으로 대변하는, 우리가 살아가고 생각하는 방법이자 지혜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누구나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며 다음과 같은 질문을 끊임없이 자신에게 던진다.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나?’ 로버트 풀검(Robert Fulghum)은 인생의 커다란 질문에 대해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으며 삶의 기본이 되는 지혜는 대학원의 상아탑 꼭대기에 있지 않고, 유치원의 모래성 속에 있었다.”라고 대답하였다. 철학적 그림책은 이와 같은 철학적 사유, 즉 일상에서 겪는 삶에 대한 단순한 물음이나 성찰을 미술 작품적 요소에 추가하여 그림책으로 엮어낸 것이다. 결코 생소하거나 낯선 것이 아닌 주변에서 쉽게 접하는 주제를 그림책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출판사에서 ‘철학적 그림책’이라는 용어 사용

28) 페르난도 사바테르, 장혜경(역), 『세상이 던지는 질문에 어떻게 답해야 할까?』, 갈매나무, 2012, p.308.

29) 플라톤의 대화편 중 《고르기아스》에 등장하는 유명한 소피스트, 고르기아스의 제자.

30) 개러스 매슈스, 남기창(역), 『아동기의 철학』, 2013, 필로소픽, 2013, p.12.

하고 있으며, 세계적 공모전에서 ‘철학적 그림책’이라는 표현을 사용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보다 명확하게 철학적 그림책을 정의하기 위해 철학적 그림책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표 4. 철학적 그림책의 특징

철학적 그림책의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음 • 미술 작품으로서의 소장 가치 • 정답이 없으며 불확실한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음 • 2010년 이후 성인 독자들에게 새롭게 소구되는 유형 • 예술 매체로서 새로운 장르 형성의 가능성

2. 철학적 그림책의 종류

『제4차 산업혁명』의 저자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은 미래에 도래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우리의 정신과 마음, 영혼을 함께 모아 지혜를 발휘해야만 우리에게 닥칠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다고 말하였다.³¹⁾ 평생 철학자로 살았던 칸트(Immanuel Kant)는 자신의 학문을 되돌아보며 세 가지 물음에 답하기 위해 연구를 시작하였다고 회고하였다.³²⁾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믿어도 좋은가?” 이는 각각 인간의 인식, 행위, 믿음에 대한 질문이다. 강신주는 철학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자신의 저서 『철학이 필요한 시간』에서 ‘나를 찾아서’ (자아를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이고, ‘나와 너 사이’

31) 클라우스 슈밥, 송경진(역), 『제 4차 산업혁명(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새로운 현재(메가북스), 2016, p.251.

32) 한스 요아힘 슈퇴리히, 박민수(역), 『세계철학사』, 이룸, 2008, p.35.

(자신과 타인의 관계 이해)를 성찰하기 위해서이고, ‘나 너 우리를 위한 철학’ (사회적 인간으로서의 우리를 이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리하였다. 또 미하엘 비트쉬어(Michael Wittschier)는 자신의 저서 『철학오디세이』의 목록을 분류함에 있어 ‘철학적 사색의 길잡이’, ‘도덕 철학의 길잡이’, ‘인식론의 길잡이’로 정리했다. 이같이 철학이 다양한 주제와 광범위한 영역을 갖게 된 것은 이 학문이 오랜 역사를 통해 발전해 왔고, 철학을 행하는 방식이나 개념 자체가 포괄성과 다의성을 갖기 때문이다.

철학은 개인과 국가, 각각의 관계와 사회 안에서 올바른 정치 체계나 권력 양상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문을 던진다. 상반되는 학파의 문제 제기를 통하여 변화하며, 통합되고 보완되기도 하고 성숙되기도 하였다. 그 시기의 문화나 시대적 상황과 따라 제시된 해법도 변했다.³³⁾ 과거에 바람직한 인간상은 주로 개인의 도덕적·윤리적 덕목을 의미하였고, 이에 따라 선하고 예의 바른 인성을 갖춘 사람을 바람직한 성인이라 보았다. 현대사회에서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이기주의, 갑의 횡포, 부정부패, 폭력, 범죄 등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며, 인간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공동체와 원만한 관계를 맺고 소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다. 현대사회는 개인적 차원에서 관계적 차원으로 그 영역이 확장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바람직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타인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먼저 확립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루소(J.J. Rousseau)는 자기애를 다른 사람들에게 넓히면 타인을 향한 미덕으로 바뀐다고 말하였다. 자신을 먼저 아끼고 이해하는 일에 마음을 쓰는 것은 타인과 조화로운 관계를 맺는 것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철학은 나에 대한 개인적인 질문에서 시작하여 우리라는 공동체 개념으로 점차 확장되고, 나아가 사회나 국가에 대한 이해와 견해로 넓혀나갈 수 있다.

33) 로제 폴 드루아, 이창실(역),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철학 이야기』, 2006, 동문선, p.103.

사람은 혼자서 존재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 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또한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타인과 사회의 모든 것들은 서로 연결고리를 가지며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 본 철학적 그림책 연구에서도 철학적 그림책을 분류하는 3개 개념으로, 나로부터 출발하는 ‘자아성찰’, 다른 사람에 대해 자각하는 ‘타인과의 관계’, 주변 모든 것에 대한 조화를 생각하는 ‘사회적 인간으로서 환경과 세상과의 연대’로 구분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2.1 자의식의 성장과 성찰

철학의 가장 처음은 자신을 들여다보는 자아성찰에서 비롯된다. 정체성에 대한 자각과 삶에 대한 고찰에서 시작하며, 산다는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하여 숙고한다.

헬메 하이네의 그림책인 『코끼리 똥』³⁴⁾은 주인공 코끼리의 1세에서 100세까지 성장과 노화를 묘사하며, 인간의 삶을 풍자한 작품이다. 작가는 한 마리 코끼리의 삶을 ‘먹고 똥 싸는 행위의 반복’으로 묘사하며, 주인공 코끼리의 일생을 인간의 삶에 이입하게 한다. 탐욕스레 먹고 싸서 모으던 코끼리가 50세에 이르러 매년 늘어나던 ‘똥’이 감소하면서, 그것들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삶의 이치를 깨닫는 것이다. 끊임없이 비교하고, 계산하여 평가되는 등수, 은행 잔고, 나이, 재산 등의 숫자들을 떠올리게 한다. 그림책 『나는 기다립니다』³⁵⁾에서도 한 남자의 일생을 묘사한다. 살면서 기다리는 무수한 순간들을 간결한 팬 드로잉과 빨간 끈으로 스케치한다. 어린 소년이 노인이 되기까지 겪는 인생의 생로병사, 희로애락이라는 무거운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글과 그림, 모두를 간결하게 묘사하고 있다. 그림책만이 가질 수

34) 헬메 하이네, 『코끼리 똥』, 베틀북, 2001.

35) 세르주 블로슈(저), 다비드 칼리(그림), 『나는 기다립니다』, 문학동네, 2007.



그림 4 . 헬메 하이네이의 『코끼리 똥』, 세르쥬 블로슈의 『나는 기다립니다』

있는 장점을 살린 철학책이다.

브라이언 와일드스미스(Brian Wildsmith)의 그림책인 『펠리컨』³⁶⁾에서는 어린 소년 ‘폴’이 ‘펠리컨 알’을 만나, 그 알이 부화되면서 어린 펠리컨을 가르치고 돌보아 어른 펠리컨으로 성장시키는 이야기다. 창조의 신비와 생명적 요소를 대변하지만 ‘알’로 이야기는 시작된다. 환영받지 못하는 이질적이고 못생겨 미운 짓만 하는 펠리컨은 미숙하고 거친 사춘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며, 우리의 자화상이기도 하다. 그림책 『마음의 집』은 2010년 국내에서 출판된 작품으로 볼로냐 라가치 논픽션 부문 대상을 받았다.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로 시작하여 마음의 본질, 마음의 상태, 마음의 변화를 이야기하며 한 편의 시 같은 은유적 표현들을 나열한다. 작가의 마음을 이입하여 그것과 연관된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본인의 마음을 다스리며 독자의 경험과 생각들을 다시 이끌어 내게 한다.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마음’을 시각화(방, 벽, 창문, 계단, 번기, 편지 봉투 등)하여 누구나에게 ‘마음’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 마음’의 흐름과 모양과 상황, 상태를 이야기한다. 유타 바우어(Jutta Bauer)의 그림책 『셀마-셀마가 간직한 행복의 비밀』의 출판사는 어린이만을 대상으로 한 그림책

36) 브라이언 와일드스미스, 『펠리컨』 시공주니어, 1999.

이 아니라 7세부터 70세까지 읽을 수 있는 책으로 소개하였다.³⁷⁾

이 그림책은 매일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는 어미 양 셀마(이웃집 아주머니)를 통해 현대인들이 추구하고 찾아야 할 행복의 의미를 성찰하게 도와준다. 동물들을 의인화하여 현대인의 삶을 반추하게 하는 이 그림책은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의 가치에 대해 역설하는 구조다. 이것은 성장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질주하는 현대인의 삶의 형태와는 대치되는 요소다. ‘이웃집 아주머니, 양 셀마’가 살아가는 평범하고 반복적인 삶에 대하여 ‘행복’이라는 이상적인 가치를 부여한다. 책의 사이즈와 작가의 표현 기법조차 작고 소박하고 간결하여 이 책이 보여주는 ‘행복’이라는 상징적 요소를 가시적으로 표현하여 제작되었다.

자신의 외면적인 성장과 정체성을 다룬 『펠리컨』, 내면의 세계를 성찰하는 『마음의 집』, 인생의 방향성을 찾는 『셀마』는 모두 자아 성찰을 위한 화두가 될 것이다. ‘나는 어디에서 왔을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이 되고 싶은가?’ 등의 철학적 물음인 심미적인 코드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이 이 책들의 최종 목적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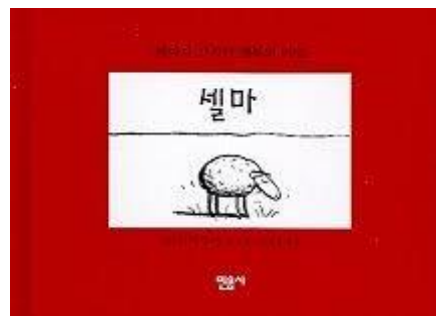


그림 5. 유타 바우어(Jutta Bauer)의 그림책 『셀마-셀마가 간직한 행복의 비밀』

2.2 타인과의 관계

누구나 타인에 대하여 나름의 선입관과 편견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가장 오랫동안 함께하는 가족도 서로에게는 낯선 타인일 수 있다. 이렇게 아주

37) http://book.interpark.com/product/BookDisplay.do?_method=detail&sc.prdNo=1747052&bid1=search&bid2=contents&bid3=review&bid4=img

가까운 관계들을 다시 뒤집어보면서 타인을 이해하며 성장해 나가기도 한다. 알랭세르의 『으르렁 아빠』³⁸⁾는 가족 안에서 어린이의 시각으로 바라본 권위적이고 어렵고 두려웠던 아버지에 대하여 거친 선과 대담하고 원색적인 스타일로 이야기를 전개한다. 조금은 우스꽝스럽고 허술하고 약한 면을 가진 아버지의 실체를 깨달아가는 과정을 다룬 그림책이다. 『으르렁 아빠』가 가족 내의 아버지의 상을 대변했다면, 앤서니 브라운(Anthony Browne)의 『돼지책』³⁹⁾에서는 가족들을 헌신적으로 돌보는 엄마의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다. 가정을 유지하고 돌보기 위한 가사와 육아에 대한 희생과 노력을 당연히 받아들이고 누리는 가족 구성원들의 무관심과 안락함이 타인에게 폭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온 가족이 엄마 등에 업힌 책 표지를 통해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가족 내에서 다름을 주제로 대비한 그림책으로는 앤서니 브라운의 『터널』⁴⁰⁾이 있다. 이 책은 성향이 다른 남매를 소재로 서로 다른 취미와 기질을 가지고 어울리지 못하는 한계를 사실적인 묘사와 은유적인 물건들, 주인공들의 시선을 통해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대비를 극대화한 그림책으로는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⁴¹⁾, 『아모스와 보리스』⁴²⁾, 『두 사람』⁴³⁾을 예로 들 수 있다. 시원한 터치와 흑백 대비를 이루는 색채와 소박한 텍스트가 어우러져 두 고양이 사이의 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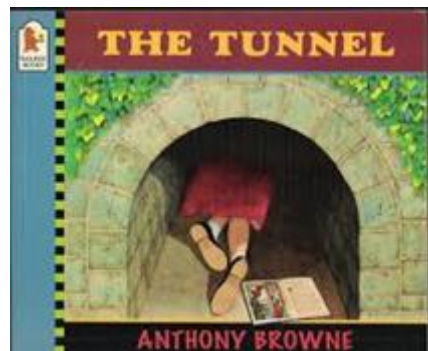


그림 6. 앤서니 브라운의 그림책 『터널』

38) 알랭 세르, 『으르렁 아빠』, 그림책공작소, 2016.

39) 앤서니 브라운, 『돼지책』, 웅진주니어, 2001.

40) 앤서니 브라운, 『터널』, 논장, 2018.

41) 기쿠치 치키,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 시공주니어, 2017(2013년 BIB 황금사과상 수상, 기쿠치 치키의 데뷔작).

42) 윌리엄 스타이그, 『아모스와 보리스』, 비룡소, 2017.

43) 이보나 호미엘레프스카 그림, 『두 사람』, 사계절, 2008.

교와 시기에 대한 자존감을 표현해 큰 울림을 이끌어 낸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 생존하는 터전과 크기 등 상반된 습성을 가지고 공통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은 쥐와 고래의 우정을 만남에서 헤어짐까지 전체 과정을 설득력 있게 설정하여 아름답고 꼼꼼하게 묘사한 서정적인 그림책인 『아모스와 보리스』, 성인을 대상으로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세련된 색채와 사색적 문구로 두 타인의 이질적인 다름을 대비하여 엮어가고 있는 완성도 높은 그림책인 『두 사람』. 이 책들은 타인과의 다름을 극대화하면서도 수용하고 친밀하게 지내며 서로 교감하는 이야기들을 다루었다. 2002년 ‘독일의 가장 아름다운 책’에 선정된 유타 바우어의 『할아버지의 천사』⁴⁴⁾와 존 버닝햄의 『우리 할아버지』⁴⁵⁾는 죽음을 앞둔 조부와 손주들의 이야기들이다. 10대 소녀의 정체성의 혼란을 그린 『아빠는 내 맘을 몰라』⁴⁶⁾와 장마다 빨간 색을 배경으로 삼아 상실의 슬픔을 묘사한 『무릎팍지』⁴⁷⁾, 이 두 작품들은 엄마의 죽음을 맞이한 어린 자녀들의 아픔과 위태로움을 담고 있다. 소풍을 간 두 친구가 죽음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모습을



그림 7. 기쿠치 치키와의 『흰고양이 검은 고양이』와
이보나 흐미엘레프스카의 『두 사람』

44) 유타 바우어, 『할아버지의 천사』, 비룡소, 2014.

45) 존 버닝햄, 『우리 할아버지』, 비룡소, 1995.

46) 재니 호커(저), 앤서니 브라운(그림), 『아빠는 내 맘을 몰라』, 푸른 숲 주니어, 2012.

그린, 진지하고 따뜻한 그림책 『사탕』⁴⁸⁾, 반려묘의 죽음을 그린 『고양이 나무』⁴⁹⁾ 등도 가까운 대상과의 이별과 상실에 대한 그림책들이다. 타인에 대한 이해, 교감, 이별과 만남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죽음이라는 공통된 한계성은 개인의 삶에 방향을 전환하게 한다. 우리는 타인과의 삶을 통해 배우고 깨닫고 성장해 나가는 존재들이다. 사람들은 서로 같은 공간, 같은 시대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인종, 지역, 상황과 환경 등의 이유로 커다란 불목의 벽이 된다. 타자를 이해한다는 것은 타자를 통해 나를 보는 것이고, 철학을 하는 성숙한 삶의 시작이자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 그림책들은 ‘타자와 더불어 사는 공존’을 성찰하게 하며, 개인공동체나 사회공동체 안에서 올바르게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2.3 사회적 인간으로서 환경과 세상과의 연대

사회 안에서 인간이 어떤 가치와 규범을 가지고 상호 협력하며 연대해야 하는지를 알아가는 것은 철학적 주제의 하나다. 인간은 태어나 개인적이고 가족적인 차원에서 보호받고 자라면서 더욱 넓은 사회공동체로 관계가 확장된다. 성숙한 인간의 가치관도 개인적 차원에서 사회적 영역으로 확장되며 더불어 살아가는 유기적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더 좋은 세상을 위해 동참하는 것이다. 레오 리오니(Leo Lionni)는 주인공 쥐, 『프레드릭』⁵⁰⁾를 통해 사회 안에서 게으르고 무기력해 보이는 예술가와 그를 바라보는 시각을 다루고 있다. 이 그림책은 먹고 사는데 급급한 대부분의 현대인에게 예술의 가치를 일깨워 주는 수작이다. 『쌍둥이 빌딩 사이를 걸어난 남자』⁵¹⁾는 프

47) 샤를로트 문드리크, 이경혜(역), 올리비에 탈레크(그림), 『무릎딱지』, 한울림 어린이, 2010.

48) 실비아 반 오먼, 실비아 반 오먼, 『사탕』, 월천상회, 2018.

49) 저:오사다 히로시, 그림:오하시 아유미 『고양이 나무』, 꿈교출판사, 2018.

50) 레오 리오니, 『프레드릭』, 시공주니어, 2017.

51) 모디케이 저스타인, 『쌍둥이 빌딩 사이를 걸어난 남자』, 보물창고, 2004.

랑스에서 1974년 일어난 사건을 다룬 그림책으로 한 젊은이가 쌍둥이 빌딩 사이에 팽팽히 줄을 매고 300미터 높이의 공중을 오가며 걷고 춤추며 묘기를 부리다가 결국 법의 처벌을 받는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타인과 개인이 지켜야 할 규율과 규칙에 대한 가치기준을 깨우치게 하며 궁극적으로 협력과 공존을 위한 규범을 전하고자 했다.

이보나 호미엘레프스카의 『블룸카의 일기』⁵²⁾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어린 학생들이 작가의 모국인 폴란드의 강제수용소 가스실에서 생을 마감한 실화를 모티브로 하여 일기 형식으로 전개되는 그림책이다. 사실적인 묘사, 채도가 떨어지는 차분하고 투명한 색채, 흰색 배경의 여백에 스산함이 느껴지는 표정 없는 아이들이 등장한다. 가여운 영혼을 위한 한 권의 서정적 추모시집 같은 이 그림책은 전쟁과 인권 문제를 돌아보게 한다. 피터시스의 『장벽』⁵³⁾은 자신이 겪은 사회적 상황,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분쟁에 대한 체험을 공유하며 제한된 선과 색으로 꼼꼼히 설명하고 스케치한다. 그림책은 최근 국제사회에서 언급되는 난민 문제도 다루고 있는데, 야로스와프 미코와 예프스키(Jarosław Mikołajewski)의 『Wędrówka Nabu』⁵⁴⁾에서는 전쟁으로 파괴된 작은 마을 출신의 소녀 나부(Nabu)가 어쩔 수 없이 떠돌아다니는 비극적이고 슬픈 현실을 직시하게 한다. 아민 그레더(Armin Greder)는 『섬』⁵⁵⁾과 『빼앗긴 사람들』⁵⁶⁾, 모르텐 뒤르는 『제노비아』⁵⁷⁾에서 이 시대의 난민들이 마주하는 죽음과 절망을 고발한다. 존 버닝햄(John Burningham)의 『깃털 없는 기러기 보르카』⁵⁸⁾, 정진호의 『위를 봐요』⁵⁹⁾,

52) 이보나 호미엘레프스카, 『블룸카의 일기』, 사계절, 2012.

53) 피터 시스 피터, 『장벽』, 시스출판사, 아이세움, 2010.

54) Jarosław Mikołajewski(저), Joanna Rusinek(그림), 『Wędrówka Nabu』, Austeria Publishing House, 2016.

55) 아민 그레더, 『섬』, 보림, 2009.

56) 아민 그레더, 『빼앗긴 사람들』, 지양어린이, 2018.

57) 모르텐 뒤르(저), 라스 호네만(그림), 『제노비아』, 지양어린이, 2018.

58) 존 버닝햄, 『깃털 없는 기러기 보르카』, 비룡소, 1998.

59) 정진호, 『위를 봐요』, 은나팔, 2014(볼로냐 라가치상 오페라 프리마 부문 스페셜, 멘션 2015 수상작).

이보나 호미엘레프스카의 『우리 딸은 어디 있을까?』⁶⁰⁾는 모두 장애를 가진 대상이 주인공이다. 『Red: A Crayon's Story』⁶¹⁾, 『Morris Micklewhite and the Tangerine Dress』⁶²⁾, 『Goblinheart』⁶³⁾에서는 젠더에 대한 자각, 특별한 자아를 인식하는 소재이며 남들과 다른 평범하지 않은 성향에서 각 개인의 독립된 정체성을 정립해 나가는 이야기를 다룬다. 이 시대의 소수자들과 소외된 집단을 그린 이러한 책들은 그저 현실을 보여줄 뿐 어떠한 대안이나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극적인 기적으로 마무리하지 않는다. 우리 현실을 그저 담담히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외면하거나 인식하지 못했던 부분을 각성하게 하는 힘을 가진다.

이러한 철학적 주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세계에서 벗어나 자연 생태계로까지 확장된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생태 위기와 파괴, 동물들의 감소, 멸종 등을 주제로 한 그림책도 활발히 출판되고 있다. 그동안 인간들의 무차별적인 사냥과 포획으로 많은 생물의 개체 수가 급감했고 많은 개체군이 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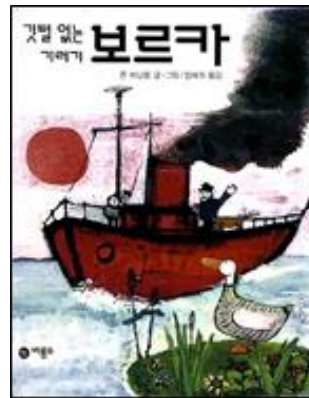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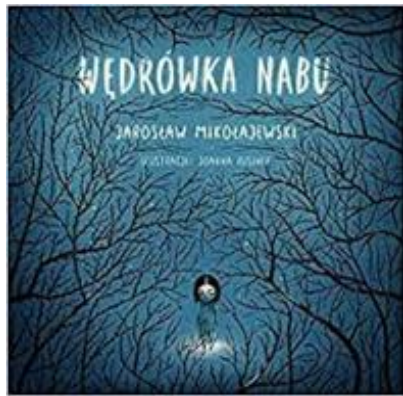


그림 8. 야로스와프 미코와예프스키의 『Wędrowka Nabu』와 존 버닝햄의 『깃털 없는 기러기 보르카』

60) 이보나 호미엘레프스카, 『우리 딸은 어디 있을까?』, 논장. 2011.

61) Michael Hall, 『Red: A Crayon's Story』, Greenwillow Books, 2015.

62) Christine Baldacchino, 『Morris Micklewhite and the Tangerine Dress』, Groundwood Books, 2014.

63) Brett Axel(저), Terra Bidlespacher(그림), 『Goblinheart』, East Waterfront Press, 2012.

중 위기에 처했으며, 개발과 건설이라는 명목으로 행한 자연의 파괴와 오염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야, 우리 기차에서 내려!』⁶⁴⁾에서도 밀렵과 오염, 배고픔 등의 이유로 곤경에 처한 동물들을 하나둘 여행에 합류시키는 상황이 전개된다. 또 도시화되며 점차 황폐해지는 작은 섬의 이야기인 『낙원섬에서 생긴 일』⁶⁵⁾, 위기에 처한 고래를 돕는 이야기인 『구조 바람』⁶⁶⁾, 동물들의 터전이 잠식되는 과정을 시각적으로 보여준 글 없는 그림책인 『코끼리는 어디로 갔을까?』⁶⁷⁾는 자연보호와 생태계 공생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이런 책들은 현재 지구의 환경 문제를 재치 있게 반영한 책이다. 누군가의 진정한 이웃이 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인간과 자연이 친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공존의 의미를 성찰하게 하는 그림책들이다. 이러한 그림책들은 소수자나 집단이 겪는 어려움들과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관습, 편견, 이기주의는 물론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생태 등에 대한 연대성을 인식하게 한다. 이러한 철학적 그림책에 대한 분류는 그 그림책들을 더욱 자세히 들여다보게 하고 외적으로 드러난 표현적 요소보다는 작가가 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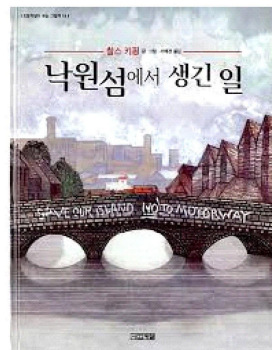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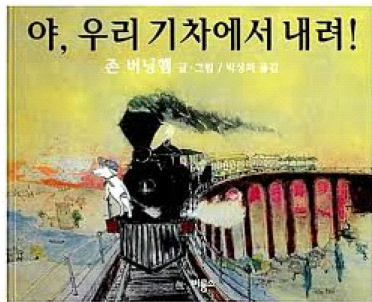


그림 9. 존 버닝햄의 『야, 우리 기차에서 내려!』와 찰스 키핑의 『낙원섬에서 생긴 일』

64) 존 버닝햄, 『야, 우리 기차에서 내려!』, 비룡소, 1999

65) 찰스 키핑, 『낙원섬에서 생긴 일』, 사계절, 2008.

66) 로이 미키(저), 줄리 플렛(그림), 『구조 바람』, 씨드북, 2018

67) 바루, 『코끼리는 어디로 갔을까?』, 사파리, 2015.

지는 철학적 메시지에 귀 기울이게 한다. 철학적 그림책의 분류는 각각의 구분된 그림책들을 소개할 수 있고 그 그림책들이 가진 철학적 메시지의 울림과 파장의 값진 가치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로버트 폴검은 “우리는 살아가면서 유치원에서 배운 것들을 계속 다시 배우게 되며 도덕규범, 법률, 강의, 서적, 설교 등 훨씬 복잡해진 형태로 우리가 배운 것들을 제대로 알고 실천하는지 끊임없이 확인하는 과정이다.” 라고 말한다. 그는 상상력은 지식보다 강하고 신화는 역사보다 강력하며, 사랑과 희망과 꿈은 늘 현실을 넘어서며 죽음보다 강하다고 피력한다. 이러한 것들을 담고 있는 철학적 그림책은 우리에게 각성과 위로로 초대하며 그 가치와 의미를 되새길 수 있게 한다. 또한 이러한 연구들이 앞으로 제작될, 보다 좋은 철학적 그림책의 방향성을 고민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철학적 그림책으로 분류된 그림책들은 단순하고 즉각적인 해석보다 생각하게 하는 메시지와 상징적 이미지들을 통해 내면적이고 관념적인 요소들을 암시하기 때문에 기호학적 분석 방법이 더욱 유용하다. 『그림책이 있는 철학교실』의 저자인 카타리나 차이틀러는 철학적 그림책을 접하고 난 후의 결과로서 남의 말을 경청하고 남의 처지를 공감하며, 다양한 의견을 동등하게 존중하게 된다고 말한다. 현대 사회에서 철학적 그림책은 두껍고 어려운 책을 멀리하는 성인들에게까지 철학적 메시지와 미술 작품을 함께 접할 수 있는 대중 매체로서 새롭게 그 영역을 넓히고 있다.

IV. 그림책의 기호학적 분석

1. 그림책의 기호학적 분석 방법 도출

1.1 기호학 이론 분석

그림책의 형태가 학문적 연구 대상으로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에 이르러서이다. 페리 노들만(Perry Nodelman)은 본인의 저서 『The Relationships of Pictures and Words: Words about Pictures』를 통하여 최초로 그림책을 학문적 대상으로 보고 연구를 시도하고 분석하려고 했다.⁶⁸⁾ 우리나라에서 그림책에 대한 초기 연구는 주로 유아교육이나 아동문학에서 다루었으며, 김순덕(2000), 한유진(2000), 김나림·심성경(2004), 김나림·심성경(2004), 김미숙·최미숙(2005), 강은애·현은자(2005), 임영심·이경하(2006), 황보영란(2006)⁶⁹⁾의 연구를 찾을 수 있다. 그림책은 주로 언어 습득, 창의성 개발, 심리적이고 감정적 측면의 교육적 관찰과 분석들이거나 또 다른 유형의 문학 장르의 구조, 형식으로 연구되었다. 한편 그림책들은 체계적인 학문 영역인 기호학을 통해서도 연구되었다. 한국에서 선행된 기호학적 관점의 연구로는 2000년 이후 단일 작품을 집중 분석한 신혜선(2006, 2009, 2014, 2017), 권나라(2008), 김영수(2010), 이종호(2011), 장선단·이주리(2013), 홍승연(2013), 최성진·서정숙(2014), 황혜순(2014), 최성진·서정숙(2014), 두 권 이상을 비교·분석한 신혜선(2007), 유선희(2008), 신성남(2008), 박영선(2011), 사카베 히토미·문철(2012), 그림책 속 캐릭터의 의미에 집중한 조운주(2010), 민혜남·천정임(2015), 특정 작가의 그림책들을 분

68) 데이비드 루이스, 상계서, p.13.

69) 현은자 외 공저, 『그림책과 예술교육』, 학지사, 2008, pp.69-71.

석한 신소연·장혜진(2014), 이란·현은자(2015), 글과 그림의 관계를 살핀 변윤희·현은자(2002), 김영욱(2010), 표지의 기호화를 분석한 박인경(2010) 등⁷⁰⁾을 들 수 있다. 기호학자별로 분류해 본다면, 퍼스의 기호학으로 그림책을 분석한 연구로는 최성진·서정숙(2014)의 「퍼스의 기호학적 관점에 의한 그림책 분석-이수지의 『동물원』을 중심으로」, 신소연·장혜진(2014)의 「이보나 호미엘레프스카의 그림책에 관한 연구」, 신소연·장혜진(2017)의 「퍼스의 기호학을 활용한 그림책 분석」이 있다. 최성진·서정숙의 연구는 한 권의 책을 표상체와 대상체 해석체로 나누고 모든 장면과 글, 그림을 세분화 하여 연구하였다. 신소연·장혜진은 2014년에 철학적 그림책의 대표적인 작가인 이보나 호미엘레프스카의 작업을 퍼스 삼분법의 틀로 연구하였고, 2017년 연구는 퍼스의 삼분법(도상적 표현의 그림책, 지표적 표현의 그림책, 상징적 표현의 그림책)을 응용하여 그림책의 분류 체계를 연구하였다. 그레마스 기호 이론은 그림책 안에서의 행위소 분석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호학적 의미 생성의 행로semio-generativer Parkurs를 통하여 가장 쉽게 설명될 수 있다. 이 구조는 자연 세계와 언어의 의미 생성에 관한 가설을 정리한 것으로서 이상적이며 모델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레마스 기호학의 생성적 행로는 두 가지 구조, 즉 기호-서술적 구조semio-narrative Struktur와 담론적 구조diskursive Struktur로 구성된다. 이러한 그레마스 이론의 연구로는 김영수(2010)의 「그림책 평론: 모리스 센닥의 “괴물들이 사는 나라”」, 장미숙·남용현(2012)의 「스토리에 근거한 그림책 캐릭터의 시각적 정체성 연구-그림책 ‘구름빵’의 기호학적 분석」, 홍승연(2013)의 「그림책 <지각대장 존>의 의미 구조에 관한 기호학적 분석」, 사카베 히토미(2012)의 「일본 그림책에 나타난 메시지 전달의 기호학적 분석」, 황혜순(2014)의 「이수지의 그림책 『동물원』 연구-기호학적 관점으로」, 김영수

70) 신소연, 장혜진, 「퍼스의 기호학을 활용한 그림책 분석」, 기초조형학연구 18권 3호, 2017, p.182.

(2018)의 「그림책의 기호학적 의미 연구; 앤서니 브라운의 ‘돼지책’을 중심으로」 등이 있다.

황혜순의 연구는 그레마스의 설화성 이론으로, 그 외 연구들은 그레마스의 기호 사각형의 행위소 모델로 이항대립 구조를 통해 의미 생성 과정을 분석⁷¹⁾했다. 기호학자 롤랑 바르트 ‘신화’ 이론은 의미 작용(signification)의 한 양식이며 일종의 형식(forme)이다(Barthes, 1957/1995:26). 이런 신화의 형식은 시니피앙, 시니피에 그리고 기호로 구성된 3차원적 형식 및 도식으로 구성된다. 신화는 이차적인 기호학적 체계로서, 바르트는 이런 시니피앙과 시니피에라는 이분법적인 기호학적 체계 대신 그 항들을 묶어 주는 상호관계에 더 주목한다. 이현지(2011)의 「그림책에 나타난 ‘창’의 의미」와 이종호(2011)의 「글 없는 그림책의 기호학적 의미와 구조 분석-손 탠의 『도착』을 중심으로」는 바르트의 기호학으로 연구되었다. 이현지는 바르트의 의미 작용이론을 사용하여 그림책에 나타난 창의 의미를 분석하였기에 특정한 권의 그림책이 대상으로 하지 않고, 그림책 4권 안에 나타난 창의 이미지를 언급하며 바르트의 1단계 및 2단계 의미 작용들을 그림책 분석표로 분석하였다. 이종호는 손 탠의 글 없는 그림책 『도착』을 바르트의 신화적 의미 분석으로 연구하였다⁷²⁾. 여러 가지 기호학적 이론을 통합적으로 이용한 연구로서 신혜선(2006)의 「유아 그림책 ‘누가 내 머리에 똥 썼어?’의 기호학적 분석」의 경우 그레마스의 행위소 모델을 중심으로 분석하면서 바르트의 의미 작용 모델과 텍스트 구조 모델을 통합시켜 ‘그림책 구조 분석 모형 틀에 맞게 재구성한 분석틀을 제시하여 이분법적인 분석을 하였다. 또 단일 작품과 여러 작품을 이 방식으로 연구·발표하고 있다. 김명옥(2017)은 「기호학적 접근에 기초한 유아 그림책의 의미 분석 및 교육적 적용」에서

71) 이화정, 김중덕, 「애니메이션 <슈렉>에 재현된 기호학적 캐릭터 분석」, 디자인학연구 통권 제91호(23권 5호), 2010, p.267.

72) 조창연, 이주영, 『기호학과 미학』, 커뮤니케이션북스, 2016(롤랑바르트: 기호학적 텍스트 미학.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4346196&cid=42251&categoryId=59873>)

표 5. 그림책을 분석하는 기호학적 분석 방법

그림책을 분석하는 기호학적 분석 방법		
롤랑 바르트르	일차 기호(외시), 이차 기호(내시)	신화
그레마스	서술적 구조, 담론 구조	행위소
퍼스	삼분법(표상체, 대상체, 해석체)	
혼합된 방법	기호학적 의미 작용의 개념으로 접근	

국내외 그림책 4권을 선정하여 소쉬르, 퍼스, 바르트르, 그레마스의 내용 분석이론을 종합하여 연구하였다.

지금 발표된 그림책을 분석한 기호연구들은 개별 학자의 개별적 기호이론으로 분석하는 방법, 두세 가지 이론을 혼합하여 분석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기호학이라는 종합된 프레임으로 기호학의 개념적 요소를 이용하기도 한다. 우리가 일반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림책들은 주로 어린이들이나 유아를 대상으로 밝고 긍정적인 내용, 권선징악, 상선벌악의 서사 구조이거나 교육적이고 교훈적인 내용으로 제작되었다면, 현대의 그림책 시장은 더욱 많은 추상성, 모호성, 예술성을 가지고, 세대를 초월한 독자층으로 확대되고 있다. 최근 해외 그림책 수상작 중에는 이러한 작업이 다수 선정되었는데, 그림책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세계 최고 권위의 그림책에 수여하는 '올해의 볼로냐 라가치상'에 한국은 2004년부터 대상 1편을 비롯해 올해까지 총 23종의 그림책이 선정되었다. 수상작들은 과거 그림책보다 미학적·시각적 요소에서 한층 더 밀도 있고 우수한 그림책들이며, 추상적이고 개성적 콘텐츠들을 가진다. 라가치상을 두 번이나 받은 정유미의 『먼지 아이』, 『나의 작은 인형상자』는 어린이를 독자층에서 제외한 듯, 설명이 배제된 불친절한 형태로서 내면적이고 그로테스크하게 만들어졌다. 이러한 현대 그림책 수상작들은 그 시대와 사회상을 반영하며 미래의 그림책 시장을 선도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그림책들이 드러내는, 복합적이고 유기적인 기호들을 더욱 논리적이

고 체계적으로 이해하고자 할 때, 기호학의 철학적이고 과학적인 분석 방법이 그 해결책으로 제시될 수 있다. 앞의 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림책을 기호학으로 분석할 때 소쉬르의 이분법적 의미 작용 분석을 발전시킨 바르트와 그레마스의 이론을 토대로 분석하는 방법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기표와 기의, 통합체와 계열체라는 이분법적 의미 작용에서 핵심 요소에 집중해서 연구하였다. 그림책 분석에 활용되는 바르트르 신화 이론은 사회현상이나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을 분석하는 데 유용한 틀로서 언론, 광고, 문학, 예술 등 다방면으로 접목되어 연구되고 있다. 하지만 그림책이라는 매체는 근본적인 특징이 쉽고 간략하고 대부분의 그림책 내용상의 의미도 단순한 구조로 분석한 결과가 단선적인 면이 있다. 오히려 그의 이론으로 다층적 의미를 담고 있는 매체를 분석하는 데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그레마스의 행위소 이론은 주인공의 동선이나 스토리와 내용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유추해나가는 데, 전통적 스타일의 스토리 중심적 그림책을 분석하는 데에는 매우 용이한 분석 방법이다. 그러나 현대 그림책에서 등장하는 새롭고 실험적인 그림책이나 몇몇 철학적 그림책에서는 스토리나 행위의 동선이 제외된 경우들이 있어, 그레마스 이론으로 현대 그림책들을 모두 분석하고 적용하기에는 아쉬운 면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두 기호학자의 이론보다는 오히려 이분법적인 의미 작용의 기본 원리를 기초로 삼아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면에 중점을 두고 그림책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언어적 면에서의 통합체 분석 방법에서는 그림책의 전체의 문단과 구조를 살펴볼 수 있고 계열체 분석 방법에서는 이항대립적 구조를 찾을 수 있다. 한편 삼분법적 의미 작용은 표상체, 대상체, 해석체의 순으로 그림책 각 페이지의 프레임에 나타난 이미지와 문자를 하나의 통합체적 기호로 보고 접근한다. 대상체 분석에서는 표상체에서 대상이 나타낸 외시적 의미를 찾아낸다. 해석체에서는 정신적이고 내면적인 의미들을 찾아 분석한다. 소쉬르가

언어적 측면에서 기호 체계를 이원화⁷³⁾했다면 퍼스는 비언어적 의사소통 체계⁷⁴⁾ 즉 이미지 영역을 도상적인 범주 내에서 정의한 최초의 기호학자다. 소쉬르의 기호의 개념은 퍼스의 용어로는 해석체(interpretants)에 해당한다. 퍼스는 기호 자체가 무엇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해석자로 하여금 무엇을 찾아내도록 지시할 뿐이라고 정의한다.⁷⁵⁾

퍼스는 삼분법으로 철학과 논리적인 바탕에서 소통과 해석의 관념적인 영역까지 확장시켰다. 퍼스는 시각예술인 미술을 기호와 의미 작용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으로 보았으며, 세미오시스 과정을 통한 인식을 사고와 생각의 바탕이라고 했다. 에코는 기호 체계가 처음 도입된 언어 연구와 동일한 방식일 필요가 없다고 하였는데(에코, *ibid.*) 이에 따라 이미지를 다루는 기호학에서는 분절(articulation)이 하나의 중요한 논의거리가 되었다⁷⁶⁾. 사실 처음 시작된 기호학의 출발점은 각각의 이론과 체계를 갖춘 독자성을 드러냈으나 점차 보완되고 발전된 기호학 이론은 유사성을 가지고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하였다. 기호학자들은 표현된 형태는 달라도 그 근본적인 구조나 의미의 생성 과정은 동일하다고 가정했다⁷⁷⁾. 기호 작용에 대한 많은 연구는 관념이나 정서에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은 우리가 그림책이라는 매체를 분석하면서 얻으려고 하는 교감, 공감, 감동의 영역이

73) 기호는 물리적 형태와 정신적 개념이 결합되어 구성된 것으로 이 두개의 결합 관계에서 기호가 생성되었는데, 정신적인 개념은 외부 현실에 대한 기호 사용자의 이해 혹은 인식과 관련된다(Saussure, 1931/1967). 이는 소쉬르의 기호 구성 작동소(operant)와 효용(utility)을 바탕으로 하는 이원적 구성의 특별한 사례의 하나로 볼 수 있다(Krampen, 1979). 그러나 소쉬르의 기호 구성 형식을 삼원적으로 볼 여지도 있다(Stetter, 1979). 그 이유는 언어 기호는 소리 상의 매개에 의해 개념을 갖는데, 기표에 기의 개념을 매개함으로써 매개 그 자체는 퍼스 기호학의 의미에서 삼차성의 범주를 구성하는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이렇게 해석한다면 소쉬르의 이원적 기호 구성은 기표, 기의, 그리고 기의의 관계로 구성되는 삼원적 구성으로 환원될 수도 있는 것이다(조창연, 『기호학과 뇌인지과학의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북스, 2014, pp.55-56).

74) 박영원, 『광고디자인 기호학』, 범우사, 2003, p.228.

75) 유영옥, 『상징과 기호의 사회과학』, 홍익재, 2007, pp.113-115.

76) 허예름, 「조형 기호학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5, p.4

77) 홍승연, 「그림책 〈지각대장 존〉의 의미구조에 관한 기호학적 분석」, 기초조형학연구, 2013, p.370.

기도 하다. 대중매체의 하나로서 오래도록 교육과 정서, 지식을 대중과 교류하며 존재해 온 그림책의 역할을 재조명하며 그 속에 숨겨진 내적 표상들을 기호학의 상징체계들로 분류하고 분석하는, 의미 있는 과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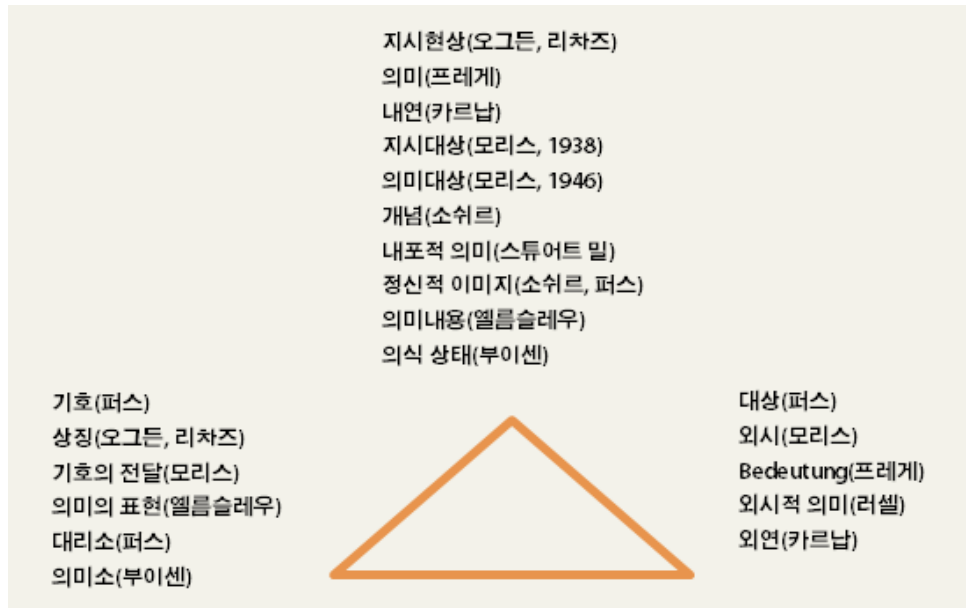


그림 10. 움베르토 에코의 삼분법⁷⁸⁾

1.2 그림책의 기호학적 분석 방법 제안

1.2.1 그림책의 7유형 분석 방법 도출

그림책의 분류 체계는 안내를 도와주는 지도와 같은 역할을 한다. 수많은 그림책을 구분하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기준인 동시에, 서가의 배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공간에서 책을 찾는 동선으로 이끄는 물리적 기준이 된다. 우리나라의 그림책의 분류 체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먼저 국내 공공도서관에서는 ‘한국십진분류법’ (KDC: Korean Decimal

78) 움베르토 에코, 김광현(역), 『기호: 개념과 역사』, 에코라이브러리, 열린책들, 2009, p.44.

Classification)에 바탕을 두고 그림책을 분류하고, 사립 어린이 도서관에서는 자체적인 분류 체계를 사용하여 배가방식을 활용한다. 그림책을 KDC를 따라 분류하는 데 어려움을 토로하는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어 개별 도서관에서는 통일되지 않는 자체적인 기준의 별치기호나 레이블을 사용하여 보완하고 있다. 이렇게 그림책에 대한 표준화된 분류 체계에 대한 통일된 명확한 기준이 모호해 도서관 실무자들과 이용객들이 많은 어려움과 혼선을 겪고 있다⁷⁹⁾.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고자 KDC에 대한 현황 조사, 개선 방안, 설문 조사, 비교·분석, 인터넷 서점의 분류 체계 현황 등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⁸⁰⁾. 본 논문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에 하나의 대안으로서의 기호학에서 연구된 분류 체계를 접목하여 그림책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해 보고자 한다. 그림책은 각종 출판물의 형태로 다수의 독자에게 발매, 배포되는 출판 매체다. 전통적인 종이책 출판에서 전자책(e-Book) 형태로 출판물의 형태가 바뀌고 있다. 인터넷의 대중화와 확산은 컴퓨터를 통한 매체의 디지털화로 매체의 통합현상이 가속되고 있다. 이러한 영역 간의 상호 교류와 장르에 대한 탈경계화 현상은 현재 사회 전반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그림책은 특히 영화라는 장르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신화학자 정재서는 21세기를 이야기, 상상력, 이미지의 시대로 압축해 표현한다.⁸¹⁾ 수많은 상징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어우러져, 한 묶음이 되어 창조된, 그 결과물로서 한 권의 책으로, 한 편의 영화로 완성된다. 낱장들의 묶음, 각 프레임 frame의 조합으로 이뤄진 그림책과 수많은 신scene의 조합으로 이뤄진 영화의 공통점은 이야기와 상상력과 이미지를 담고 있는 복합적인 예술 매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현대 그림책의 걸작으로 꼽히는 모리스 샌닥(Maurice Sendak)의 1963년 그림책 『괴물들이 사는 나라⁸²⁾』는 전 세계적

79) 문지현, 「어린이 도서 분류표 개발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8, p.1

80) 임기수, 「어린이도서관의 그림책 분류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2, p.4.

81) 김영옥, 『그림책 영화를 만나다』, 교보문고, 2010, p.5.

으로 약 200만부가 팔렸다. 그 후 1974년에 단편 애니메이션으로, 1980년에는 오페라로 공연⁸³⁾되었고 2009년에는 판타지영화로 제작되었다. 레이몬드 브릭스의 『눈사람The Snowman⁸⁴⁾』, 에릭 칼의 『배고픈 애벌레 The Very Hungry Caterpillar⁸⁵⁾』, 베아트릭스 포터의 『피터 래빗⁸⁶⁾』, 윌리엄 스타이그 『슈렉Shrek⁸⁷⁾』, 백희나의 2004년 『구름빵⁸⁸⁾』들은 모두 그림책에서 다른 매체로 전환되어 뮤지컬과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졌다. 『북극으로 가는 기차』⁸⁹⁾는 ‘폴라 익스프레스 (The Polar Express, 2004)’로 영화화되었고, 『고 녀석 맛있겠다』⁹⁰⁾는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 (Cloudy With A Chance Of Meatballs, 2009)’으로 명칭이 바뀌어 영화화되고, 『개미나라에 간 루카스』⁹¹⁾는 ‘앤티 불리(The Ant Bully, 2006)’, 『달빛 왕자와 가디언즈의 탄생』⁹²⁾은 ‘가디언즈(Rise of the Guardians, 2012)’라는 이름으로 각각 영화로 제작되었다. 이 같이 다양하고 훌륭한 그림책들은 영화로의 매체변환에도 별다른 어려움이 없음을 보여준다. 이 밖에도 언급하지 않은 많은 그림책이 다양한 영역과 분야에 영감을 주며, 다른 장르의 매체로 전환되고 있다. 그림책은 특히 시네마 제작자들에게 직접적이고 구체화된 영화의 에스키스와 같은 역할을 한다. 시각언어를 통하여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야기가 진행되는 그림책의 기본 구조는 영화와 매우 유사하기 때문이다⁹³⁾. 영화를 하나의 커다란 통합체적 기호로 보고 분류 체계를 만들었던

82) 모리스 샌닥, 『괴물들이 사는 나라』, 시공주니어, 2002.

83) https://ko.wikipedia.org/wiki/%EA%B4%B4%EB%AC%BC%EB%93%A4%EC%9D%B4_%EC%82%AC%EB%8A%94_%EB%82%98%EB%9D%BC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84) 레이먼드 브릭스, 『눈사람 아저씨』, 마루별, 2000.

85) 에릭 칼, 『배고픈 애벌레』, 더큰, 2007.

86) 베아트릭스 포터, 『피터래빗이야기』, 더클래식, 2014.

87) 윌리엄 스타이그, 『슈렉』 비룡소, 2001.

88) 백희나, 『구름빵』, 한솔수북, 2004.

89) 크리스 반 알스버그(저), 신지식(역), 『북극으로 가는 기차』, 한국프뢰벨, 2003

90) 미야니시 타츠야, 『고 녀석 맛있겠다』, 달리, 2017.

91) 존 니클, 조세현(역), 『개미나라에 간 루카스』, 비룡소, 2006.

92) 윌리엄 조이스(저), 노은정(역), 『달빛 왕자와 가디언즈의 탄생』, 비룡소, 2012.

93) 김영옥, 「그림책의 영상 매체 변환과 공간의 서사-그림책 『폴라익스프레스』와 영화

크리스티앙 메츠(Christian Metz)의 기호학적 연구를 대입하여 그림책의 분류 체계를 접목하고자 한다. 그는 ‘영화를 만든다는 것’을 ‘현실 조각’을 재생산하여 배열하는 방식으로 보았다. 또한 하나의 통일되고 일관성 있는 이야기로 한편의 영화를 만드는 것을 ‘통합체’라는 개념으로 접근한다. 그림책은 영화보다는 단순한 구조지만 영화와 같이, 복합적인 요소로서 이루어진 결과물이다. 영화가 움직이는 영상, 이미지, 스토리, 음악, 배우 등 수 많은 기호로 이루어진 종합예술인 것과 같이 그림책도 그 안에 글과 그림, 서사가 담겨 있는 복합적인 예술 작업이다. 그림책과 영화가 가지는 밀접성과 공통된 점을 고려하여 영화를 분석하는 분석틀을 응용하여 그림책을 분석함에 있어, 먼저 크리스티앙 메츠와 그의 기호이론을 알아보하고자 한다. 그는 영화기호학의 창시자이자 권위자로서 영화만의 고유한 의미 작용을 찾아내고자 노력한 기호학자다. 그의 영화기호이론을 기초로 그림책 분류 체계에 대한 기호학적 분석 방법을 연구하였다. 오늘날 대중문화에서는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미디어의 융합현상이 나타나, 매체 간의 고유경계선이 무너지게 되고 개별 매체의 독립성과 독자성이 약화되는 동시에, 서로 다른 매체 간의 장점을 활용함으로써 시너지효과가 창출되고 있다. 인터넷 혁명 시대에 인쇄 매체의 쇠퇴를 예견하는 주장도 있지만, 오히려 인터넷으로 인하여 출판 산업은 온라인, 오프라인 등으로 그 영역이 확대되었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⁹⁴⁾. 크리스티앙 메츠는 독립영화나 예술영화 같은 현대영화의 등장을 둘러싼 치열한 비평과 다양한 정의들이 혼재하던 1960년대 초반 기호학적인 관점을 처음으로 도입했다. 영화의 독창성이나 창조성이라는 다소 논리적으로 규정하기 힘든 주관적 평가에 기인한 작품성에 관하여 체계적인 방법론을 제시한 학자다. 지금의 현대 그림책 시장 역시 과거의

〈폴라익스프레스〉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스토리&이미지텔링 연구소 제2호, 2011, p.12.

94) 강미정, 「출판물에 나타난 크로스오버 디자인에 관한 연구」,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 연구 제27호, 2008, p.74.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그림책에 대한 통념을 깨고, 그림책 작가의 개성이 두드러진 독창적이고 때론 난해하기까지 한 다양하고 혼재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영화라는 장르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영화가 가진 속성과 유사한 공통점을 가진 현대 그림책들을 크리스티앙 메츠의 이론을 접목한 분류 체계로 분석하고자 한다. 영화 기호학이라는 분석이론을 그림책의 분류 체계에 응용하여 새롭게 분석 도구를 만들고자 하는 시도는 매우 의미 있는 도전이자 실험적인 연구가 될 것이다.

1.2.2 이분법적 의미 작용 분석 방법 도출

기호학의 두 가지 흐름은 이분법적인 의미 작용 방법과 삼분법적인 의미 작용 방법으로 나누어지는데, 소쉬르는 기호를 외부 세계에서 공급하는 기표(signifiant), 마음이라는 내부 세계에서 공급하는 기의(signifié), 그리고 기표와 기의가 합성되어 표상의 세계로 편입되는 기호로 정의하였다. 바르트도 기호를 기표, 기의 그리고 기호 자체를 기본 요소로 보았다. 이렇게 기호의 구조를 기표와 기의로 나눌 때, 기표(signifier)는 기호의 부분이며 운반체로서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려면 의미의 운반체로서 매개물로서의 역할을 하며, 기의와 기표가 결합되었을 때 그것을 계기로 해석자의 마음에서 기의의 내용을 찾게 되고 비로소 하나의 기호가 완성된다. 바르트가 정의한 기의(signified)는 정신적 ‘의미’ 추상적 관념으로서 기호가 대표하고 있는 어떤 대상체에 대한 경험, 진술된 것들을 포함한 것으로서, 객관적이고 물질적인 기표가 인식되면 그것에 대응하여 주관적인 기의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기호 작용은 인간의 정신 과정으로서 의미 작용(signification)과 커뮤니케이션으로 나눌 수 있다.⁹⁵⁾ 커뮤니케이션이 제한된 목적만을 수행한다면 기호의 의미 작용은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다중적 의미로서 복합적인

95) 유영옥, 『상징과 기호의 사회과학』, U. Eco, 1976, T.A. Sebeok, 1991, 홍익재, 2007, p.116.

무한한 해석을 가능케 한다. 에코는 의미 작용을 사람에게서만 일어나는 심층의 인식이며, 기호와 인간 중심적인 정신적 개념의 작용이므로 커뮤니케이션보다 더 높은 수준의 기호학적 상호 작용으로 평가한다.⁹⁶⁾ 이러한 모든 기호체를 조직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요건이 계열체 기호들과 통합체 기호들이다. 통합체와 계열체라는 기호학적 도구들은 구조적인 배열과 관계를 통해 기호 내용인 의미 작용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⁹⁷⁾ 통합체의 핵심은 조합의 원리다. 독자들이 독해하는 능력은 그 계열체들의 조합의 원리인 여러 유형의 기호를 이해하며, 여러 유형의 기호가 엮인 방식의 의미 작용을 해독하는 것이다⁹⁸⁾. 통합체는 상호 작용하는 기표들의 순서적인 결합으로서, 텍스트 안에서 전체적으로 의미를 형성하는 것을 소쉬르는 ‘연쇄’라고 불렀다. 그런 결합들은 명시적·비명시적으로 통합체적 관습과 규칙의 틀 안에서 만들어진다. 소쉬르는 “쌍방 간의 상호 의존적 관계에서는 언제나 작은 단위로 이루어진 더 큰 단위들이 있다”고 말했다. 통합체는 다른 통합체를 포함할 수도 있다. 통합체는 계열체 집합에서 온 기표들의 연결에 의해 만들어진다. 이 계열체 집합들은 관습적으로 적절하다고 여겨지거나, 문법 등의 어떤 규칙 체계들의 요구에 기초해 선택된다. 통합체는 주로 순차적인 것으로 정의된다. 여기서 순차적이란, 음악이나 대화처럼 시간적 순서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통합체는 공간적 관계를 표현하기도 한다. 공간의 통합체적 관계는 그림, 사진에서 볼 수 있으며, 영화, 텔레비전, 인터넷과 같은 기호 체계들은 공간과 시간의 통합체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⁹⁹⁾ 1960년대 구조주의는 기호학에서 언어의 텍스트를 체계를 연구하는

96) 김경용, 『기호학이란 무엇인가』, 민음사, 1994, p.128.

97) 백승국, 「소쉬르 기호학 이론과 게임콘텐츠 연구」, 기호학연구. 제21집, 2007, p.306(백승국은 기표, 기의, 계열체, 통합체, 의미 작용 등을 소쉬르의 기호학의 이론과 개념들로 보았다).

98) 박인하, 「만화기호의 통합체적 구현 양상 연구」, 광운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3, pp.82-83.

99) 김영순, 「소쉬르 기호학과 문화 체계」, 인하대학교 학술기획, 기호와 문화, 2007.

<https://dspace.inha.ac.kr/bitstream/10505/414/1/%EC%86%8C%EC%89%AC%EB%A5%B4%20%EA%>

것으로 출발하였으나 그 영역이 넓어져 사회, 문화, 예술, 광고, 이미지 등 전 분야로 확장되었다. 이미지도 언어처럼 독자적인 체계와 표현방식을 가질 것이라는 전제로 이미지 기호들의 원리와 의미 작용을 분석하고 탐구하기 시작하였다. 어떤 텍스트이든 모든 구조는 통합체적이고 계열체적인 측면을 갖는다. 텍스트는 구조주의 기호학적 관점에서 보면 언어 계열체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통합체다. 이 텍스트 안에서 통합체와 계열체는 서로 교차하면서 의미를 생성한다(이상우, 이기한, 김순식, 2005).¹⁰⁰⁾ 계열체는 어떤 공통성을 지닌 기호의 한 벌(a set of signs)을 뜻한다¹⁰¹⁾. 두 가지 요소 의한 대비, 대립관계를 이항대립(binary opposition)이라 하는데, 1950~60년대 구조주의 중요한 계열체 이론이었던 이항대립은 이중 구조, 이분법, 대립성, 양극성, 반대명제 등으로 표현된다. 인간이 상징적 의미를 구축하는 논리적 도구로서 구조를 형성하는 기본단위가 된다. 이항대립은 플라톤의 사상에서도 나타나는데 이데아와 현상, 신과 인간, 흑과 백, 좌우 대칭 등 사물을 규정하는 사고이다. 구조주의 기호학자들은 이 같이 인간의 모든 조직 체계를 가장 근본적인 형태로 환원하여 대상을 인식하려 했다. 칸트(Kant)는 논리의 구분방법으로서의 두 개의 시각으로부터 두 개의 구분지로 나누는 것이 이항대립(이중구조)이라고 말한다. 동양에서도 음과 양 같은 이항대립은 이원론을 바탕을 둔 구조체계이다.¹⁰²⁾ 통합체 분석은 이항대립적 요소를 찾는 것이다. 이항대립적 구조는 A와 B, 두 개념이 대립되는 요소라는 것을 전제로, 대비하면서 설명하는 방식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통합체적이고 계열체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분석 도구를 만들어 활용한다.

[B8%B0%ED%98%B8%ED%95%99%EA%B3%BC%20%EB%AC%B8%ED%99%94%20%EC%B2%B4%EA%B3%84.hwp](#), 2019.3.8

100) 신혜선, 상계서, p.29.

101) 김경용, 『기호학이란 무엇인가』, 민음사, 1994, p.95.

102) 김혜리, 「동화의 이항대립과 화해의 양상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6, pp.1-4.

1.2.3 삼분법적 의미 작용 분석

퍼스는 삼분법이라는 기존의 기호 단계와 차별화된 방법으로 기호 체계들을 현상학적이고 논리적이며 일반적인 범주로 연구하려 했다. 퍼스는 기호의 범주를 삼원적 구조로 보아 모든 기호 분류의 3단계로 나누어 연구했다(그림 11). 소쉬르는 기호를 표상하는 지표와 기호의 의미를 내포하는 기의를 이원적으로 구조화하고, 이들 사이의 규칙적이고 체계적인 관계에서 그 자체로 충만한 이원적 모델을 가진다고 보았지만 퍼스는 기호가 기호(표상체)와 대상(대상체), 해석 내용(해석체)의 삼원적 관계를 가진다고 보았다.¹⁰³⁾ 퍼스는 기호의 범주를 삼원적 구조로 보아 표상체(Representamen), 대상체(Object), 해석체(Interpretant)의 세 유형을 기호의 현상 구성으로 들고 각 기호의 범주를 계속 세부적으로 나누었다. 모든 기호 분류의 전제로 일차성(Firstness), 이차성(Secondness), 삼차성(Thirdness) 단계로 나눈다.

삼분법 기호 관계는 비교적 복잡한 분류 체계를 나타내지만 세 가지 기본적인 존재 범주가 공통된 삼분법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기호의 3요소에 배당되어 재편성된다는 사실에 기초한다.¹⁰⁴⁾ 즉 퍼스는 해석이 계속해서 영향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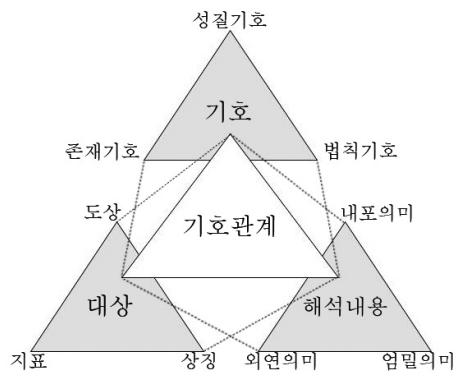


그림 11. 퍼스의 유기적 삼분법

103) 이종호, 「글 없는 그림책의 기호학적 의미와 구조 분석」,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1, p.13.

미치는 유기체적인 관점과 접근으로 보았다.

2. 그림책의 기호학적 분석 방법

‘그림책의 7유형 분석’은 현재 그림책 분야의 불완전한 분류 체계에 대한 다양한 연구의 하나로서 그림책 매체의 영역을 확장하여 타 장르의 기호학 연구를 활용해 보았다. 그림책의 7유형 분석은 그림책의 내용 안에서 구성된 전체적인 서사 구조에 초점을 두고 분석한 그림책의 기호학적 분류 체계다. 그림책을 기호학적으로 분석하는 첫 단계로 그림책의 7유형 분석을 통해 그림책의 분류 체계를 확인한다. 그림책의 7유형별 특징들을 구분하는 과정에서 그림책의 독자나 제작자는 그림책의 구조나 형식에 있어서 또 다른 관점으로 조망하여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두 번째 단계로 ‘이분법적 의미 작용 분석’을 한다. 2000년 이후 국내에서 그림책의 교육에 관한 연구는 활발하지만 대체로 그림책의 문자 텍스트에 초점을 두었다. 이분법적 의미 작용 분석도 그러한 맥락에서 그림책 언어의 구조와 분할에 관한 연구이다. 전체적인 맥락, 기승전결, 순차적인 진행 등을 시퀀스로 구분하는 통합체 분석과 이항대립적 요소를 찾는 계열체 분석을 거쳐 한 그림책에 보이는 언어적 체계를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은 ‘삼분법적 의미 작용 분석’으로 각 페이지에 보이는 세부적 이미지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삼분법적 의미 작용 분석의 연구는 그림책의 핵심인 그림과 글의 관계에 대한 미학적 또는 기호학적 연구로서 문자 텍스트와 그림 텍스트가 결합하여 생성된 하나의 통합 텍스트로서 단계적이고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이다.

104) 전성희, 「기호학을 통한 미술 감상 지도 방안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1, p.24.



그림 12. 그림책의 기호학적 분석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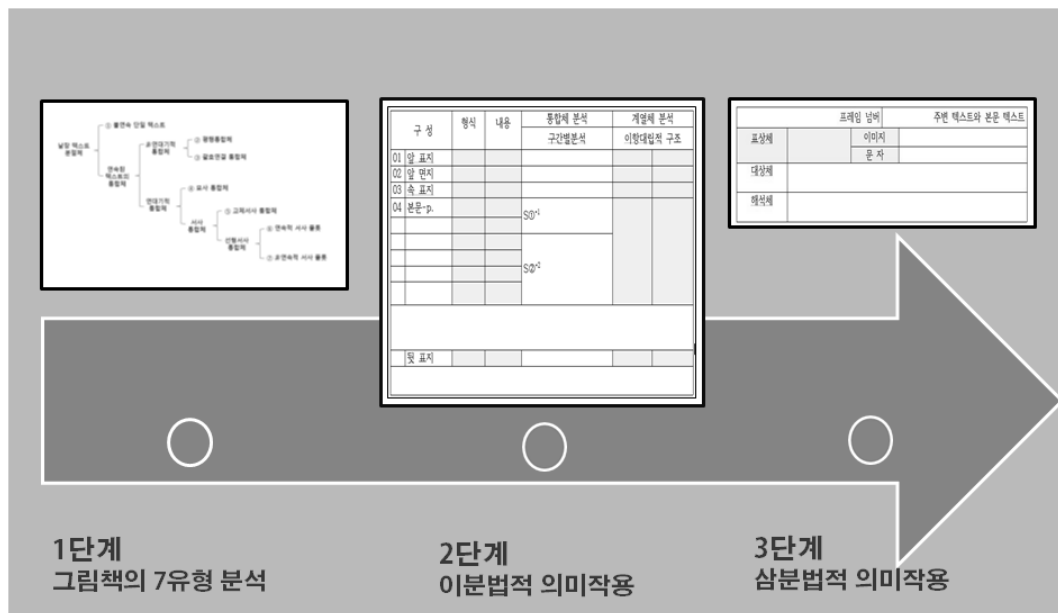


그림 13. 그림책의 3단계 기호학적 분석 과정

표 6. 그림책에 대한 기호학적 분석의 단계별 특징

그림책의 7유형	이분법적 의미 작용 분석		삼분법적 의미 작용 분석	
분류 체계 연구	그림책 전체 구조 분석		페이지별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연속 단일 텍스트 • 평행통합체 • 괄호연결통합체 • 묘사통합체 • 교체서사 통합체 • 연속적 서사플롯 • 비연속적 서사플롯 	통합체와 계열체 분석		표상체, 대상체, 해석체	
	언어적 분석체계		비언어적 분석체계	
	통합적, 구조적 분석		구체적, 세부적 분석	
	통합체	그림책의 7유형	표상체	즉각적으로 지각되는 외형적 모습
	계열체	이항대립적 요소	대상체	기호가 나타내고 있는 것, 실제로 일어난 사건과 사물로서 습득된 사고의 개념, 지표적인 것
			해석체	표상체와 대상체 분석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며 심층적인 분석의 마지막 단계

기호의 의미 작용은 기호가 해석자에게 일으키는 인식 효과이며, 그 효과란 해석자의 마음에 새로 떠오른 어떤 것으로, 그 어떤 것이 바로 기호이다. 퍼스에 의하면 사고 하나하나가 기호이며 이 무한정한 기호 작용을 자아의 다른 위상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대화적인 것으로 보았다. 에코는 기호가 의미 작용을 일으키는 매체로서 인간의 정신적인 과정이라는 근본적인 관점에 바탕을 두며, 사람을 상대로 일어나는 고등한 기호학적 상호 작용이라 하였다.¹⁰⁵⁾ 기호는 의사소통의 가장 작은 단위이며, 문화예술은 의사소통을 전제로 생산된다. 따라서 기호는 문화의 생산과 소비에 걸쳐 관계를 하고 있다. ‘기호 생산자’는 기호를 만들어내고, ‘기호 수신자’는 기호를 받아들이

105) 김정용, 『기호학이란 무엇인가』, 민음사, 1994, p.128.

고 소비한다. 기호 생산자가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낸 인공물 중의 하나인 그림책 텍스트를 더욱 효과적이고 정밀하게 분석하고자 언어적, 비언어적인 의미 작용 분석을 복합적이고 단계적으로 분석하고자 이러한 3단계 방법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분석 방법은 그림책의 분류 체계를 유형별로 파악하게 하고, 통합적이고 전체적인 구조를 구분하여, 세부적으로도 깊이 있게 분석하게 할 수 있다. 또한 독자나 제작자에게는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그림책을 분석할 수 있는 안내자 역할을 한다.

2.1 그림책의 7유형 분석

크리스티앙 메츠의 이론을 응용하여 그림책을 기호학적 차원에서 하나의 전체적인 ‘통합체적 기호’로 보고 연구하고자 한다. 또한 구조주의의 맥락을 둔 그의 언어적 기호 체계연구에 맥락을 둔 서사적 분류 방법을 이용한다. 그림책도 영화와 마찬가지로 계열체 보다는 통합체 쪽에 가까운 텍스트이다. 그림책 안에서 낱장 계열체가 자유로운 창작이라면, 그림책 전체에서 이야기(주제, 메시지, 신화 등)하고자 하는 통합체가 우선 순위가 될 때, 그 낱장 안에서의 독립적인 이미지와 문장들이 연계성을 가지며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책을 분류할 때 영화와 그림책이 교집합적 요소들을 가지고 있더라도 각각의 독자적인 매체 특성을 고려한다면 전적으로 같은 틀로 분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리하여 그림책에 알맞은 ‘분류틀’로 수정·보완한다. 영화기호학은 통합체에 중심을 둔 이론으로서 영화에서 부분적인 요소인 계열체보다도 전체를 바라보는 통합체 연구를 더욱 큰 비중으로 삼았다. 각각의 이미지가 자유로운 창작이라면 이 이미지들을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통합되게 하는 것이 영화기호학 차원에서의 핵심이다¹⁰⁶). 그는 한 편의 영화를 자율 분절체들이 속한 ‘최대 통합체’ 즉

‘이미지의 거대 통합체 유형(The Grand Syntagmatique)’¹⁰⁷⁾으로 분류한다.
 크리스티앙 메츠는 본인이 만든 이러한 구조에 대하여 모든 영화가 본질적

106) 크리스티앙 메츠, 『영화의 의미 작용에 관한 에세이1』, 문학과 지성사, 2011, pp.124-126 : 자율 분절체를 분류할 때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 찍는 가장 작은 단위인 ‘숏’ [숏(shot), = 컷(cut), 한 번의 연속 촬영으로 찍은 장면을 이르는 말, 표준국어대사전]을 기본으로 삼고 ‘자율 숏’이라 명명한다. 자율 분절체를 8개의 유형으로 구분함에 있어, 첫 번째로 ‘자율 숏’ 그리고 통합체를 7개로 다시 세분한다. 이 일곱 개의 분절체는 여러 개의 숏으로 구성되어 있는, 최소한 한 개의 분절체 이상을 포함하고 있는 통합체들이다. 자율 숏은 서사플롯의 한 개의 에피소드에 해당하는 단일 숏이고 최소의 단위이기엔 영화라 말할 수 없으므로 통합체에서 제외된다. 여러 개의 숏으로 구성된 자율분절체인 통합체는 세부 기준에 따라 비연대기적 통합체와 연대기적 통합체로 다시 분리하였다. 비연대기적 통합체의 경우 이미지들로 묘사하는 사건들의 시간관계가 영화에서 확실하지 않다. 반면 연대기적 통합체의 경우 사건들의 시간관계가 명시된다. 비연대기적 통합체를 두 가지 유형, 평행통합체와 괄호연결통합체로 구분한다. 평행통합체는 공간적이거나 시간적인 특정관계를 따르지 않고 상징적 가치에 따라, 두 개 혹은 여러 개의 소재를 교차적으로 배열하는 것이다. 괄호연결통합체는 사건들을 재현하는 짧은 장면들을 의도적으로 서로 시간관계가 없는 것처럼 배열하는 방법으로서, 영화 제작자가 시각적 표현을 통해 암시하거나, 관객이 인지하게 한 계획적 요소들이다. 의도된 암시, 내재적 정의 같은 이러한 구조가 서로 묶는 사건들 사이에는 괄호로 묶는 단어들 사이에서와 같은 관계를 상정한다. 비연대기적 통합체들에서 평행통합체와 괄호연결통합체로 구분하는 요소는 계열별로 서로 섞인 이미지들이 체계적인 교차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분류한다. 연대기적 통합체는 연속적인 이미지들이 제시하는 사건들 사이에 시간관계를 외연차원에서 명확하게 제시한다. 시간관계란 심층적이거나 상징적 시간관계와 더불어 플롯의 지시하는 동시성과 시간성까지도 포함한다. 묘사통합체는 이미지에 연속적으로 제시된 모든 소재 사이의 관계가 동시성을 띠고 있는 유형이다. 전후 상관관계가 어떤 디제시스적인 [디제시스(diegesis), 영화에서 스토리가 전개되는 영화 속 시공간 또는 가상의 인물들이 살고 있는 허구화된 세계를 이르는 말, 출처 : 우리말샘] 상관관계와도 연관이 없는 유일한 경우이다. 동일한 대상이 묘사적이 될 수도 있고 서사적으로도 될 수 있는데 이 묘사통합체에서 말하고자 하는 묘사는 영화에서의 담화의 한 형태로서 공간적인 공전의 관계만을 부각시키는 경우이다. 연대기적 통합체에서 묘사통합체만이 서사통합체가 아니다. 나머지는 모두 서사통합체인데 이러한 서사통합체는 시간관계가 동시성뿐만 아니라 전후 상관관계 속에 있는 통합체를 말한다. 서로 구별되는 여러 개의 시간적 전후 상관관계가 얽혀 있는 교체서사 통합체이고 이미지 전체를 아우르는 한 가지의 전후 상관관계로 되어 있는 선형linéaire서사통합체다. 교체서사 통합체는 두 개 이상의 계열들이 사건적으로 연결되면서 그 각각의 계열 내부에서는 시간관계가 전후 연계를 갖는다. 영화 전문가들에게 ‘싱크로니즘’, ‘평행편집’, ‘교차편집’ 등으로 불린다. 선형서사통합체는 이미지에 보이는 모든 행위를 한 가지 전후 상관관계로 연결하며, 두 가지 범주로 구분한다. 디제시스 단절이 없는, 연극이나 인생의 한 장면 같 이 전후 상관관계가 연결되는 시공간적인 집합을 신scene이라고 한다. 이러한 신과 반대 지점에 선형서사통합체는 불연속성을 가지는 시퀀스라고 지칭할 수 있다. 전후 상관관계는 있으나 불연속적인 시퀀스는 에피소드 시퀀스와 일반시퀀스로 다시 구별된다. 두 가지 시퀀스 [시퀀스란 용어는 영화 분야에서 연극의 한 장scene과 구별되는 영화적인 고유한 구조를 지칭하는 데 사용하다가 이후 한 단위로 통일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자율분절체(‘자율 숏’은 제외)를 지칭한다. p.161]가 불연속적인 것을 전체로 에피소드 시퀀스는 압축적인 이미지로 상징적이거나 암시적으로 요약해 나타난다면, 일반시퀀스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건너뛰는 순간 없이 그 이미지를 재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8개의 거대통합체를 요약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107) 상계서, p.1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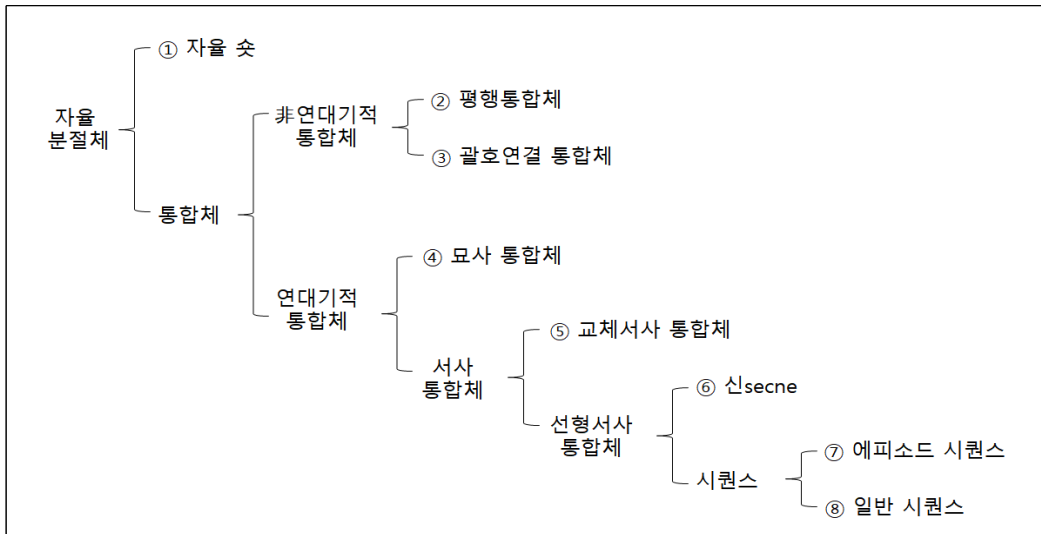


그림 14. 크리스티앙 메츠의 영화 이미지의 거대 통합체 유형¹⁰⁸⁾

으로 시퀀스 8가지 유형으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며 일정한 범주, 일정한 시기에 해당하는 영화적 특성일 수 있다는 열린 자세를 취하였다.

‘현대적인’ 영화들은 이러한 범주를 넘어서 유연하게 변형되고 새롭게 창조되어 더 풍요롭고 다채롭게 발전할 것이고, 모든 구조는 역사 속에 위치 한다는 생각으로 안내하는 것이라고 말한다.¹⁰⁹⁾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분석 도구는 ‘그림책의 7유형 분석’이다. 크리스티앙 메츠의 기호이론을 응용하여 연구된 분석체계로서 7개 그림책 유형으로 분류하여 연구하였다. 구조주의의 맥락을 둔 이 분석체계는 문학적인 관점에서의 그림책을 바라보는 시점으로서 서사적인 개념에 중심을 두고 있다.

‘그림책의 7유형 분석(그림 15)’은 ‘날장의 텍스트 분절체’가 기본 단위로 시작한다. ‘날장텍스트의 분절체’는 그림책의 기본 단위이지만 그림책이 되기에는 미흡한 최소 단위이기 때문에 그림책을 분류하는 체계의 출

108) 상계서, p.153.

109) 크리스티앙 메츠, 『영화의 의미 작용에 관한 에세이 2』, 문학과 지성사, 2011, p.2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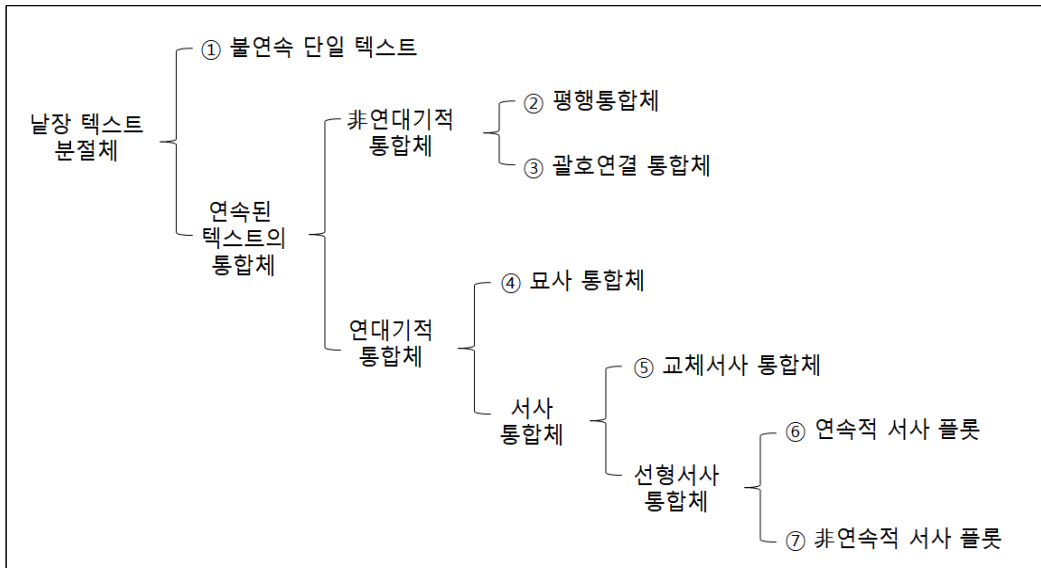


그림 15. 그림책의 7유형 분석

발점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날장 텍스트 분절체들이 통일성과 묶음의 형태를 가지지 못했을 때 첫 번째 유형인 ‘불연속 단일 텍스트’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첫 번째 불연속단일 텍스트는 포스터나 엽서, 카드, 리플릿 등의 한 장으로 되어 있으며 연속성이 없는 텍스트 등이 해당된다. ‘연속된 텍스트의 통합체’로서 통일성이나 묶음의 형태로 존재하는 그림책은 크게 비연대기적 통합체와 연대기적 통합체로 구분한다. 연대기적 통합체는 시간의 차이를 따라 배열되는 그림책의 유형이며 비연대기적 통합체는 순차적인 일정이나 사건,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유형의 그림책들이다. 비연대기적 통합체에서 다시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두 번째 유형인 평행통합체와 세 번째 유형 괄호연결통합체로 나누어진다. 크리스티앙 메츠는 계열별로 서로 반복적이고 섞인 이미지들의 체계적인 교차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평행통합체와 괄호연결통합체로 구분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그림책의 7유형 분석’에서는 이미지에 국한하지 않고 하나의 기호체로서의 내용과 이미지가

지 포함한 교차 여부로 판단한다. 두 번째, 평행통합체의 그림책 유형은 2013년 BIB 황금사과상 수상작인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¹¹⁰⁾이다. 색깔이 다른 두 고양이를 대비하여 다음 장으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사건이나 시간의 흐름이 배제된 상태에서, 매장 반복적이고 평행적으로 두 고양이를 비교하는 교차배열이 이루어지고 있다.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가 평행통합체로서 시각적 이미지의 교차가 가시적으로 드러났다면, 다비드 칼리(David Cali)의 그림책 『적』¹¹¹⁾에서는 문자를 통해서만 의미적 교차를 찾을 수 있다. 시각적으로는 전혀 구별되지 않는 두 병사(아군과 적군)의 교차는, 더 강력한 역설적인 메시지를 부여한다. 이렇게 적과 아군이 식별되지 않은 대비를 통하여 전쟁의 본질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세 번째, 괄호연결통합체는 반복되고 교차되는 이미지가 없는 유형이다. 이보나 호미엘레프스카의 『두 사람』¹¹²⁾은 괄호연결통합체로서 나와 너, 타인과 타인의 다름과 차이를 상징적이고 다양한 소재(열쇠와 자물쇠, 낮과 밤, 섬 등)로 시공간적으로 구애받지 않고 반복과 교차 없이 배열된 그림책이다.

싸움에 대한 담론을 긍정적이고 재치 있게 묘사한 『싸움에 관한 위대한 책』¹¹³⁾, 물속 생물들을 독특한 색감과 무늬로 재창조한 『물 속 생물들』¹¹⁴⁾, 숨은 동물들을 찾고 관찰력을 키우는 『깃털과 단어』¹¹⁵⁾가 괄호연결통합체 유형의 그림책들이다.

연결 통합체는 교육적 내용, 과학적 지식 등 정보나 지식을 전달하려는 학습적 목적으로 제작된 그림책의 형태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다. 크리스티앙 메츠가 말하는 연대기적 통합체는 연속적인 이미지들이 제시하는 사건들 사이에 시간관계를 외연 차원에서 명확하게 제시하며, 여기서 시간관계란

110) 기쿠치 치키,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 시공주니어, 2017.

111) 다비드 칼리(저), 세르주 블로슈(그림), 『적』, 문학동네어린이, 2008.

112) 이보나 호미엘레프스카, 『두 사람』, 사계절, 2008.

113) 다비드 칼리(저), 세르주 블로슈(그림), 『싸움에 관한 위대한 책』, 문학동네어린이, 2014.

114) 람바로스 자, 『물 속 생물들』, 보림, 2015.

115) 비르지니아 아라가 드 말레르브, 『깃털과 단어』, 보림, 2014.

심층적이거나 상징적 시간관계와 더불어 플롯의 지시하는 시간성과 동시성까지도 포함된다고 말한다. 이러한 연대기적 통합체에서 묘사통합체만이 서사통합체가 아니다. 묘사통합체는 전후 연결 과정과 가상적인 어떠한 관계와도 연관되지 않는 유일한 이미지에 연속적으로 제시된 모든 소재 사이의 관계가 동시성을 띠고 있는 유형이라 설명한다. 이렇게 연대기적 통합체이면서 서사통합체가 아닌 묘사통합체의 그림책은 2018년 블로냐 라가치상 대상을 받은 『여름 안에서』¹¹⁶⁾다. 하루 동안 해변의 모습을 시간대별로 페이지마다 다각적인 시점으로 원색적이며 세련된 이미지들로 통일성 있게 묘사했다. 새벽 풍경으로부터 시작하여 저녁까지의 시간의 흐름을 따르는 연대기적인 조건을 갖고 있으나, 스토리나 주인공은 배제되었기에 묘사통합체 유형에 속한다. 크리스티앙 메츠가 설명한 공간적인 공전의 관계만을 부각시키는 경우로서, 네 번째 묘사통합체의 전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림책이다. 사건이 진행되는 순서, 시간의 흐름을 기본 바탕으로 하는 연대기적 통합체는 묘사통합체와 서사통합체로 나누어진다. 서사는 일정한 내용, 목적에 맞추어 감정, 사상, 지식 따위를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하여 적거나 인쇄하여 묶어 놓은 것으로 행동이나 사건을 표현한 언어이지만 행동이나 사건



그림 16. 람바로스 자의 『물 속 생물들』, 비르지니아 아라가 드 말레르브의 『깃털과 단어』, 솔 운두라가의 『여름 안에서』

116) 솔 운두라가, 『여름 안에서』, 그림책공작소, 2018.

자체가 아니다. 서사의 목적은 사건을 상상하게 이끌어, 표현된 사건에 의해 그 정서와 의미를 전달하는 데 있다. 현실에서는 순차적인 시간 속에서 행동이나 사건이 일어나지만 서사의 순서는 행동이나 사건이 일어난 순서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독자에게 관심, 흥미, 호기심,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사건의 시간적 순서를 바꾸기도 하면서 중요한 사건을 부각하여 그 사건에 흥미와 관심을 가지게 한다.¹¹⁷⁾ 이렇게 이야기, 사건, 대상 등의 스토리를 가지는 서사통합체는 그림책 분류 항목인 다섯 번째 교체서사통합체와 선형서사통합체로 구분한다. 다섯 번째 교체서사 통합체 유형의 그림책은 앤서니브라운의 『터널』¹¹⁸⁾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내성적이고 정적인 여동생과 개구지고 동적인 오빠를 반복 교차하여, 내면적이고 심리적인 차이점과 갈등을, 이미지의 상징체로 표현하며 닥친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으로 마무리한다. 이 그림책의 제목 ‘터널’이 암시하듯 남매의 불안하고 암담했던 시기를 통과하면서 겪는 심리적 변화를 서사적이고 상징적으로 표현한 수작이다. 이 유형은 두 번째 분류, 평행통합체와 같은 교차적인 성질을 포함하면서도 차이점은 연대기적 서사 형식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크리스티앙 메츠는 영화를 분석함에 있어 선형서사통합체를 ‘신scene’과 ‘시퀀스’로 분류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그림책을 분석하는 데 적합한 명칭들로 수정한다. 영화에서 ‘신scene’의 의미를 가진, ‘연속적 서사플롯’으로 명칭을 바꾸고, 또 ‘시퀀스’의 특징을 가진 그림책의 유형인 ‘비연속적 서사플롯’으로 각각 그림책 분류에 적합하게 수정하였다. 크리스티앙 메츠가 ‘시퀀스’를 에피소드 시퀀스와 일반시퀀스는 세분하였지만 영화보다 단순한 그림책 구조에서는

117) 창작 소재의 보고, 문화콘텐츠닷컴, 사건의 순서와 서사의 순서.
http://www.culturecontent.com/content/contentView.do?search_div=CP_THE&search_div_id=CP_THE004&cp_code=cp0238&index_id=cp02382344&content_id=cp023823440001&search_left_menu=2019,03,03.

118) 앤서니 브라운, 『터널』, 논장, 2018.

그 이상의 구분이 용이하지 않아, 시퀀스가 가지고 있는 기본 속성인 ‘비연속적’인 개념으로만 압축하여 그림책을 분석하고자 한다. 선형서사통합체는 기본적인 이야기와 일련의 사건이 진행되는 흐름의 형태를 가진 그림책을 말한다. 이 선형서사통합 세상에서 제일 힘 센 수탉체는 여섯 번째 연속적 서사플롯과 일곱 번째 비연속적 서사플롯으로 구분된다. 선형서사통합체의 연속적 서사플롯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림책 패턴의 스토리들이다. 빨간 모자, 신데렐라, 흥부놀부전 등의 이야기들처럼 순차적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진행되는 구조가 여기에 해당한다. 모리스 샌닥의 『괴물들이 사는 나라』¹¹⁹⁾, 손 톨의 『도착』¹²⁰⁾, 이억배의 『세상에서 제일 힘 센 수탉』¹²¹⁾등 수많은 과거와 현재의 그림책들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일반적 유형이다.

마지막 일곱 번째 비연속적 서사플롯은 전후 상관관계가 연결되지 않는 흐름을 가지고 있는 유형이다. 피터 시스의 『장벽』¹²²⁾을 그 예로 들 수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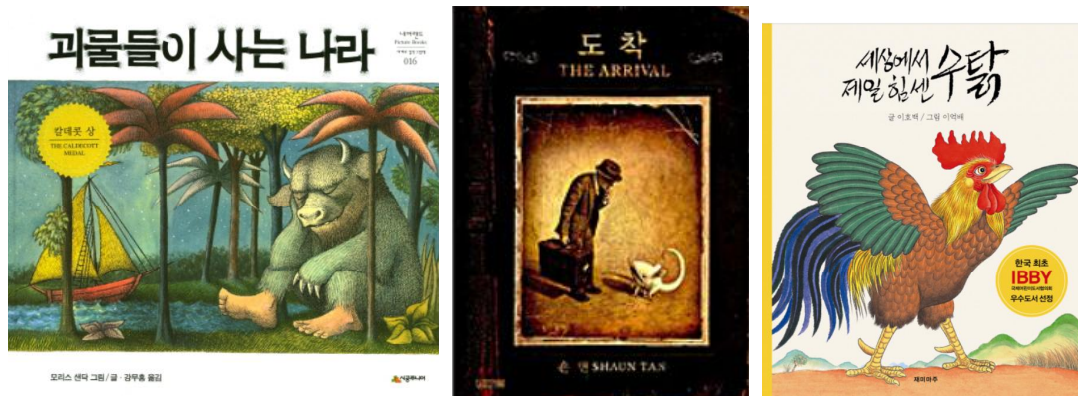


그림 17. 모리스 샌닥의 『괴물들이 사는 나라』, 손 톨의 『도착』, 이호백의 『세상에서 제일 힘 센 수탉』

119) 모리스 샌닥, 『괴물들이 사는 나라』, 시공주니어, 2002.

120) 손 톨, 『도착』, 사계절, 2008.

121) 이호백(저), 이억배(그림), 『세상에서 제일 힘 센 수탉』, 재미마주, 1997.

122) 피터 시스, 『장벽』, 아이세움, 2010.

다. 유년 시절을 다룬 회고록 성격의 그림책으로서 그가 태어난 1948년부터 그의 삶의 터전에서 장벽이 허물어진 1989년 11월 9일까지의 기록이라고 확정한다. 그의 성장기와 가족들의 모습과 더불어 조국의 혼돈기를 기록한 메모, 상징과 이미지로 섬세하고 과감하게 묘사했다. 어떤 장에는 일기장 텍스트가, 어떤 장에는 짝 찬 지도가, 또 어떤 장에는 분절된 이미지들로만 가득 하지만 그 안에 냉전과 공산주의에 대한 설명들과 역사적 상황들이 불규칙적인 체계로 자유롭게 전개된다. 이처럼 『장벽』은 하나의 연대기적 흐름과 서사를 담고 있으

나 비연속적인 플롯을 가지고 있다. 애착 인형과의 관계를 다룬 존 버닝햄의 『알도』¹²³⁾, 외로운 피터의 마음을 묘사한 에즈러 잭 키츠의 『휘파람을 불어요』¹²⁴⁾도 비연속적 서사플롯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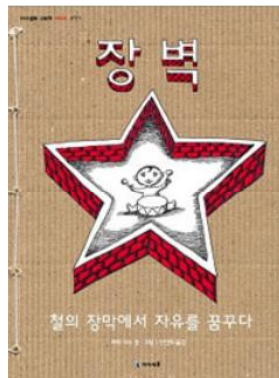


그림 18. 피터 시스의 『장벽』, 에즈러 잭 키츠의 『휘파람을 불어요』

본 논문 ‘Ⅲ. 철학적 그림책’ 부분에서 언급된 철학적 그림책들을 ‘그림책의 7유형 분석’에 입각해 분류하고자 한다. ‘자의식의 성장과 성찰’의 유형인 철학적 그림책 『코끼리 똥』, 『나는 기다립니다』, 『펠리컨』은 모두 연대기적 통합체이면서 『코끼리 똥』과 『펠리컨』 연속적 서사플롯이고 『나는 기다립니다』는 비연속적 서사플롯으로 분류된다. 『셀마-셀

123) 존 버닝햄, 『알도』, 시공주니어, 2017.

124) 에즈러 잭 키츠, 『휘파람을 불어요』, 시공주니어, 2017.

마가 간직한 행복의 비밀』은 연대기적 통합체 중에 교체서사통합체이다. ‘타인과의 관계’ 유형의 철학적 그림책인 『으르렁 아빠』, 『돼지책』은 전체적으로 연대기적 통합체이며 세분하면, 연속적 서사플롯이다. 그림책 『터널』은 전체적으로는 연대기적 통합체이고 그에 속한 교체서사통합체다.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 『두 사람』은 비연대기적 통합체로서 각각 평행통합체와 괄호연결통합체로 분류할 수 있다. 마지막 ‘환경과 사회, 세상과의 연대’의 철학적 그림책 유형에서 『깃털 없는 기러기 보르카』는 연속적 서사플롯이며 『프레드릭』은 교체서사통합체다.

『블룸카의 일기』는 비연속적 서사플롯으로 구분되었다. 이렇게 철학적 그림책들을 ‘그림책의 7유형 분석’로 구분하여 본 결과 철학적 그림책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으며, 특정한 유형으로 한정되지 않는 다채로운 형식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적이고 구조적인 통합체적 특성보다는 그 속에 담긴 인간 삶에 대한 사유와 성찰의 메시지가 철학적 그림책을 규정하는 특징적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림책 제작자나 작가는 그들이 담고자 하는 철학적 메시지를 ‘그림책의 7유형 분석’ 중에 하나의 유형을 선택하여, 그 전체적 구조와 형태를 통일성을 가지고 조율하며 제작 할 수 있을 것이다.

2.2 이분법적 의미 작용 분석

그림책은 각각의 분절된 계열체(페이지)가 묶여져 한 권의 그림책 텍스트로 완성되기에 한 권의 철학적 그림책 텍스트를 하나의 통합체적 기호로 볼 수 있다. 그림책 텍스트를 이분법적인 의미 작용으로 구분하여 분석 할 때 가장 큰 분류는 통합체와 계열체다. 표 7는 그림책을 이분법적 의미 작용으로 분석하기 위한 효율적인 틀로서 구성한 형태다.

표 7. 그림책의 이분법적 의미 작용 분석

구 성①		형식② (기표)	내용③ (기의)	통합체 분석④	계열체 분석⑤	
				구간별분석(시퀀스)	이항대립적 구조	
01	앞표지					
02	앞 면지					
03	속표지					
04	본문-p.			S ^{*1}		
			S ^{*2}			
	뒷 표지					
하단에는 ‘통합체 분석’의 구간별 분석(시퀀스)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S ^{*1} S ^{*2}						

① 그림책의 이분법적 의미 작용 분석을 위해 책의 구성을 순차적으로 배열한다.

② 기호는 기표와 기의로 나누어지는데 기표는 형식으로 기의는 내용으로 정리될 수 있다. 이분법에서 기호는 보이는 형태 그대로이고 기표는 의미 작용으로서(음성 이미지와 시각 이미지) 존재한다.¹²⁵⁾ 표면적으로 보이는 문장의 형태나 외부로 나타나는 문장에 표면에 드러나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형식’으로 분류될 수 있다.

③ 기의는 내용적인 면으로서 그림책 안에서 보이는 의미를 해석하고 받

125) 김정용, 『기호학이란 무엇인가』, 민음사, 1994, p.128.

아들여진 내용적인 측면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문장 안에서의 의미를 드러내는 ‘내용’으로 분류한다.

④ 통합체적 분석은 전체적인 문단, 구조, 흐름을 찾아 구간별(시퀀스)로 구체화된다. 통합체 분석은 전체 텍스트를 작은 텍스트로 나누어 사건의 진행 과정과 구조를 알아보는 방법으로서, 텍스트는 공간의 대립, 인물, 사건, 시간 등으로 나눌 수 있다¹²⁶⁾. 그림책 텍스트는 구간이 시퀀스로 연결되어 있어 전개 방식과 시공간을 동시에 포함하여 기승전결, 사건의 전개 과정, 반전, 주인공의 동선 등을 추적하여 통합체로서의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⑤ 계열체 분석은 이항대립적 요소를 찾아가는 것이다. 이항대립적 구조는 A, B 두 개념이 대립되는 요소라는 것을 전제로 대비하면서 설명하는 방식이다. 가장 친숙한 개념으로서 대비되는 명확한 개념이며, 인지 수준이 낮은 단계에서 흔히 써 왔던 대비적 개념이다. 그림책 안에서 이러한 요소들을 찾아 표 7을 완성한다. 그림책 안에서 계열체는 분석 방법에서 문장 안에서 이항대립적 요소만 찾는 것에 한정한다. 이분법적인 이론에서 이 같은 계열체 분석은 검증된 연구 방법이며 언어적 체계 안에서 주목해야 될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분법적 계열체 분석에서 미흡한 요소들은 다음 단계의 삼분법적인 분석에서 세부적으로 보완된다. 그림책 텍스트를 통합체와 계열체로 분석할 때에는 개별적인 낱장의 해석과 더불어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위의 분석틀 표 7은 언어적 맥락에 중심을 둔 방법으로서 구조주의 기호학자들의 이분법적인 맥락을 대입하였다.

2.3 삼분법적 의미 작용 분석

퍼스로부터 시작된 기호학의 삼분법적 의미 작용을 바탕으로 그림책을 분

126) 신혜선, 「유아 그림책 『100만 번 산 고양이』의 구조 분석을 통한 교육적 이해」,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5권 2호, 2014, p.167.

석하는 틀을 제시한다. 이미지와 문자의 복합 매체인 그림책 분석에 마지막으로 삼분법 체계를 응용하는 것은 이 기호분류 체계가 기호로 명명된 모든 것을 포용하면서도 함축적인 면까지 접근할 수 있고 이분법적 분석을 상호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표 8을 만들어 각 프레임(날장 텍스트)별로 분리해 단계적으로 형태와 의미를 규정하며 세부적 체계로 분석한다. 또한 외형적 특징을 더욱 세밀히 살필 수 있도록 주변 텍스트와 주변 텍스트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① ‘프레임(frame)’은 어느 한 부분을 취해서 이야기 세계의 틀을 짓는 선택의 기능이며 평면화 기능이라 할 수 있다. 영화에서 한 장면(frame)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화면의 구도나 구성을 정하여 의미 작용하는 하나의 표현 요소다. ‘프레임’이라는 용어가 그림책 언어로 사용될 때 다른 매체에서와는 다른 독자적 형식과 의미를 갖게 된다. 그림책에서의 프레임은 책이란 오브제의 특성 때문에 여러 형태를 가진다. 그림책이란 매체의 특성상 다양한 프레임의 형태, 크기, 사이 공간은 의미 작용을 위한 언어로 사용될 수 있으며 그림책의 프레임은 두 개 이상의 프레임이 동시에 배치되기도 한다. 책의 형태라는 물성을 지닌 그림책은 외부 프레임인 판형뿐만 아니라

표 8. 그림책의 삼분법적 의미 작용 분석

		① 프레임 넘버	② 주변 텍스트와 본문 텍스트
③ 표상체 (일차성)	이미지	(프레임 이미지)	(이미지에 대한 설명)
	문자	(문장 텍스트)	
④ 대상체 (이차성)			
⑤ 해석체 (삼차성)			

펼쳐진 두 페이지를 기준으로 한 ‘장’ 으로서의 전체 외곽 프레임으로, 왼쪽 페이지(Recto), 오른쪽 페이지(Verso)의 두 개의 프레임 그리고 화면 내에서 프레임인 내적 프레임으로 구성된다. 이 논문에서는 독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에서의 전체 외곽 프레임을 기준으로 삼아 분석하고자 한다.¹²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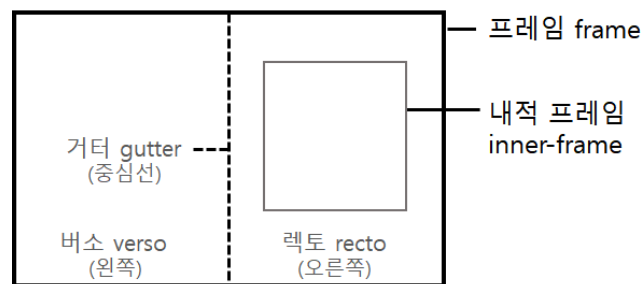


그림 19. 그림책 프레임

그림책이 가지는 앞뒤면 2개의 정면부 표지 텍스트와 그림책을 한 장씩 넘길 때 마주하게 되는 프레임(주변텍스트, 본문텍스트)들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그림책의 펼친 면의 프레임을 하나의 ‘기호체’로 인식하여 상호 텍스트 관계를 통하여 통합적인 의미를 분석한다. 통합체 기호인 그림책이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를 전달하고, 어떻게 미적 효과를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 내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글과 그림의 관계를 읽어내야 한다.

② 그림책은 본문을 싣고 있는 텍스트와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텍스트(페리텍스트Peritext)¹²⁸⁾로 구성되어 있다. 주변 텍스트에는 책 표지와 속표지, 면지 등이 포함된다. 주변 텍스트에는 표지 그림, 저자, 출판사, 출판

127) 김정선, 「그림책 언어로서의 프레임: 데이비드 위즈너의 그림책 텍스트를 중심으로」, 한국일러스트아트학회 간행물 : 조형미디어학 16권 1호, 2013, p.62

128) 한아름, 「해외 아동문학상 수상 한국 그림책의 페리텍스트(Peritext)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7, p.10-11(페리텍스트(Peritext): 책 본문의 내용을 텍스트라고 한다면, 텍스트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적인 텍스트들을 말한다. 본 논문에서는 ‘주변 텍스트’라고 지칭한다).

연도, 리뷰 등이 실린다. 이러한 주변 텍스트를 통하여 독자는 그 그림책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다. ‘표지’는 책의 맨 앞뒤의 길장으로서 어떤 사물을 다른 것과 구별하게 하는 표시나 특징이다.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대중의 취향 및 성격을 반영하여 판형, 이미지, 타이포그래피, 컬러, 캐릭터와 배경의 배치와 조화 등을 고려하여 제작¹²⁹⁾된다. ‘면지’는 책의 구조에 있어 딱딱한 책의 겉표지와 본문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종이다. 그러한 고유의 기능 때문인지, 면지는 제목이나 저자의 이름, 그림 등을 싣고 있는 표지와 차별화되어 단색으로 처리되어 특정 정보를 싣지 않는 것이 관례처럼 여겨져 왔다. 그림책에 대한 사전 정보라는 관점에서 보면 면지는 주변 텍스트들 가운데 가장 미온적인 의미를 지니고 존재했다. 그러나 최근 면지는 책 본문과 딱딱한 표지를 이어주는 본래의 기능을 넘어 그림책 작가에 의해 선택적으로 고안된 예술적 장치로 적극 활용되고 작품 전체 서사를 바라보는 작가의 관점을 전달하거나 독자의 참여까지도 촉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¹³⁰⁾. 표지 다음에 나오는 속표지는 대개 표지 제목보다 작은 크기로 제목만 간단하게 들어간다.

③ 표상체(일차성)란 기호 그 자체로서 어떠한 연결이나 관계도 가지지 않는 것, 그 자체로서의 순수한 존재, 기호체라고도 하며 기호의 발생에서 직접적으로 지각될 수 있는 영역이라 할 수 있다. 기호는 기표와 기의 조합에 의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기호의 표상성은 기호가 현 실체를 어느 정도 인간의 인식에 반영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 기호 생산자(그림책 작가)의 의도에 의해 드러난다. 다른 것과의 대립과 연계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의 드러나는 존재다. 그림책을 펼쳤을 때 마주하는 첫

129) 김정열, 최인영, 「그림책 표지의 시각적 구성 요소에 대한 사례 분석 - 2017-2018년 베스트셀러를 중심으로」, 한국일러스트레이션학회 일러스트레이션 포럼 55권, 2018, pp.29-31.

130) 나선희, 「그림책 면지와 서사의 관계-한국 그림책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동화와 번역연구소(구 건국대학교 중원인문연구소), 동화와 번역, 19권 0호, 2010, p.113.

번째 기호로서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지각되는 외형적 모습, 어떤 것에도 연관되지 않고 존재하는 실체다. 그림책의 형태나 재료, 색상 등의 일정한 형식(form)이다. 그림책은 그림책 전체가 문자 텍스트와 그림텍스트가 결합하여 생성된 하나의 통합텍스트로서 재해석되기 전에 인식하는 거대한 기호 통합체라고 말할 수 있다. 표상체를 문자와 이미지로 나누고 그것의 이미지(프레임 이미지)와 이미지에 대한 설명, 문자는 텍스트 그대로 분석표에 담는다.

④ 대상체(이차성)은 기호가 나타내고 있는 것, 실제로 일어난 사건과 사물로서 습득된 사고의 개념을 포함하며 추상적 또는 관념적인 것과 함께 개별 사건 및 존재들의 지표로서, 관계를 엮어 분별하고 판단한다. 표상체의 분석 다음의 이차적인 인식으로서 더욱 구체적인 실체에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사실에 근거한 존재에 의해 존재하는 단계다. 사실 그대로의 존재 양식으로서 실제적인 사실, 실제적으로 있는 것이다.

⑤ 해석체(삼차성)는 표상체(일차성)와 대상체(이차성) 분석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며 이들의 분석을 토대로 상징과 은유와 그 이면의 작가의 의도까지도 찾아내는 영역으로서 함축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의 마지막 단계가 된다. ‘해석자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심리’로서 해석자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지고 해석될 수도 있는 종합적이고 통합적으로 취합된다. 수많은 다의적 의미를 창출할 수 있고 또한 독자의 경험과 환경, 나이, 지식, 그리고 시간성과 공간성에 따라 더 많은 것을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 단계인 삼분법적 의미 작용 분석은 무한히 이어질 수 있는 세미오시스, 즉 연속적인 기호 작용을 열어두고 있으며 오류의 가능성까지 포함한 포용력 있고 확장된, 열린 해석 방법이다. 세미오시스는 원칙상 무한하게 진행되지만 항상 그렇지 않다. 퍼스에 따르면 각 세미오시스는 그 자신의 목적을 완결하면, 즉 최종 해석체가 만들어지면 더는 진행되지 않는다. 단순한 그림책의 경우 세미오

시스의 종결 또는 중단이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다. 반면 명확하지 않는 함의나 표징을 포함하고 있는 상징적 표현의 그림책에서 세미오시스는 즉각적·역동적·최종적 해석을 반복하며 수많은 세미오시스를 이어나가므로 최종적 단계로 삼분법적 의미 작용 분석 방법을 택하였다.

3. 철학적 그림책 『마음의 집』의 기호학적 분석

3.1 이보나 호미엘레프스카 작가 연구

폴란드 그림책 작가인 이보나 호미엘레프스카(Iwona Chmielewska)는 1960년 폴란드의 작은 중세 도시인 토루인에서 태어나 1984년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 대학 미술학부를 졸업하고 회화, 일러스트레이션, 무대 디자인 등 다양한 경험을 쌓은 후, 현재 그림책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고 있다. 철학적 그림책의 대표적인 작가인 이보나 호미엘레프스카는 특이하게도 데뷔 초기에 한국 출판사와 결연하여 유독 많은 그림책을 국내에서 출판하고 있는 작가이기도 하다. 수십 권이 넘는 그림책을 그렸고 현재 국내에서 30여 권의 책을 출판하였다. 2000년 『아저씨와 고양이』로 ‘프로볼로냐(Bologna Children Book Fair)상’을 수상하였고, 2003년에는 바르샤바 국제 책 예술제에서 야스노웁스카의 『시화집』으로 ‘책 예술상’을 받았다. 2007년에는 브라타슬라바 국제비엔날레 [Bratislava Biennial of illustrations(BLB)]에서는 『생각하는 ABC』로 황금사과상을 받았다. 2011년에는 김희경¹³¹⁾이 글을 쓰고 이보나 호미엘레프스카가 그림을 그린 『마음의 집』으로 볼로냐 라가

131) 1977년에 태어나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철학을 전공하고 동 대학원에서 미술사를 공부했다. 저자의 글로는 『지도는 언제나 말을 해』, 『마음의 집』이 있으며, 옮긴 책으로는 『렘브란트』가 있다.

yes 24 저자 소개; <http://www.yes24.com/Product/Goods/3678434?scode=029> 2019.03.15.

치 논픽션 부문 대상을 받았다. 2012년에는 고국 폴란드의 비극적 실화를 그림책으로 담은 『블룸카 일기』로 독일 아동청소년 문학상 그림책 부문 아너에 선정되었다. 2013년 『눈』으로 볼로냐 라가치 픽션 부문 대상을 받았다. 그녀의 그림책들은 권마다 나름의 특징과 차이점이 있겠지만 전체적인 공통점을 다섯 가지로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그녀의 작업들은 철학적 문제들을 심도 있게 많이 다루고 있다. 『마음의 집』, 『두 사람』, 『비움』, 『생각』, 『네 개의 그릇』, 『반이나 차 있을까 반밖에 없을까?』에서 나타난 주제들은 기존의 그림책과 차별화된 특별한 내적 성찰과 추상적 개념을 다룬다. 정치적 배경으로 약한 이들이 겪었던 불행을 다룬 『블룸카 일기』, 사회와 문화적인 영역을 꼼꼼히 묘사한 『안녕, 유럽』, 『시간의 네 방향』, 장애인을 다룬 『우리 딸은 어디에 있을까?』 등은 사회와 문화, 이웃과 타인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화된 철학적 개념으로 확대된 그림책들이다.

둘째, 수준 높은 예술성으로 그림책의 독자층을 확대하였다. 그녀 스스로도 어린이만을 독자로 규정하지 않고 작업한다고 하였듯이,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함께 읽고 생각할 수 있는 내용과 스타일로 성인 독자까지 흡수하는 완성도 높은 심미적 작품성을 갖췄다.

셋째, 기존의 기승전결 방식, 주인공 등을 설정하지 않고, 어느 페이지라도 펴서 보고 읽을 수 있는 스타일로 구성되어 있다. 무조건적인 희망과 낙관이 아니라 감정의 어두운 면과 밝은 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적절히 교차하여 독자가 자신의 상황과 관계, 감정들을 심리적으로 유추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넷째, 작가만의 독자적이고 개성적인 스타일의 예술 세계를 보여준다. 일반 어린이 그림책이 가지고 있는 원색적이고 밝은 다양한 색감을 사용하지 않고 채도가 낮고 몽환적인 색감, 무표정한 얼굴들, 배경과 인물의 절제된

묘사, 구도, 배치 통해 차별화된 예술 세계를 독자에게 제시하고 있다. 한편의 시집에서 볼 수 있는 서정적이고 고요한 정서를 느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녀의 그림책들은 풍부한 상징적 요소들을 통해 상상력과 호기심을 증폭시킨다. 이미지는 문자를 보조 설명하는 역할을 넘어 숨은 그림처럼 감춰진 상징성을 유추하게 하며 다의적 의미를 풍부하게 이끌어 낸다.

본 연구에서 철학적 그림책으로 선정하여 기호학으로 분석될 『마음의 집』은 한국의 글 작가 김희경과 폴란드 그림 작가 이보나 흐미엘레프스카와 공동으로 작업해 한국에서 첫 출간된 책이다. 세계 최대 규모인 볼로냐 국제아동도서전에서 수여하는 라가치상¹³²⁾, 2011년 논픽션 부문에서 대상을 받았다. 우리나라에서 출판된 한국 그림책으로는 최초로 받은 수상작이다. 심사위원들은 수상작인 『마음의 집』에 대한 아래와 같이 심사평을 하면서 ‘이러한 책이야말로 어린이문학의 자랑이자 명예’라고 평가했다.

이 책은 한 편의 우아한 시다. 이탈리아 형이상회화와 화가들(조르조 데 키리코로 대표되는 이탈리아 화가들)에 의해 사랑받았던 고요함이 가득 울려 퍼진다. 탁월한 완성도로 추상적인 기하학적 형태들이 완성되었으며, 암시적인 구조물들은 이미지와 함께 철학적 대화를 이끌어 낸다. 16세기 트롬프뢰유(Trompe-l'œil, 실제로 착각할 만큼 대상을 사실적으로 재현한 그림)는 마음 깊은 곳, 닫힌 방들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었다. 표현, 꿈, 기억, 인용 등 모든 면에서 상당히 특별하고 독창적인 이 책은 '세상에 대한 시각'으로 가득 차 있다. 이 시각은 그림에 묘사된 내부처럼 강렬하고 심오하며 또한 그만큼 오래 생각하며 몰입할 시간을 갖게 한다. 이러한 책이야말로 어린이문학의 자랑이자 명예다. 바슐라르(Gaston Bachelard, 프랑스 철학자)가 얘기한 '꿈꿀 권리'가 부단한 노력과 빼어난 명쾌함, 철저한 탐구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¹³³⁾

132) '아동출판계의 노벨문학상'으로도 불리는 라가치상(Ragazzi Award)은 2년 이내 출간된 전 세계 어린이 책들 중 창작성, 교육적 가치, 예술적인 디자인이 뛰어난 책에 수여하는, 어린이책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이다. 1966년 제정되어 매년 그 권위와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으며 아동 도서를 출판하는 전 세계 출판인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 픽션(Fiction), 논픽션(Nonfiction), 오페라 프리마(Opera Prima), 뉴 호라이즌(New Horizons)등 4개 분야로 나누어 각각 대상(winner) 1권과 우수상(mention) 2~3권을 선정한다. 특히 라가치상은 책의 내용뿐만 아니라 장정의 수준, 디자인, 편집까지 심사의 대상으로 삼고 있어 작가와 출판사 모두에게 영광이 돌아간다.

133) 각주는 P.66 연결됨.

본 논문에서는 세계적인 전문가들에게 극찬을 받고 대중적으로도 인기를 누리고 있는 철학적 그림책 『마음의 집』을 연구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전체적이고 통합적인 외적 구조적 요소들을 분석하고, 함축적이고 철학적 사유를 찾을 수 있는 내적 요소까지도 찾을 수 있는 기호학적 방법들을 대입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3.2 『마음의 집』 그림책의 7유형 분석

하나의 커다란 통합체로서의 그림책을 분석하는 ‘그림책의 7유형 분석’은 먼저 그림책이 묶음으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낱장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구별하면서 출발한다. 『마음의 집』은 하나의 묶음(총 33프레임)으로 만들어진 그림책으로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이 외형적 형태로서의 묶음은 하나의 통일된 연속성을 지닌다. 그러므로 첫 번째 유형인 불연속 단일 텍스트에서는 제외된다. 연결된 연속된 텍스트의 통합체는 비연대기적 통합체와 연대기적 통합체로 나누어진다. 연대기적 통합체는 시간의 차례를 따라 배열되는 그림책의 유형이며 비연대기적 통합체는 순차적인 일정이나 사건,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유형의 그림책들이다. 『마음의 집』은 시간과 사건의 흐름을 따르는 그림책이 아니므로 연대기적 통합체에서 제외된다. 『마음의 집』은 주인공도 없으며 시간의 흐름도 없고 사건도 없으며 순차적인 일정도 없는 비연대기적 통합체다. 어느 페이지를 펴서 읽어보아도 무방하게 마음에 대한 단상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비연대기적 통합체는 두 번째 유형인 평행통합체와 세 번째 유형 괄호연결통합체로 나누어진다. ‘그림책의 7유형 분석’에서 평행통합체와 괄호연결통합체를 구분하기 위

http://book.interpark.com/product/BookDisplay.do?_method=detail&sc.shopNo=0000400000&sc.prdNo=204222024&sc.saNo=003002001&bid1=search&bid2=product&bid3=title&bid4=001,2019.03.16

해 계열별로 서로 반복적이고 섞인 이미지와 내용들의 체계적인 교차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판별된다. 『마음의 집』 프레임(그림 20)에서는 반복이 보이지 않는다. 『마음의 집』은 비연대기적 통합체로서 세 번째 유형인 괄호연결통합체로 구분한다. 그림책의 7유형 분석 세 번째 유형인 괄호연결통합체는 계열별로 서로 반복적이고 섞인 통합체적 기호들의 체계적인 교차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판별되는데 이보나 호미엘레프스카의 『마음의 집』은 마음이라는 통일된 커다란 주제로 괄호연결체로서 이끌어나가지만 각기 다른 단상들로 그 심도를 달리하여 각각의 개별적인 프레임과 소재로 만들어진 책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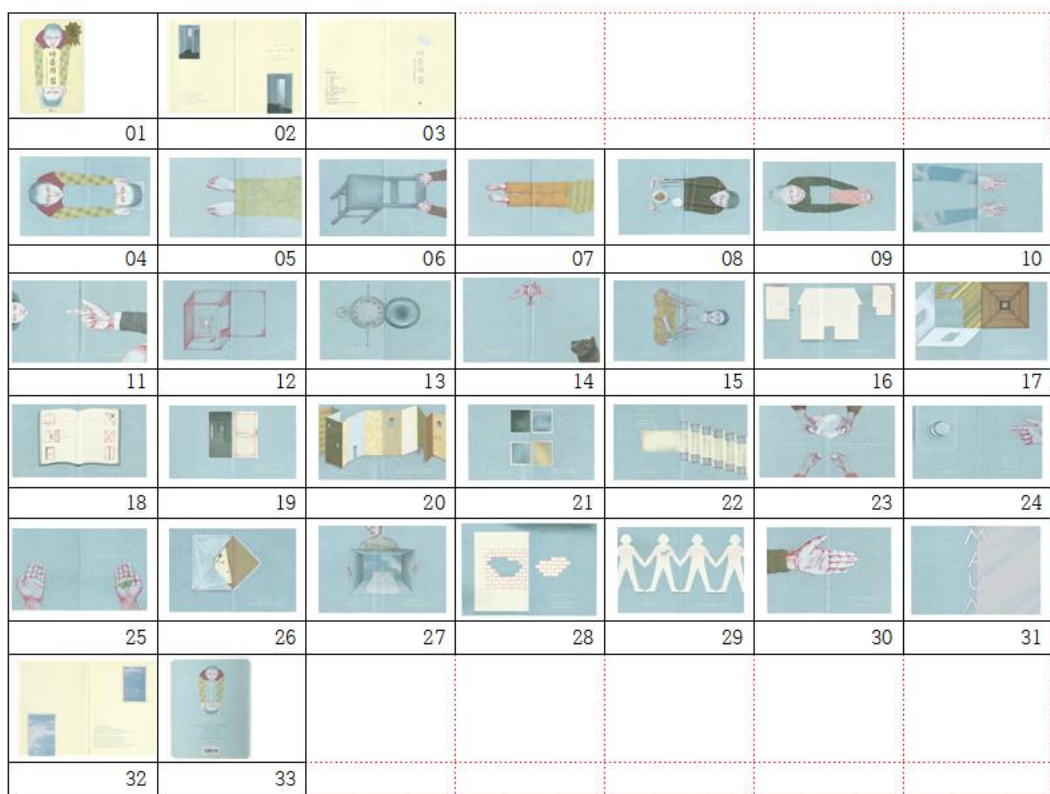


그림 20. 『마음의 집』의 전체 프레임

3.3 『마음의 집』의 이분법적 의미 작용 분석

3.3.1 통합체 분석

이보나 호미엘레프스카의 『마음의 집』은 주인공, 사건, 행위, 동선 없이 작가의 생각을 서사의 전개로 담은 ‘사유의 흐름’으로 전개되는 그림책이다. 이 분석에서는 구간별 분할에 있어 사유의 흐름이 일어나는 시간적 순차에 따라 시퀀스를 분할한다. 그림책 『마음의 집』은 주변 텍스트를 제외한 총 28개의 본문 프레임으로 이루어졌다. 의미 작용의 구간별 분할(시퀀스)은 8단계로 나눌 수 있다. 질문과 대답의 형식으로 진행되는 과정은 사유적 흐름에 따라 성찰하는 과정이다. 본문 이미지 자체에서 드러난 ‘자신을 들여다 보는 소년’, ‘눈을 감고 가부좌를 한 소녀’의 자세에서 정적이고 고요한 수행자의 모습이 드러난다. 화두를 던지고 그 답을 찾아 여행을 떠나는, 스스로 묻고 대답하는 듯한 독백적인 형태를 드러낸다. 질문 1에서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 질문 2 “내 마음 나도 모르지. 도대체 마음은 무엇일까?”라는 물음에 대한 계속된 대답 1, 2, 3, 4가 이어진다. ‘마음’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유추하기까지의 내면에서 일어났던 혼돈스러움, 재 질문, 부정과 덧붙임 등을 묘사하고 있다.

3.3.2 계열체 분석

통합체 분석은 텍스트에서 의미를 파생시키는 이항대립 쌍을 찾는 것으로서, 『마음의 집』의 이항대립적 요소는 이야기 이면에 잠재적 구조를 이루며 의미를 파생시켜 나간다. 먼저 그림책 문장 안에서, 확연히 드러난 이항대립 쌍을 찾아보았다.

할머니/아기, 교장선생님/학생, 기쁨/화(분노), 슬프다/즐겁다, 조금 열고/활짝 열고, 넓음/좁음, 비가 오고/해가 쨍쨍, 서툰 아이썬씨/능숙한 어른 썬씨

표 9. 그림책 텍스트 『마음의 집』의 이분법적 의미 작용

구성		형식	내용	통합체 분석		계열체 분석		
				구간별 분할(시퀀스)		이항대립적 요소		
01	앞표지	주변 텍스트						
02	앞 면지							
03	속표지							
04	본문-p.3~4	전개 (질문1)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	S*1 시작 글, 중심 주제				
05	본문-p.5~6	대답1	나와 타인의 마음에 대한 외적인 대상들을 추적함	S*2 가시적인 인물들 등장 마음을 소유한 대상들				
06	본문-p.7~8							
07	본문-p.9~10							
08	본문-p.11~12							
09	본문-p.13~14						할머니	갓난 아기
10	본문-p.15~16							
11	본문-p.17~18						교장선생님	학생
12	본문-p.19~20	의문1	미진하고 갈급함을 표현	S*3 혼돈스러운 상태				
13	본문-p.21~22	대답2	시간, 대상에 따른 가변성		기쁨	화(분노)		
14	본문-p.23~24		슬프다		즐겁다			
15	본문-p.25~26	질문2, 의문2	도대체 무엇일까?					
16	본문-p.27~28	대답3	‘마음’을 ‘집’이라 은유적으로 설정하고 상징적인 요소들로 비유	S*4 비가시적인 심층으로 확대된 집을 구성하는 소재들을 통하여 다양한 심리와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들을 상징적으로 묘사함				
17	본문-p.29~30							
18	본문-p.31~32							
19	본문-p.33~34						조금 열고	활짝 열고
20	본문-p.35~36						넓음	좁음
21	본문-p.37~38						비가 오고	해가 쨍쨍
22	본문-p.39~40							
23	본문-p.41~42						서툰 아이 솜씨	능숙한 어른 솜씨
24	본문-p.43~44							
25	본문-p.45~46	반전	예외적 상황	S*5 주체의 역전	빈 손	소유한 손		
26	본문-p.47~48	대답4	대답3에 대한 대치적 상황	S*6 ‘마음’이 가지는 가변적인 심리 상황에 대하여 서술함				
27	본문-p.49~50							
28	본문-p.51~52							
29	본문-p.53~54	결론 (해결)	안심, 위로	S*7 믿음과 희망의 메시지				
30	본문-p.55~56							
31	본문		나를 성찰하기	S*8 본인을 투사해 볼 것을 권함				
32	뒷 면지	주변 텍스트						
33	뒷 표지							

S*1. ‘우리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 라고 하며 사유에 대한 초대를 한다.

S*2. ‘마음’을 찾는 첫 번째 대상들은 주변 인물들이다. 엄마, 친구, 아빠, 할머니

와 아이, 장애인, 교장선생님에게도 마음이 있다. 의자를 잡고 있는 손의 이미지만으로 ‘엄마’는 기다리는 마음을 표상하고 엎드려 누운 하체를 통해 수줍고 내성적인 ‘친구’를 묘사한다. 쟁반을 들고 있는 ‘아빠’의 모습에서 외로움과 소외를 느끼게 한다. 이렇게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인물들의 감정들을 그들의 ‘마음’이라 추측하는 것이다. 타인에 대하여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부분적인가에 대한 한계성을 절단된 이미지들을 통하여 유독 많이 설명하고 있다.

S^{*3}. 그런데도 마음은 잘 알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한 상태를 연이어 설명하는데 흘러가는 시간과 멈춘 시간들 사이에서 잡으려 해도 잡을 수 없는 고양이의 마음과 작가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대상을 주시한다. 이 모든 것들이 생소하지만 생각의 흐름은 그렇게 진행되고 그런 마음의 흐름은 혼돈과 긴장감을 가지게 한다.

S^{*4}. 마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집과 같다고 말한다. 백 사람이면 백 개의 집, 큰 집, 작은 집, 소유와 형태 그리고 문, 방, 창문, 계단 등의 형상과 상태를 묘사하며 다양한 감정의 희노애락과 더불어 높낮이, 외부적 상황, 비교, 다양성 등을 차분히 꼼꼼히 설명한다. 이렇게 생각과 생각이 계속되고 이러한 관념들이 답을 찾아가는 연결고리를 가지며 구체화 된 소재들로 형상화되어 이어진다.

S^{*5}. 앞에서 묘사했던 ‘마음이 집과 같다는 길고 긴 비유와 은유적 단상들에 대한 허무와 같은, 예외적 상황에 대하여 드러내며’ 그런데 ‘라고 그 마음의 집의 주인이 내가 아닌 타인으로서 갑자기 주인이 바뀐다고 말한다. 그 주체가 바뀌는 반전을 이야기한다.

S^{*6}. ‘마음’은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 상대나, 소식에 따라 변하는 가변적인 심리상황이다. 이러한 많은 경우와 상황(갑작스러운 소식, 사랑하는 연인에 대한 생각) 등이 내 마음의 주체인 나를 무색하게 초초, 불안, 걱정, 연심에 휘둘릴 때에 대하여 서술한다.

S^{*7}. 마음들을 믿으라고 손을 내민다. 과거 낯선 사람들과 인사할 때 무기를 가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악수를 하였다고 하듯이 손을 내밀어 나를 돕고 또 내가 손을 내밀어 타인을 초대 할수 있는 마음의 자세에 대한 믿음을 함축한다.

S^{*8}. 거울을 통해서 자신을 들여다볼 것을 제시한다. MAUM은 확실히 반만 보이고 나머지는 내가 찾아내고 정확하고 들여다봐야 하는 것이다. 내 자신에 대한 내적 성찰만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할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이다.

할머니와 갓난아기는 극명한 대비를 이룬다. 그러나 그들의 표정은 모호하고 확실하지 않다. 그저 대비를 이루며 서로 마주하는 배치로 바라본다. 그것은 늙음과 젊음, 시작과 끝을 보여주며 탄생과 죽음을 상징하기도 한다. 교장선생님과 학생이 등장하는 장면에서는 대머리 교장선생님의 뒷통수와 못마땅한 표정의 아이가 서로 배치되어 야단맞는 듯한 형상을 그렸다. 훈계하는 자와 훈계받는 자, 배우는 이와 가르치는 이, 자발적임과 수동적임을 극적으로 포착한다. 이렇게 타인(엄마, 친구, 아빠, 교장선생님)들의 이미지들은 가려져 있거나 절단되었지만 아기와 학생에 주인공을 대변하는 얼굴 이미지들은 눈, 코, 입이 정확히 묘사된다. 같은 시간, 같은 상황에서 나는 기쁘기도 화가 나기도 슬프기도 즐겁기도 하다는 가변적인 예측 불허한 마음의 대립적 상태를 묘사한다. 모두 ‘집(마음)’이라는 공간을 소유함에 있어서도 소유와 비 소유, 고집과 변덕, 크고 작고 등을 묘사한다. 한 공간에서 요리를 해도 아이가 묘사하는 서툰 솜씨와 어른의 능숙한 솜씨의 멋진 요리는 대립관계를 이룬다. 그 과정에서 서툰 아이의 손은 계란을 깨지만, 능숙한 어른 손은 밀가루를 반죽한다. 관계에 있어서의 표상 뿐 아니라 심리적인 자세에 대하여서도 생각 할 수 있는 단상이다. 이 밖에도 그림책 『마음의 집』의 나타난 이항대립적 요소는 무궁무진하다. 이미지와 내용적 측면에서도 나타난다. 좀 더 신중히 『마음의 집』을 들여다보면 대립의 축은, 외적인 것과 내적이고, 또 내적인 안에서 거듭되는 감정적인 측면에서의 이항대립적 비교가 반복된다. 처음 본문 프레임에 등장한 복재된 주인공의 이미지와 마지막 거울이 나뉜진 이미지도 가짜(복재)와 진짜, 타자와 나라는 이항대립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통합체 분석에서 보이는 S2와 S4도 커다란 의미에서 타인과 자아적 측면으로 구분될 수 있다. 가시적인 것과 비가시적인 것의 이항대립적인 구조인 것이다. 이 그림책의 핵심 주체가 되는 이항대립적 요소는 바로 제목에서 드러나는 ‘마음의 집’이라는 어휘다. ‘마

음’은 비가시적이고 정신적인 개념이고 ‘집’은 부동의 물성을 가진 가시적인 실체이다. ‘마음’은 ‘집’을 소유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작가는 그런 ‘마음의 집’을 표현할 때 가벼운 재질로 ‘종이로 만든 집’을 ‘마음의 집’이라고 시각화하여 구현한다. 이렇게 ‘마음의 집’이라는 구체적인 설정을 정하고, 감정적이고 가변적인 많은 기복을 시각화하기 위하여 기하학적 도형의 이미지로 추상적 형태로 표현한다.

3.4 『마음의 집』의 삼분법적 의미 작용 분석

본 연구에서는 삼분법적인 의미 작용 분석에서 더욱 밀도 있는 연구를 위해 외적으로 드러나는 주변 텍스트와 주변 텍스트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프레임 1, 2, 3, 32, 33을 주변 텍스트로 구분하여 그 의미와 내용을 확인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3.4.1 주변 텍스트 분석

『마음의 집』 주변 텍스트 먼저 앞표지(프레임 1)와 뒤표지(프레임 33)는 그림책 본문(프레임 4)에서 나오는 첫 번째 이미지의 사이즈를 조절하여 중복하여 사용하였다. 프레임 2, 33은 면지로서 앞과 뒤를 대칭을 이루는 이미지로 묘사되었다. 앞면지가 이 그림책의 주제인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하는 답답한 심정을 담은 어두운 실내의 모서리를 묘사했다면, 뒤면지는 유사한 포맷으로 푸르른 하늘로서 깨달음을 얻은 듯한 명쾌함을 표현하였다. 프레임 3의 속표지에서는 날아가는 무채색의 나비가 등장하는데, 제목을 적은 문자의 색감과 나비가 모두 낮은 채도로 잔잔하게 그 여정을 알리는 듯 배경에서 드러나지 않게 조심스레 묻혀 있어 사색적인 고요로 초대하고 있는 듯하다.

표 10. 『마음의 집』 삼분법적 의미 작용 분석-프레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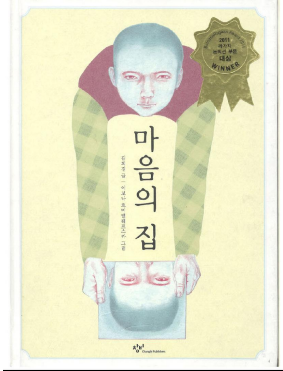
프레임 1		앞표지
표상체	이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문을 가지고 대담하고 확고한 포즈로 명확한 답을 묻고 있는 동적 움직임 • 생각에 잠긴 눈동자, 허공을 바로 보는 듯한 시선에서 멈추어 버린 듯한 정적인 이미지 • 전체인 색감과 형상은 시간이 멈춘 듯한 신비스러움, 정적, 안정감, 고요함을 구축
	문자	
대상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적인 낮은 채도의 연한 노란색의 배경, 외각의 흰색의 테두리 • 사실적인 묘사의 소년이 두 손에 자기의 얼굴과 동일한 상단부의 이미지를 들고 있음. • 왼쪽 상단, 황금색 수상 라벨 스티커 	
해석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문을 가지고 대담하고 확고한 포즈로 명확한 답을 묻고 있는 동적 움직임 • 생각에 잠긴 눈동자, 허공을 바로 보는 듯한 시선에서 멈추어 버린 듯한 정적인 이미지 • 전체인 색감과 형상은 시간이 멈춘 듯한 신비스러움, 정적, 안정감, 고요함을 구축 	

표 11. 『마음의 집』 삼분법적 의미 작용 분석-프레임 2

프레임 2		앞면지
표상체	이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도 낮은 연한 노란의 배경색 • 절제된 무채색과 청색계열의 낮은 채도 두 개의 직사각형을 좌우 대칭, 대각선으로 배치하여 집안의 내부 모퉁이를 스케치 • 어둡고 기하학적인 간결한 선과 면으로 계단과 문, 창문, 집안의 내부의 음침하고 고요한 코너를 형상화
	문 자	
대상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면지 • 그림책 딱딱한 표지를 이어주는 기능적 역할 • 면지는 그 자체로 그림책 본문을 감싸는 배경과 같은 역할 	
해석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 안의 꺾인 복도의 풍경은 그 모퉁이 뒤면에 전개될 내부를 상상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상징적인 요소 • 마음의 집, 내면으로 향하는 입구로서의 메시지 • 그림책의 내용을 암시하는 예술적 장치로서 호기심을 유발함 	

표 12. 『마음의 집』 삼분법적 의미 작용 분석-프레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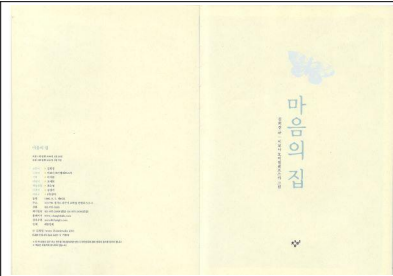
프레임 3		속표지
표상체	이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적인 낮은 채도의 연 노란 갱지 무늬의 배경 • 채도 낮은 회색의 사실적으로 묘사된 날아가는 나비의 • 배경과 대비되지 않은 이미지들이 잔잔하게 배치
	문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음의 집 • 초판 1쇄 발행 2010년 1월30일 • 초판 1쇄 발행 2011년 3월5일 •..중략 (등록, 주소, 전화, 기타....) • 김희경 글, 이보나 호미엘레프스카 그림, (주) 창비
대상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지의 속표지 • 마음의 집을 찾아 떠나는 나비의 모습 	
해석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실적인 묘사이나 형상을 부각하지 않아 그림자 같은 나비에서 내적인 은밀함을 유추할 수 있도록 함 • 잔잔하고 밝은, 전체 텍스트의 조화는 정적이며 안정감, 고요함을 구축 • 사색 여정의 도입부 	

표 13. 『마음의 집』 삼분법적 의미 작용 분석-프레임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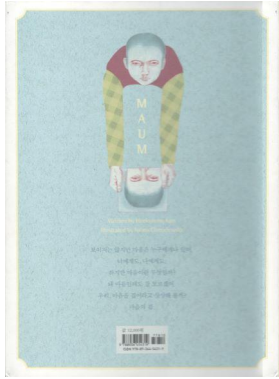
프레임 32		뒤면지
이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레임2 (앞면지)와 유사한 공간과 배치로 그림책의 마지막 결론의 텍스트 • 절제된 무채색과 청색계열의 낮은 채도 두 개의 직사각형을 좌우 대칭, 대각선으로 배치하여 집안의 내부 모퉁이를 스케치 • 하늘과 구름이 직사각형의 프레임 두 개에 배치
표상체	<p>• 글.김희정 Kim Heekyoung 1977년에 태어났고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철학과 미술사를 공부했습니다. 삼성미술관 ‘리움’에서 프리랜서 미술관 교육 프로그램 기획자로 일하면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미술관 프로젝트 ‘모모뮤지엄(www.momomuseum.org)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쓴 책으로 『지도는 언제나 말을 해』, 옮긴 책으로 『렘브란트』가 있습니다.</p> <p>• 그림.이보나 호미엘레프스카 Iwona Chmielewska 1960년 폴란드에서 태어났습니다. 코페르니쿠스대학에서 미술학부를 졸업하고 대학에서 그림책 강의를 하며 다양한 미술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의 어머니이자 그림책 작가로 30여 권이 넘는 그림책을 출간했습니다. 폴란드 작가이지만, 우리나라에서도 2004년부터 그림책을 여러 권 펴내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쓰고 그린 그림책으로 『생각』, 『파란 막대 파란 상자』, 『두 사람』, 『반이나 차 있을까 반밖에 없을까?』 등이 있고 『생각하는 ABC』로 브라티슬라바 비엔날레(BIB) 황금사과상을 받았습니다.</p>	
대상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레임2 (앞면지)와 유사한 공간과 배치로 그림책의 마지막 결론의 텍스트 면지 • 창에서 보는 듯한 시원하고 넓은 무궁한 하늘 풍경의 이미지 (2D공간에서 3D 공간으로의 확장) • 작가들의 약력을 소개하는 문자 	
해석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림책의 결말을 암시하는 텍스트 • 깊은 사색의 끝에 찾아오는 명료하고 맑은 깨달음을 형상화 • 깔끔하고 정돈된 밝은 희망의 메시지를 상징 	

표 14. 『마음의 집』 삼분법적 의미 작용 분석-프레임 33

프레임 33		뒤표지
표상체	이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적인 낮은 채도의 거친 갱지의 질감을 가진 푸른 배경 • 축소된 앞표지 이미지 • 이미지와 문자, 바코드 등이 세로 방향의 구도로 정렬
	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UM • Written by Heekyoung Kim, Illustrated Iwona Chmielewska • 보이지 않지만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어. 너에게도, 나에게도. 하지만 마음이란 무엇일까? 내 마음인데도 잘 모르겠어. 우리, 마음을 집이라고 상상해 볼까? 마음의 집. • 값 12,000원
대상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림책 ‘마음의 집’을 소개하는 이미지와 간단한 설명글 • 앞표지와 짝을 이루는 유사성을 가지면서도 차별화된 전체적 이미지 • 정돈되고 차분한 구성 	
해석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림책 ‘마음의 집’에 앞표지에서 대한 못다한 개괄적인 소개글 • 소년의 눈동자가 마주하는 독자와 눈을 맞추며 읽어보라고 건네주는 듯한 이미지 • 앞표지에서 전체를 차지했던, 축소되고 반복된 소년의 이미지가 ‘안녕’을 말하는 듯하다 	

3.4.2 본문 텍스트 분석

표 15. 『마음의 집』 삼분법적 의미 작용 분석-프레임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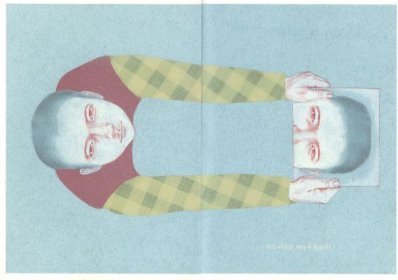
프레임 4		본문
표상체	이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문을 가지고 대답하고 확고한 포즈로 명확한 답을 묻고 있는 동적 움직임 • 생각에 잠긴 눈동자, 허공을 바로 보는 듯한 시선에서 멈추어 버린 듯한 정적인 이미지 • 전체인 색감과 형상은 시간이 멈춘 듯한 신비스러움, 정적, 안정감, 고요함을 구축
	문자	
대상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터gutter의 경계성이 없이 가로 배열의 단일 캐릭터 • 생각에 잠긴 눈동자, 허공을 바로 보는 듯한 시선이 독자를 향하고 있음 • 소년의 쪽 뺨은 팔은 그림책의 가로 방향 중심으로 펼쳐져 있음 	
해석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문을 가지고 대답하고 확고한 포즈로 명확한 답을 묻고 있는 동적 움직임 • 생각에 잠긴 눈동자, 허공을 바로 보는 듯한 시선에서 멈추어 버린 듯한 정적인 이미지 • 전체인 색감과 형상은 시간이 멈춘 듯한 신비스러움, 정적, 안정감, 고요함을 구축 	

표 16. 『마음의 집』 삼분법적 의미 작용 분석-프레임 5

프레임 5		본문
표상체	이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사람의 허반신, 허벅지 아래에서 발까지의 앞모습을 묘사 • 붉은색의 얇고 가는 선으로 두 발을 사실적으로 묘사 • 노란색을 띤 커다란 식물의 패턴 바지를 입은 다리의 모습 • 전체적인 낮은 채도의 거친 갱지의 질감을 가진 푸른 배경
	문자	
대상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 발을 내려 보는 듯한 시점에서의 사실적인 묘사 • 선명한 발의 생생한 묘사 • 멈추어 선 듯한 정적인 포즈 	
해석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선을 낮추어 자신의 내면의 아래를 성찰하는 상징적 이미지 • 관습적으로 발은 타인에게 잘 드러내지 않는 가장 더럽고 하찮은 것의 상징 • 거칠고 하찮은 내면의 구석구석을 성찰하는 이미지 	

표 17. 『마음의 집』 삼분법적 의미 작용 분석-프레임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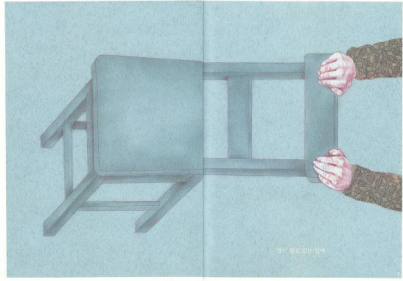
프레임 6		본문
표상체	이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도 낮은 단정한 푸른 의자와 그 등받이를 잡고 있는 손의 모습 • 붉은 팬으로 고지식하고 투박해 보이는 사실적으로 묘사된 손 • 상의 옷의 꽃무늬 패턴, 갈색의 채도 낮은 수수한 옷의 일부분이 묘사됨 • 전체적으로 푸른 배경과 딱딱한 비어 있는 의자
	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이 별로 없는 엄마
대상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이 별로 없는 엄마는 수수하고 불편한 의자를 권하는 모습으로 연출 • 빈 의자의 등받이를 잡고 있는 엄마의 형상 • 소년의 쪽 뺨은 팔은 그림책의 가로 방향 중심으로 펼쳐져 있음 	
해석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자 뒤에 서 있는 엄마의 모습은 나를 지켜보는 대상 • 나를 앞에 세우고 나의 뒤에서 보살피 주고 훈육하는 엄마를 상징 • 기다림을 상징하는 빈 의자는 편안함보다는 안정감을 일깨움 	

표 18. 『마음의 집』 삼분법적 의미 작용 분석-프레임 7

프레임 7		본문
표상체	이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붉은색 얇고 가는 선으로 발 바닥을 사실적으로 묘사 • 인체의 상반신을 제외한 엎어져 누워 있는 듯한 포즈의 어린이 • 전체적으로 노란 계열의 상하의, 연두 계열의 줄무늬 상의와 오렌지색 바지 • 전체적인 낮은 채도의 거친 갱지의 질감을 가진 푸른 배경 대담하고 생략된 구도
	문 자	
대상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옷의 패턴은 밝고 경쾌한 이미지 • 구석에서 노는 것을 좋아하는 친구의 모습을 형상화 • 엎어져 누워 있는 듯한 편안한 신체의 뒷모습 	
해석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석에서 노는 것을 좋아하는 친구는 활동적이기보다는 조용히 홀로 노는 것을 좋아함 • 친구의 상반신을 화면에서 잘라 표현한 것은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줌 • 과감히 생략된 부분으로 인한 궁금증을 유발시킴 	

표 19. 『마음의 집』 삼분법적 의미 작용 분석-프레임 8

프레임 8		본문
표상체	이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밥과 반찬 그리고 수저의 쟁반을 받혀든 중년 남자 상반신 • 붉은색 얇고 가는 선으로 남성의 얼굴과 손을 사실적으로 묘사 • 남성의 상의는 체크무늬의 어둡고 단순화된 거친 느낌으로 묘사 • 전체적인 낮은 채도의 거친 갱지의 질감을 가진 푸른 배경과 어둡고 칙칙한 캐릭터
	문 자	
대상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밥을 혼자 먹는 아빠의 이미지 • 생각에 잠긴 중년 남성은 아래로 지친 듯 시선을 아래로 향하고 있음 • 쟁반을 두 손으로 꼭 잡고 들고 있는 정지된 자세 	
해석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 쳐진 어깨와 숙인 얼굴의 모습과 감은 듯한 시선 처리, 지치고 외로운 아빠의 이미지 • 생계를 책임지는 절실하고 성실한 마음이 두 손에 표현 • 거친 옷으로 아빠의 내면적인 상태를 표출함 	

표 20. 『마음의 집』 삼분법적 의미 작용 분석-프레임 9

프레임 9		본문
표상체	이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할머니가 아이를 바라보는 듯한 시선과 아이를 들고 있는 이미지 • 핑크색 천에 얼굴만 보이도록 싸여 있는 갓난아기의 모습 • 할머니의 쪽 뺨은 그림책의 가로 방향 중심으로 펼쳐져 있음 • 전체적인 낮은 채도의 거친 갠지의 질감을 가진 푸른 배경
	문 자	
대상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왼쪽 페이지에 할머니의 큰 상반신 모습과 오른쪽 페이지의 신생아의 전체모습 • 갓난아기는 눈도 못 뜨고 불편한 듯한 표정 • 할머니는 미소를 띠고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아이를 들어 올리고 있음 	
해석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갓 태어난 신생아와 주름살이 많은 할머니의 대비적인 이미지 • 짙차고 커다란 할머니 모습과 작고 어린 돌봄을 필요로 하는 갓난아기 • 두 사람 모두 정적이고 차분한 이미지의 표정으로 묘사 	

표 21. 『마음의 집』 삼분법적 의미 작용 분석-프레임 10

프레임 10		본문
표상체	이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뻗은 두 팔과 섬세한 손등과 손가락 이미지 • 붉은색 얇고 가는 선으로 손의 질감을 사실적으로 묘사 • 손목부터 팔까지의 이미지는 맑고 투명한 하늘의 이미지 • 전체적인 낮은 채도의 거친 갱지의 질감을 가진 푸른 배경
	문 자	
대상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눈이 보이지 않는 장애인, 더듬거리는 시각장애인의 캐릭터 • 과감히 생략된 구도와 상상적인 묘사 구현 • 쪽 뻗은 팔은 그림책의 가로 방향으로 펼쳐져 무엇을 찾는 듯한 이미지를 연출 	
해석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눈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들이 느끼는 촉각적인 면을 시각화 • 하늘이라는 상징적 요소를 등장시켜 신비스럽고 환상적으로 내면의 이미지를 대체함 • 장애인이 느끼는 고통을 승화시키는 창의성 있는 감각적 이미지 	

표 22. 『마음의 집』 삼분법적 의미 작용 분석-프레임 11


프레임 11		본문
표상체	이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른쪽에 대머리 형상의 일부 분과 그의 손짓 • 왼쪽에는 어린아이의 얼굴, 마주보며 바라보는 시선 • 프레임 중앙에 대머리 아저씨의 손이 중심이 되어 가로질러 아이를 향하고 있음 • 전체적으로 생략된 텅빈 배경에 양쪽으로 대치하고 있는 긴장되고 절단된 이미지
	문 자	
대상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머리 교장선생님과 학생의 절단되고 생략된 이미지 • 혼육하시고 계신 듯한 손짓과 아이의 무표정한 시선 • 하얀 와이셔츠의 간결한 패턴으로 양복 정장을 입으신 대머리 교장선생님 	
해석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깔끔한 와이셔츠는 대머리 교장선생님의 정확하시고 완벽주의적 성격을 표상하는 이미지 • 독자가 선생님과 아이 사이를 객관적인 전지적 시점(위에서 내려 보는 듯한)에서 관찰하게 됨 • 둘 사이에 흐르는 묘한 긴장감, 아이의 무표정 하지만 앙 다문 입술 	

표 23. 『마음의 집』 삼분법적 의미 작용 분석-프레임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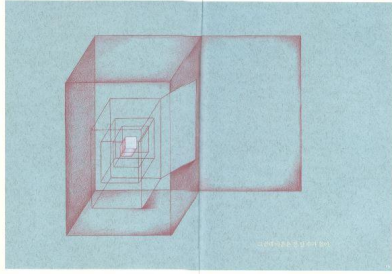
프레임 12		본문
표상체	이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왼쪽 하단에서 하얀 사각형에서 시작된 선의 이미지가 겹겹이 오른쪽 상단으로 확장 • 붉은색 얇고 가는 선으로 묘사된 사각형의 중첩된 실선과 붉은 색의 명암 • 전체적인 낮은 채도의 거친 갱지의 질감을 가진 푸른 배경 • 면적인 요소, 선적인 요소의 사각형 박스들이 투명하게 겹쳐져 3차원적 공간감 만듦
	문 자	
대상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로 같은 알 수 없는 마음에 대한 시각화 • 잘 알 수가 없는 마음을 바라보는 이미지의 표상 • 작가가 생각하는 알 수 없는 마음에 대한 시각화 	
해석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상적이고 기하학적인 내면의 상상적 이미지의 시각화 • 마음에 대한 알 것도 같고 모른다는 것도 같은 혼돈과 실체의 혼재를 표현 • 알 수 없는 마음은 상자 속의 또 다른 상자, 감추어진 포장 같은 숨겨진 대상 	

표 24. 『마음의 집』 삼분법적 의미 작용 분석-프레임 13

프레임 13		본문
표상체	이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뚜껑이 열린 회중시계의 사실적인 이미지 • 왼쪽 페이지에서는 시계를 중심으로 분침·시침이 상하로 분리되어 있음 • 전체적인 낮은 채도의 거친 갱지의 질감을 가진 푸른 배경
	문자	
대상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복의 포켓 등 품 속에 넣고 휴대하는 소형 시계 회중시계의 이미지 • 분리되어 있는 시침과 분침 • 분침·시침이 가르키는 기쁜 어느 날과 화난 어느 날 	
해석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리되어 있는 시침과 분침은 기쁜 날과 화가 났던 날을 상징 • 열어서 들여다본 나의 마음은 고장 난 시계 • 시계는 흘러가며 모든 순간과 삶을 지나치지만 마음은 어느 한 곳에 머물러 그 때를 기억함 	

표 25. 『마음의 집』 삼분법적 의미 작용 분석-프레임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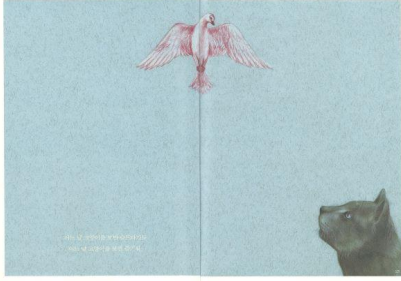
프레임 14		본문
표상체	이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빨간펜으로 그린 듯한 하얀색 비둘기의 나는 듯한 형상이 중앙 상단에 배치 • 오른쪽 페이지 하단에 검은 고양이 옆 얼굴이 사실적으로 묘사 • 고양이와 비둘기는 서로 눈을 맞추고 긴장감을 조성 • 푸른 배경의 영역의 비중이 매우 큼(전체적으로 낮은 채도와 거친 갱지 질감)
	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느 날 고양이를 보면 슬프다가도 어느 날 고양이를 보면 즐거워.
대상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양이는 비둘기를 공격하려고 기다리거나 대기하는 이미지 • 비둘기와 고양이는 서로 대립적인 긴장된 시선 • 고양이를 보며 슬퍼하기도 즐거워하기도 함 	
해석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같은 대상이 나에게 슬픔과 즐거움을 줄 수 있음 • 타인의 행동과 갈등이 어떤 날은 흡족함으로 어떤 날은 슬픔으로 • 객관화하여 마음의 흐름을 성찰함(측면에서 바라보는 시점) 	

표 26. 『마음의 집』 삼분법적 의미 작용 분석-프레임 15


프레임 15		본문
표상체	이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부좌로 앉아 눈을 감고 있는 소녀의 정면 이미지를 가로로 배치 • 옷 밖으로 나온 얼굴, 손, 발.. 붉은색 얇은 선으로 사실적으로 묘사 • 붉은 외각선으로만 표현된 상의와 노란 계열의 커다란 식물패턴의 하의 • 전체적인 낮은 채도의 거친 갱지의 질감을 가진 푸른 배경
	문 자	
대상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음이 무엇일까?’ 몰입된 소녀의 이미지 • 내면의 질문을 얻고자 수행할 때 자세, 명상하는 듯한 소녀의 편안하고 안정된 자세 • 가로로 눕혀진 소녀의 변형된 이미지의 구도와 정상적 배치를 한 문자 텍스트 	
해석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중부양을 한 듯한 신비스러움과 환상적인 느낌이 감도는 소녀의 명상 장면 • 마음이 무엇일까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에 대한 외형적 자세의 이미지 • 마음을 찾는다는 것은 고요하게 움직이는 것을 멈추고 집중하는 것 	

표 27. 『마음의 집』 삼분법적 의미 작용 분석-프레임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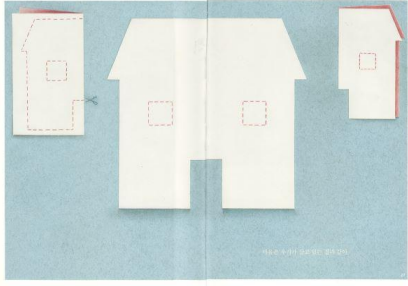
프레임 16		본문
표상체	이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얀색 종이 접기 실선이 표시된 종이집 3개와 가위 • 중앙의 큰 집과 좌우의 접은 작은 집 (붉은색 얇고 가는 선으로 실선을 묘사) • 좌우의 접혀진 뒷면의 종이 색감은 붉은색으로 입체감을 줌 • 배경의 비중은 작고 낮은 채도의 거친 갱지의 질감을 가진 푸른 배경
	문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집과 같아.
대상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집과 같은 대상 • 종이 접기 모양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의 가장 단순한 이미지를 차용 • 실선은 종이를 잘라 집의 형태로 만들라고 단순화되고 작은 가위 아이콘 	
해석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은 가위 아이콘은 마음의 집으로 향하는 동적인 움직임을 유도하는 지시적 이미지 • 무겁고 커다란 집이라는 대상의 물성을 축소시키고 변화시키는 상상력 • 마음의 집은 가볍고 쉬운 종이 접기 같아 우리 마음대로 그리고 만들 수 있다 	

표 28. 『마음의 집』 삼분법적 의미 작용 분석-프레임 17

프레임 17		본문
표상체	이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하학적인 사각형들과 패턴 (낮은 채도와) • 오른쪽 페이지의 작은 사각형에 보이는 하늘의 형상 • 전체적인 낮은 채도의 거친 갱지의 질감을 가진 푸른 배경
	문 자	
대상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면에서 두 개의 시점이 중첩 • 집의 외벽, 마루, 창문, 천장 등... 주택 자체에서 나타나는 질감과 패턴의 사각형들의 중첩 • 두께감이 없는 사각형의 이미지를 집의 형상으로 시각화 • 욕심쟁이, 고집쟁이, 변덕쟁이의 소유주가 취하는 선택, 집과 소유주의 성격적 관계성 	
해석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하학적이고 추상적인 집의 틀 구조로 집을 시각화함 • 천장 창문에 뜬 듯한 아주 작고 멀리 보이는 사실적 하늘은 이질적인 생소함 • 큰 틀과 공간을 가진 집의 구조는 우리의 외적 몸을 상징하고 그 안에 은밀한 마음을 하늘로 대비 	

표 29. 『마음의 집』 삼분법적 의미 작용 분석-프레임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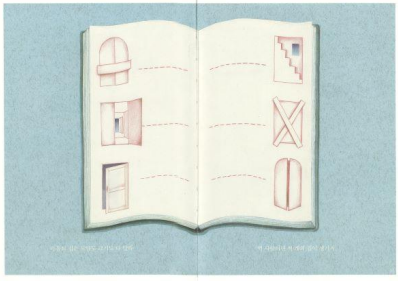
프레임 18		본문
표상체	이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에 배치된 커다란 펼쳐진 책의 이미지 • 붉은 선으로 집의 창문과 계단 등... 단순한 아이콘형식의 이미지가 6개 좌우로 배치 • 좌우 페이지에 정렬로 늘어선 이미지의 중앙에 붉은 색 실선이 그려짐
	문자	
대상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 사람이 가진 집 들이 모양도 크기도 다르듯이 마음도 그와 같다는 설명 • 그림책 『마음의 집』이 펼쳐진 면에서 펼쳐진 책의 이미지가 묘사됨 • 6개의 이미지는 닫히거나 열리거나 막혀 있는 연결 	
해석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 사람과 백 개의 집은 모양도 크기도 다른 다양한 마음을 상징 • 문' 은 내적인 거와 외적인 거를 연결하는 상징체, 다양한 상태에 있는 내적 상황을 시각화 • 펼쳐진 책은 우리의 감추어진 내면을 표상 	

표 30. 『마음의 집』 삼분법적 의미 작용 분석-프레임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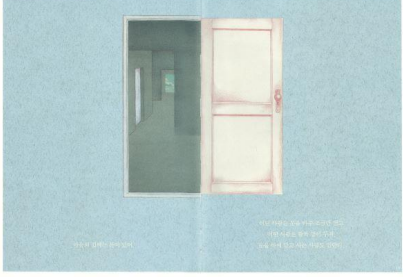
프레임 19		본문
표상체	이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에 집으로 들어가는 활짝 열린 문과 그 문에서 보이는 집안 내부의 정경 • 붉은색 외각선으로 밝은 채색 문의 묘사와 대조를 이루는 어둡고 캄캄한 실내 공간 • 어둡고 캄캄한 실내 공간을 따라 저 끝에 관통해 보이는 외부 하늘의 풍경을 묘사 • 낮은 채도의 거친 갱지의 질감을 가진 푸른 배경
	문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음의 집에는 문이 있어. 어떤 사람은 문을 아주 조금만 열고 어떤 사람은 활짝 열어 두지. 문을 아예 닫고 사는 사람도 있단다.
대상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음의 집에는 문이 있고 그 문을 들여다볼 때의 이미지를 시각화 • 중앙에 배치된 두 개의 직사각형은 대립된 이미지며, 그중 내부의 다양한 이미지(방문, 실내 공간) • 평면적이고 단순한 배경과 열린 문에서 보는 실내의 3차원적인 공간감으로 대비를 이룸 	
해석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짝 열려진 사람의 마음에도 어둠과 밝음이 공존하고 더 깊은 곳에는 신비한 무엇이 있음 • 마음은 그냥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문을 통해 열어야 만 볼 수 있음을 상징 • 사람들마다 마음을 개방하는 다양한 상태를 이야기함 	

표 31. 『마음의 집』 삼분법적 의미 작용 분석-프레임 20

프레임 20		본문
표상체	이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적으로 펼쳐진 커다란 병풍 모양이 불규칙 새워진 것 같은 이미지 • 불규칙한 사각형들을 채도가 낮은 다양한 색채를 사용하여 통일감을 줌 • 각각의 다양한 각도, 패턴, 질감이 이어진 사각형들이 가로 배열로 좌우로 확장됨
	문자	
대상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량감이 없어 보이는 사각형들의 불규칙한 나열은 마음의 집에 방들을 시각화한 것 • 기하학적이고 반 추상적인, 다양한 마음의 방들이 열거됨 • 각각의 사각형 안의 패턴은 외벽의 느낌, 내벽의 느낌, 문과 창 의 이미지를 표출함 	
해석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좁은 방과 작은 방 다양한 마음의 방들을 화면 가득히 기하학적이고 은유적으로 배열 • 절단된 작은 사각형 이미지는 창과 문의 이미지를 반영 • 실질적인 인간의 동선으로 내적인 마음의 열림 정도를 빗대어 설명 	

표 32. 『마음의 집』 삼분법적 의미 작용 분석-프레임 21


프레임 21		본문
표상체	이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심에 세로 정렬로 배치된 창문(아래, 위 2개가 한 쌍인 4개의 정사각형 창문) • 상단 창문에서 보이는 이미지는 어둡고 흐린 날의 바깥 정경 • 하단 창문에서 보이는 이미지는 무지개가 떠 있는 밝은 바깥 정경
	문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음의 집에는 창문이 두 개 있어. 한 쪽에서는 매일 비가 내리고 다른 쪽에서는 매일 해가 쨍쨍해.
대상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음의 집에 있는 두 개의 풍경 • 흐린 날과 맑은 날에 대한 대립적 상황을 가시적으로 보여줌 • 한쪽과 또다른 한쪽으로 구별된 마음의 집의 감정적 상태 	
해석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면적인 ‘마음’ 비가시적 감정을 시각적인 기후의 가시적인 상태로 은유적으로 묘사 • 한마음에서 일어나는 두 가지 감정들에 대한 성찰 • 마음의 집의 감정적 상태는 창문이라는 객관적인 틀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음 	

표 33. 『마음의 집』 삼분법적 의미 작용 분석-프레임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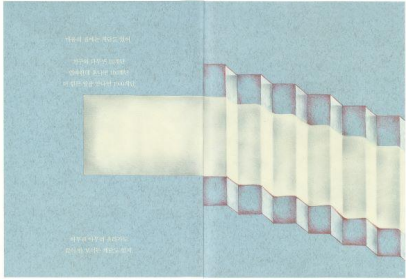
프레임 22		본문
표상체	이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푸른색 바닥 색을 바탕으로 붉은 외곽선과 흰색으로 명암을 조절한 계단의 표현 • 오른쪽 페이지에서 절단된 이미지 중간까지 연장 • 종이로 만든 것 같은 계단과 그 중앙을 덮은 하얀 카펫이 계단 아래까지 내려와 있음 • 전체적으로 가로로 누운 배열의 이미지, 중앙을 가로지르는 밝고 환한 색의 카펫
	문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음의 집에는 계단도 있어. 친구와 다투면 10계단 엄마한테 혼나면 100계단 더 힘든 일을 만나면 100계단 아무리 올라가도 끝이 안 보이는 계단도 있지.
대상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음의 집에 있는 계단은 하얀 카펫이 깔린 이미지 • 높이가 다른 곳으로 걸어서 움직일 때, 밟고 오르내릴 수 있도록 턱을 지어 만든 기능의 계단 • 수직적 공간이동을 돕는 계단이 가진 기능적 의미와 활동 범위를 마음속 감정의 폭으로 확장 	
해석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음의 상태는 올라가고 내려가며, 내적으로 느끼는 감정의 이동으로 표현함 • 마주하는 사건들은 마음의 게이지gauge에 따라 구별됨 • 감정과 그 힘든 정도는 어떤 일을 이루는 데에 밟아 거쳐야 할 순서나 차례 • 부유하고 있는 듯한 비현실적인 계단과 카펫의 배치는 신비롭고 환상적인 마음의 집을 시각화 	

표 34. 『마음의 집』 삼분법적 의미 작용 분석-프레임 23


프레임 23		본문
표상체	이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 • 밀가루를 반죽하는 어른의 손과 계란을 깨는 어린이의 손이 아래위로 대칭적으로 배열 • 마주하고 있는 듯한 두 사람의 손동작 방향이 중심을 향하고 있음 • 볶고 가는 선으로 두 사람이 마주한 손들을 사실적이고 정교하게 묘사
	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음의 집에는 부엌도 있단다.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을 멋지게 요리해서 다른 사람에게 주지만 요리가 영 서툰 사람도 있어.
대상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의 방향을 통해 마주보고 함께 조리하는 듯한 두 사람의 형상을 유추할 수 있도록 함 • 멋지게 요리하는 사람과 서툰 사람을 시각적 메시지로 묘사 • 독자의 시선을 대변하는 듯 과감히 압축된 손의 모습만으로 요리 과정을 묘사 	
해석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리하는 손들은 재료를 빚어 새로운 것들로 거듭나게 하는 절차를 상징 • 반죽하고 빚는 행위의 손은 연륜과 경험을 상징함 • 깨고 쪼개는 손은 감정을 나누고 표현하는 데 서툰 사람을 상징 	

표 35. 『마음의 집』 삼분법적 의미 작용 분석-프레임 24


프레임 24		본문
표상체	이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왼쪽 페이지에 둥근 형태의 버튼, 그 버튼을 가르키는 손 동작이 오른쪽 페이지에 묘사 • 붉고 가는 선으로 사실적인 손을 정교하게 묘사 • 낮은 채도의 거친 갱지의 질감을 가진 푸른 배경
	문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음의 집에는 화장실이 있어. • 친구가 미워질 때 질투하는 마음이 생길 때 잘난 척하고 싶을 때 싸우고 싶을 땐 변기 손잡이를 꼭 누르렴
대상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음의 집에 있는 화장실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둥근 버튼 이미지 • 생각에 잠긴 눈동자, 허공을 바로 보는 듯한 시선 • 소년의 쪽 뺨은 팔은 그림책의 가로 방향 중심으로 펼쳐져 있음 	
해석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둥근 버튼 이미지는 모난 마음을 흘려 버리고 정화시키는 표상의 아이콘 • 모든 부정적 감정이 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 • 변기 손잡이를 누르는 동적 요소와 감정이라는 내적인 정적 요소의 이항대립 	

표 36. 『마음의 집』 삼분법적 의미 작용 분석-프레임 25


프레임 25		본문
표상체	이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우 페이지에 각각 하나의 손바닥이 배치, 오른쪽 손바닥에는 연두빛 나비 한마리 • 붉고 가는 선으로 펼쳐진 손바닥면의 사실적인 묘사 • 전체적인 낮은 채도의 거친 갱지의 질감을 가진 푸른 배경
	문자	
대상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자가 본인의 손바닥을 내려다 보는 듯한 시점의 이미지 • 왼쪽 페이지의 손은 빈 손, 오른쪽 페이지의 손에는 나비가 앉아 있음 • 이 손에 있던 나비가 저 손으로 간 것 같은 문자텍스트의 암시 	
해석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살포시 앉아 있는 나비는 날아가 버린다는 반전의 메시지 • 상념의 표징 나비, 이 생각 저 생각을 붙잡아 둘 수 없는 거 같은 넘나드는 나비의 동선 • 유동성을 갖는 마음의 변화 	

표 37. 『마음의 집』 삼분법적 의미 작용 분석-프레임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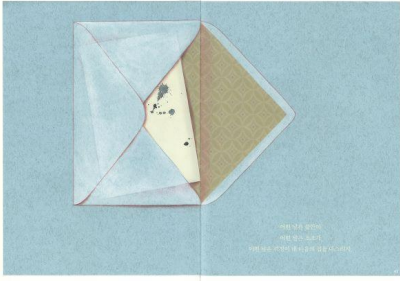
프레임 26		본문
표상체	이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래된 것 같은 정방형 카드 봉투의 이미지 • 카드봉투가 열려져 있고 그 안의 내지는 갈색무늬 패턴 • 열려진 봉투사이로 보이는 편지지에는 검은 잉크의 얼룩들이 있음 • 전체적인 낮은 채도의 거친 갱지의 질감을 가진 푸른 배경
	문자	
대상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시지를 전달하는 소통의 도구로서의 봉투에 불안, 초조, 걱정이 담겨 있다 • 열려진 편지 봉투, 그 안에 얼룩진 편지지가 보여짐 • 편지는 수신자와 발신자가 메시지를 주고받는 역할 	
해석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시지를 전달하는 소통의 도구로서의 봉투에 불안, 초조, 걱정이라는 얼룩이 묻어 있음 • 열려진 봉투는 이미 소식이 전달되었다는 메시지다 • 봉투의 색감은 오래된 듯한 채도 낮은 누런색과 푸른색으로 표현 	

표 38. 『마음의 집』 삼분법적 의미 작용 분석-프레임 27

프레임 27		본문
표상체	이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에 한 사람이 인형극 상자를 들고 독자를 바라보는 이미지 • 프레임 한 중앙의 인형극 상자에는 빈 침대가 실선으로 그려져 있음 • 인형극 상자 안 측면의 이미지는 하늘의 풍경 • 모든 이미지는 전체적으로 낮은 채도의 거친 갱지의 질감을 가진 푸른 계열
	문자	
대상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면을 주시하는 주인공은 마음을 열어 독자에게 보여주고 있는 포즈의 이미지 • 사랑하는 사람이 마음의 집 주인이 된다는 것을 시각화 • 주인공의 마음은 인형극 상자 속의 이미지 	
해석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붉은 실선으로 표시된 영역과 붉은 직선으로 표시된 영역은 상상과 현실의 경계를 상징 • 두 사람이 누울 수 있는 침대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교감, 편안함, 포근함, 은밀함 등을 상징 • 사랑하는 두 사람만이 함께할 공간에 대한 소망과 열망 	

표 39. 『마음의 집』 삼분법적 의미 작용 분석-프레임 28

프레임 28		본문
표상체	이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왼쪽 페이지에 화면 가득히 미색의 모눈종이에 벽돌무늬 이미지 • 왼쪽 페이지에서 나온 듯한 오른쪽 페이지의 작은 퍼즐조각 • 오른쪽 페이지의 상단 이미지에 바탕색보다 어둡고 탁한 그라데이션 • 전체적인 낮은 채도의 거친 갱지의 질감을 가진 푸른 배경
	문자	
대상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 마음의 집은 퍼즐게임 같은 이미지 • 오른쪽 페이지의 상단 이미지는 창밖으로 비가 올 때의 흐린 풍경 • 종이 위에 벽의 한 면(벽돌 무늬의 벽)을 마음의 집으로 묘사 	
해석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음의 방에 혼자 있을 때, 창밖으로 비가 올 때의 흐린 풍경 • 너의 마음을 알 수 없을 때의 느낌은 퍼즐 조각 맞추기 • 약해 보이는 종이 위에 벽돌무늬, 그 중앙에 뚫린 공간, 스러져가는 마음을 시각화 	


표 40. 『마음의 집』 삼분법적 의미 작용 분석-프레임 29

프레임 29		본문
표상체	이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하게 오려진 종이 인형들이 줄줄이 연결된 이미지 • 좌우 두 개의 종이 인형들이 손을 잡고 서 있는 듯한 자세 • 왼쪽 페이지의 중간 쪽 인형의 가슴 부위가 퍼즐조각처럼 비워져있음 • 낮은 채도의 거친 갱지의 질감을 가진 푸른 배경과 하얀색 종이 인형들
	문 자	
대상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이 인형의 가슴 부위에 벽돌을 연상케 하는 무늬 이미지 • 다른 많은 마음들과 잃어버린 마음 • 인형들은 쪽 뺀 팔과 붙은 다리로 그림책의 가로 방향 중심으로 펼쳐져 있음 	
해석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로의 메시지 • 다른 많은 마음들의 연대가 소외 되지 않은 소속감을 가지게 함 • 남과 다른 사람도 모두 함께 차별되지 않고 다양성이 인정됨 	

표 41. 『마음의 집』 삼분법적 의미 작용 분석-프레임 30

프레임 30		본문
표상체	이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왼쪽 페이지에서 연장된 커다란 손의 이미지 • 붉고 가는 선으로 손의 바닥면을 사실적이고 정교하게 묘사 • 왼쪽 페이지에서 보이는 올리브그린색의 소매단 • 전체적인 낮은 채도의 거친 갠지의 질감을 가진 푸른 배경
	문 자	
대상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밀어 뻗은, 악수를 청하는 듯한 단정한 손의 이미지 • 생각에 잠긴 눈동자, 허공을 바로 보는 듯한 시선 • 소년의 쪽 뻗은 팔은 그림책의 가로 방향 중심으로 펼쳐져 있음 	
해석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을 건네며 도와주겠다고 적극적으로 청하는 따뜻한 마음의 상징 • 악수의 메시지는 화해, 기다림, 약속, 반가움, 인사 등등의 의미를 지님 • 한결같은 신뢰와 온전한 사랑을 상징 	

표 42. 『마음의 집』 삼분법적 의미 작용 분석-프레임 31

프레임 31		본문
표상체	이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왼쪽 페이지는 세로로 MAUM 절단된 이미지 • 왼쪽 페이지의 배경은 낮은 채도의 거친 갱지의 질감을 가진 푸른색 • 오른쪽 페이지는 아무런 이미지가 없음
	문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UM
대상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음의 이미지 • 왼쪽 페이지의 'MAUM' 절단된 이미지는 오른쪽에 반사됨 • 오른쪽 페이지는 거울을 연상케 하는 특수 재질의 반사종이 	
해석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음은 비춰지는 거울 • 데칼코마니기법처럼 서로 포개져서 쌍둥이처럼 존재 • 불완전함을 완전함으로 승화시킬 수 있음 	

3.5. 『마음의 집』의 기호학적 분석 결과

철학적 그림책 『마음의 집』의 기호학적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철학적 그림책을 기호학적 연구에 활용할 때 다른 그림책과는 차별화된 함축적이고 상징성이 있는 양질의 그림책을 선정하였다. 이보나 호미 엘레프스카가 그림을 그리고 김희경이 글을 쓴 철학적 그림책인 『마음의 집』은 2010년 출판되었고 그 해 볼로냐 라가치 논픽션 부문 대상¹³⁴⁾을 수상한 작품으로서 국내외에서 인정받은, 국내 출판사에서 제작한 그림책이다. 현재, 연령을 초월한 많은 독자들에게 관심을 받으며, 국내외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작가의 작품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그림책의 7유형 분석’은 먼저 그림책이 묶음으로 이루어졌는지 낱장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구별하는데 『마음의 집』은 하나의 묶음으로 만들어진 그림책이다.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이 외형적 형태로서 하나로 통일된 연속성을 지니지만 주인공도 순차적인 일정이나 사건,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비연대기적 통합체이며, 마음이라는 통일된 커다란 주제로 이끌어간다. 개별적인 프레임에서 각기 다른 단상들로 변화를 주어 각각의 차별되는 소재들로 교차 없이 마음이라는 단상을 묘사한 그림책이다. 이러한 특징은 ‘그림책의 7유형 분석’의 세 번째 유형인 ‘괄호연결통합체’로 분류된다. ‘그림책의 7유형 분석’으로 철학적 그림책들을 구분해 본 결과, 각각의 그림책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였다. 철학적 그림책은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적이고 구조적인 통합체적 특성보다 그 속에 담긴 인간 삶에 대한

134) 2011년 한국 최초 라가치 대상 수상작, 아동도서전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볼로냐 국제아동도서전에서 수여하는 라가치상 논픽션 부문 대상을 받았다.
http://book.interpark.com/product/BookDisplay.do?_method=detail&sc.shopNo=0000400000&sc.prdNo=204222024&sc.saNo=003002001&bid1=search&bid2=product&bid3=title&bid4=001, 2019.03.15

사유와 성찰의 메시지가 특징적 요소이기 때문에 원하는 유형을 찾아 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철학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림책 또한 다채로운 형식으로 표현되고 제작될 수 있다.

셋째, 기호학은 두 가지 흐름을 가지고 연구되어 왔는데 그중 하나인 구조주의의 언어적 기호 체계인 통합체와 계열체 방식으로 그림책인 『마음의 집』을 전체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활용하였다. 통합체와 계열체 분석표(표 9)를 만들어 정리하면서, 통합체 분석으로 구간별(시퀀스)로 분할하여 전체적인 사유의 진행, 연결 과정들을 찾아낼 수 있었다. 또 계열체 분석으로 이항대립적 요소들을 찾아 문장 안에서의 갈등과 대립 요소를 분석하였다.

넷째, 언어적 기호 체계인 통합체와 계열체 방식과 차별하여 그림책 『마음의 집』을 ‘프레임 33(전체 페이지)’으로 구분하여 비언어적 분석 체계인 ‘삼분법’으로 분석하였다. 그림책을 주변 텍스트와 본문 텍스트로 나누어 분석하고, 각 프레임 33개를 삼분법의 표 8에 대입하여 ‘표상체’, ‘대상체’, ‘해석체’로 세부적이고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 과정은 개인적인 경험과 능력에 따라 더 많은 해석체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편차가 생길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삼분법적의 틀은 누구에게나 더 많은 감성적, 철학적, 그림책 읽기 영역 등을 확장시켜주며 상상력, 창조력, 집중력을 키울 수 있는 긍정적인 도구가 될 수 있었다.

다층적이고 다의적인 철학적 그림책 『마음의 집』을 분석하면서 그림책의 전체적이고 커다란 흐름과 동선을 탐색하고, 세부적이고 함축적인 분석을 단계적으로 진행했다. 예술성과 작품성을 지닌 현대 그림책에서 나타나는 추상적이고 심층적인 철학적 그림책을 분석할 때 기호학적의 장점들을 활용한 접근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V. 철학적 그림책 제작

1. 철학적 그림책 『어떤 선물』 작품 연구

2019년 4월부터 전국 모든 대형 마트와 백화점, 대형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와 쇼핑백의 무상 제공은 물론이고 유상 판매까지 원천 금지된다.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번 달부터 위반 업체에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혁신으로 불리던 플라스틱의 개발로 비닐봉지 페트병 등 흥청망청 써서 버렸던 편리하고 유익한 대체재가 지구를 위협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 인간이 젊고 부유했던 시절에 자신의 삶을 소모하듯이, 인류는 문명의 개발과 발전이라는 명목 하에 너무나 많은 것을 방탕하게 소진하고 훼손하며 살았다. 인간은 육체와 정신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육체는 태어나서 개인적인 편차가 크지만 대체적인 수명이, 길게 잡아도 100년 전후인 유한한 존재다. 인간의 육체뿐만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물질로서 존재한다. 이러한 물질성을 가진 대상은 길게 혹은 짧게 모두 유한성을 가지고 존재하다가 소멸한다. 물과 공기, 동식물과 같은 자연적인 것은 물론이고 사람으로서 태어나고 가족을 이루고 협력해서 사는 관계와 공간도 모두 유한성을 가진다. 그러나 우리는 이 순간이 지속될 것 같다는 착각을 하거나 적어도 내일까지는 유한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간다. 오랫동안 주변에 존재했던 일상적인 것들에 대하여, 더더욱 그 가치나 본질의 의미를 확대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된다.

본인의 그림책 『어떤 선물』은 봉투, 봉지, 쇼핑백, 자루 등의 통일된 소재를 바탕으로 반 구상적 형태의 이미지와 철학적 메시지를 텍스트로 삼아, 만들어진 그림책이다. 이 그림책에서 등장하는 봉투들은 일상적으로 상점,

마트에서 누구나 주고, 받는 과정에서 쓰이는 평범한 것들이다. 실생활에서 빈번히 유용하게 사용되나 가치 없이 느껴지는 소모품들이다. 화려하고 특이한, 그럴 듯한 봉투가 아니라 누구나 매일 사용했거나 사용되는 것들, 주변 공간의 어느 구석에 굴러다닐 듯, 흔하고 흔한 것들이다. 인간을 비롯한 모든 자연과 사물들은 구체적 형태를 갖고 있는데, 이러한 외형적이고 가시적인 각각의 형태는 그 대상을 구별 짓게 하지만 그 본질을 꿰뚫어 그 고유의 속성을 온전히 드러내 반영하지 못한다. 그림책 『어떤 선물』에서는 봉투라는 외형적 틀에 우리가 갖고 있거나 받았던 ‘선물’들의 소중한 가치들을 되새겨 담아내고자 하였다. 봉투는 물질적 유한성을 지닌, 모든 사물의 껍데기를 표현한다. 이는 인간에게는 육체, 동물에게는 가죽, 물건에게는 포장지로 묘사될 수 있는 것들이다. 이렇게 사물은 껍데기 없이 존재하지 못하고 그러한 우리의 육체, 인지되는 사물, 환경은 이렇게 물질적인 존재로서 외형적인 형태 없이는 존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러한 외형적 형태는 본질과 정신을 반영하지 못하고 그 내적 의미를 온전히 드러내지 못한다. 여기서 표현하고자 하는 봉투도 이러한 표피적인 것들을 대변한다. 『어떤 선물』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거저 받은 거’라고 생각하며 그 안에 깃든 본질에 대한 단상을 이미지화한다. 특별한 어떤 것들이 아니고 평범하고 고유한 우리의 소중한 무엇들을 담고 있다. 본질을 꽤 뚫어보고자 하는 것 즉 정신이나 마음을 찾아가는 철학적 사유와 성찰은 우리의 유한한 삶의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어떤 선물』에 수록된 문장들은 성경을 통해 얻은 감동과 영감에 영향을 받은 삶의 단상들이다. 우리는 많은 생각과 깨달음으로 살아가지만 그것들을 기록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소수의 사람에 의해 실체화되는 것을 예술이라고 말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장르나 형태로 다양하고 풍요롭게 표현된다. 예술 작업의 시작은 지극히 개인적 경험이나 생각에서 출발하지만 한 작가의 작업은 그 시대의 정신과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

하며, 타인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그러한 공감은 감동과 위로 나아가 변화와 자각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나아가 위대한 작품들은 시대를 초월하는 힘을 지니며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친다. 유한성에 대한 인식과 자각은 주어진 시간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그림책 『어떤 선물』에서는 봉투라는 외형적 틀에 우리가 갖고 있거나 받았던 ‘선물’들의 소중한 가치들을 되새겨 담고자 했다. 『어떤 선물』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거저 받은 거’라고 생각하며 그 안에 깃든 감사에 대한 사유를 형상화한다. 우리는 일상적이고 평범한 삶이 얼마나 소중한 감사한 일인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 가치 없이 생각하는 봉투 같은 소모품은 이러한 우리의 평범한 삶의 상징체이며 봉투 안의 이미지들은 소중한 ‘어떤 선물’을 담고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유한한 것임을 안다면 누리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질 것이다. 『어떤 선물』에 수록된 문장들은 성경을 통해 얻은 감동과 영감에 영향을 받은 삶의 단상들이다. 20년 이상 ‘가톨릭성서’ 공부를 하면서 느낀 감동과 지혜를 담아내고자 하였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면서 성장한 신앙 체험을 바탕으로 삶의 철학을 이야기한다. 성경은 가장 오랜 된 철학책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특정종교의 경전으로서가 아니라 시대를 초월한 보편적 인간의 삶 속에서 행하여야 할 윤리, 사랑, 믿음 등의 많은 지혜를 다루고 있다. 이 그림책에서도 성경이 다루고 있는 삶의 철학을 다루고 있다. 작가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찰한 단상들을 엮어 그림책을 만들었다. 우리가 거저 얻어 누리는 많은 혜택과 은총들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길 바라는 마음과 그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들인가를 깨달으면서 현재를 살아가기를 바라는 메시지를 담아 제작하였다.

2. 『어떤 선물』의 기호학적 분석

2.1 『어떤 선물』 그림책의 7유형 분석

그림책을 제작하기에 앞서 어떠한 그림책의 유형으로 작업을 진행할지 검토하였다. ‘그림책의 7유형 분석’ 중의 한 유형을 선택하여 그림책을 제작함에 있어 『어떤 선물』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살펴보았다. 첫째, 낱장 텍스트가 아니고 하나의 묶음으로 이루어진 보편적인 책의 형태를 취한다. 불연속 단일 텍스트에서는 아니고 연속된 텍스트의 범주에서 시작된다. 둘째, 『어떤 선물』은 사건, 주인공, 순차적인 전개도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선물』은 시간과 사건의 흐름을 따르는 그림책이 아니므로 연대기적 통합체에서 제외된다. 『어떤 선물』의 텍스트는 성경을 읽고 느낀 감동과 지혜를 목상한 문장들이다. 이미지는 봉투라는 통일된 콘셉트를 가지고 이어지지만 스토리의 연계성은 없다. 이러한 두 가지의 특징은 ‘그림책의 7유형 분석’ 중의 비연대기적 통합체의 형식이다. 페이지마다 독자적인 하나의 스토리를 가지고 철학적 메시지를 건네지만 통합되는 이어짐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어느 페이지를 펴서 읽어보아도 무방하게 지혜와 사랑을 성찰한 문장이며, 이러한 단상들이 철학적 메시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이러한 비연대기적 통합체로서의 그림책 『어떤 선물』은 두 번째 유형인 평행통합체와 세 번째 유형 괄호연결통합체로 나누어진다. ‘그림책의 7유형 분석’에서 평행통합체와 괄호연결통합체를 판별하기 위해 계열별로 서로 반복적이고 섞인 이미지와 문자들의 체계적인 교차가 있느냐 없느냐에 구분된다. 마지막 『어떤 선물』의 특징으로 통합체적 기호(개별 프레임)의 교차나 반복이 없다는 점이다. ‘그림책의 7유형 분석’의 세 번째 유형인 괄호연결통합체는 계열별로 서로 반복적이고 섞인 문장과 이미지들의

체계적인 교차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관별된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어떤 선물』은 각기 다른 단상들로 그 심도를 달리하여 각각의 개별적인 프레임과 소재로 교차 없이 만들어진 책이기 때문에 비연대기적 통합체로서 세 번째 유형인 팔호연결통합체로 구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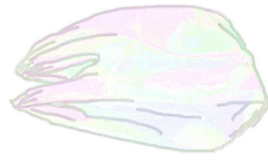


그림 21. 『어떤 신물』 프레임1



그림 22. 『어떤 선물』 프레임 2

어떤 선물



그림책에 등장하는 물부는 일상에서 자주 접하고 몸집적으로
유한성을 지닌 모든 사물이나 사람의 외형을 표현한다

우리는 매일 이런 물부에 마음과 사랑을 담아 서로에게 건넨다

그림 23. 『어떤 선물』 프레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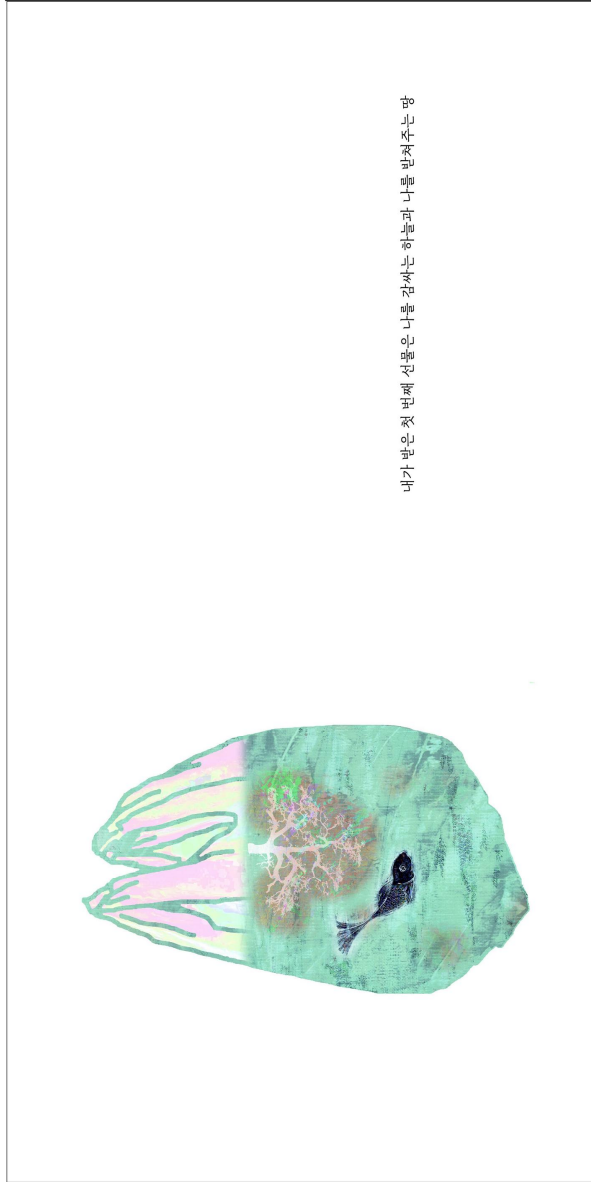


그림 24. 『어떤 선물』 프레임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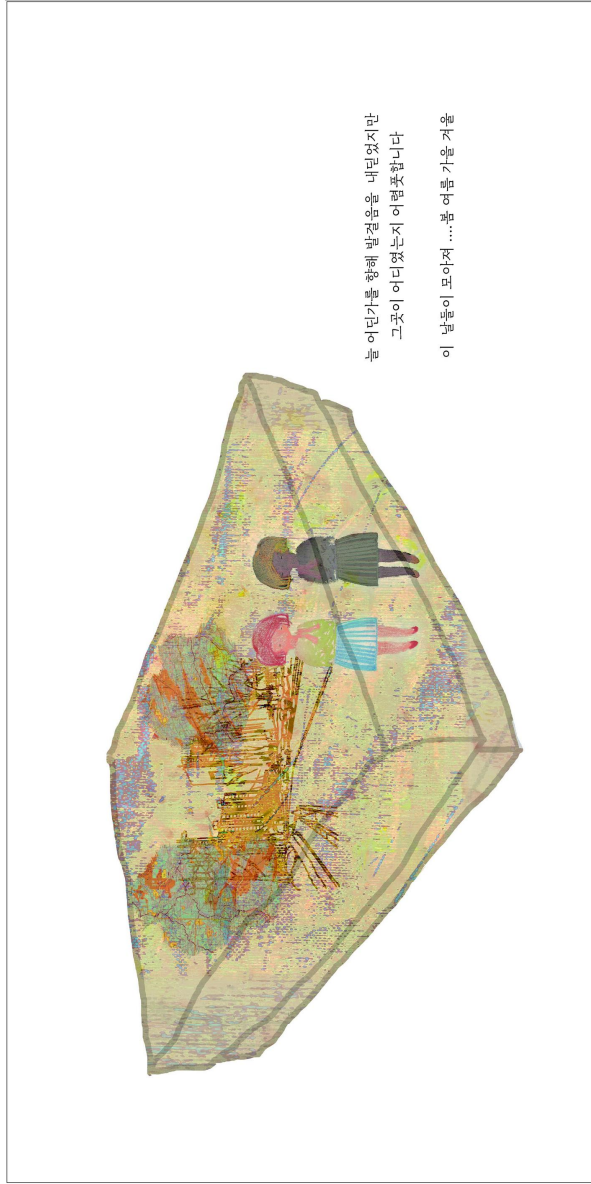


그림 25. 『어떤 선물』 프레임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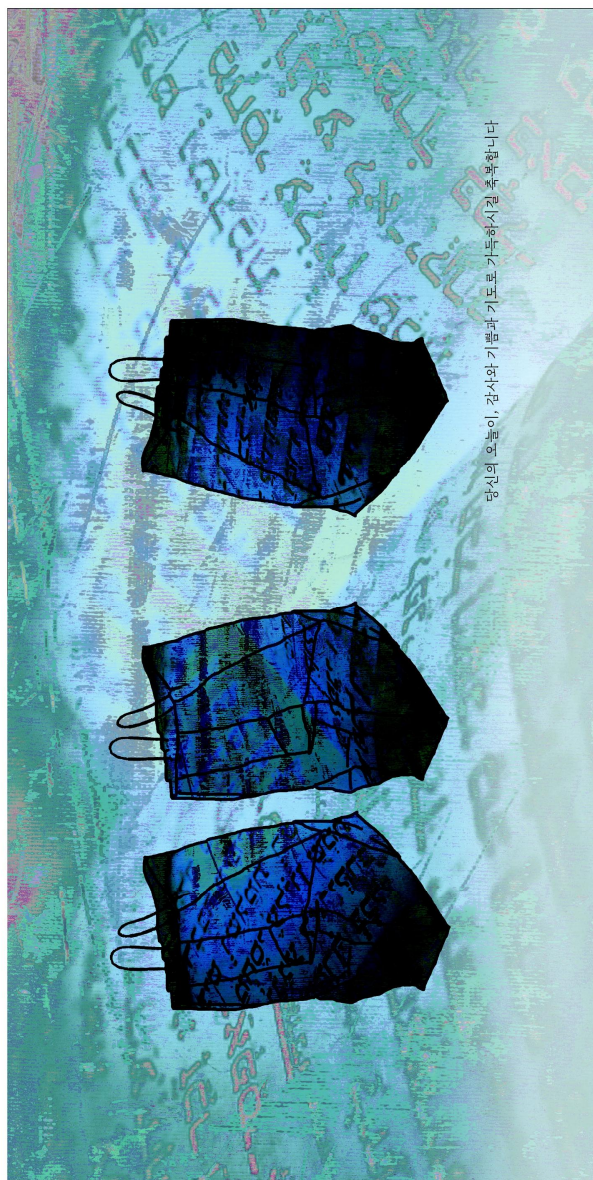


그림 26. 『어떤 선물』 프레임 6



그 날, 오래도록 기다렸던 것들이 도착했습니다
그 기억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쉼없이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림 27. 『어떤 신물』 프레임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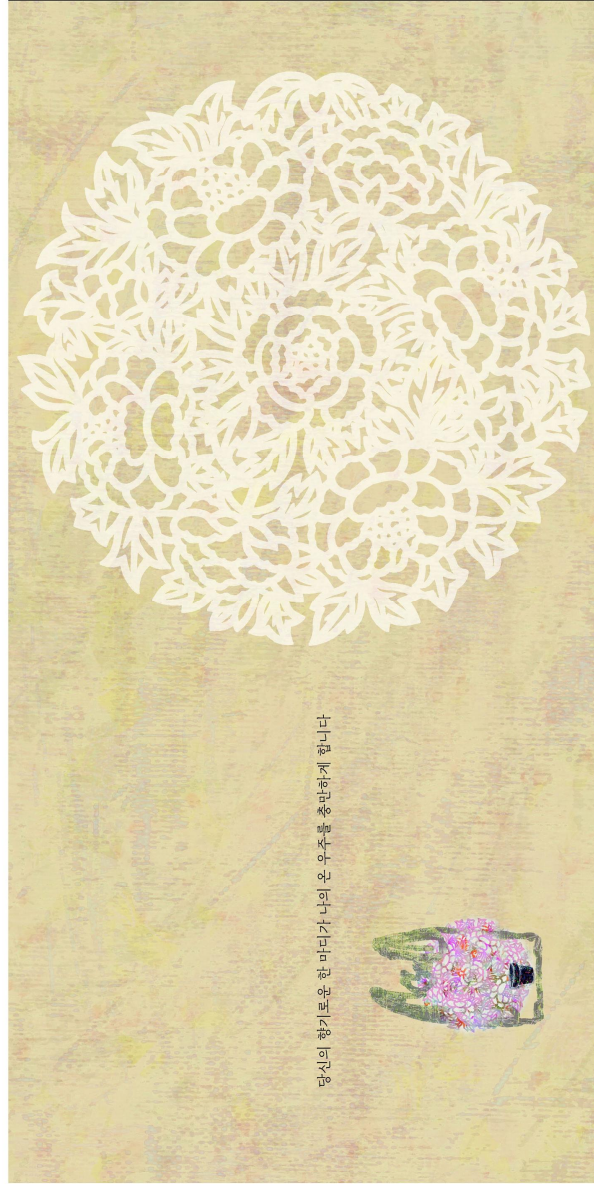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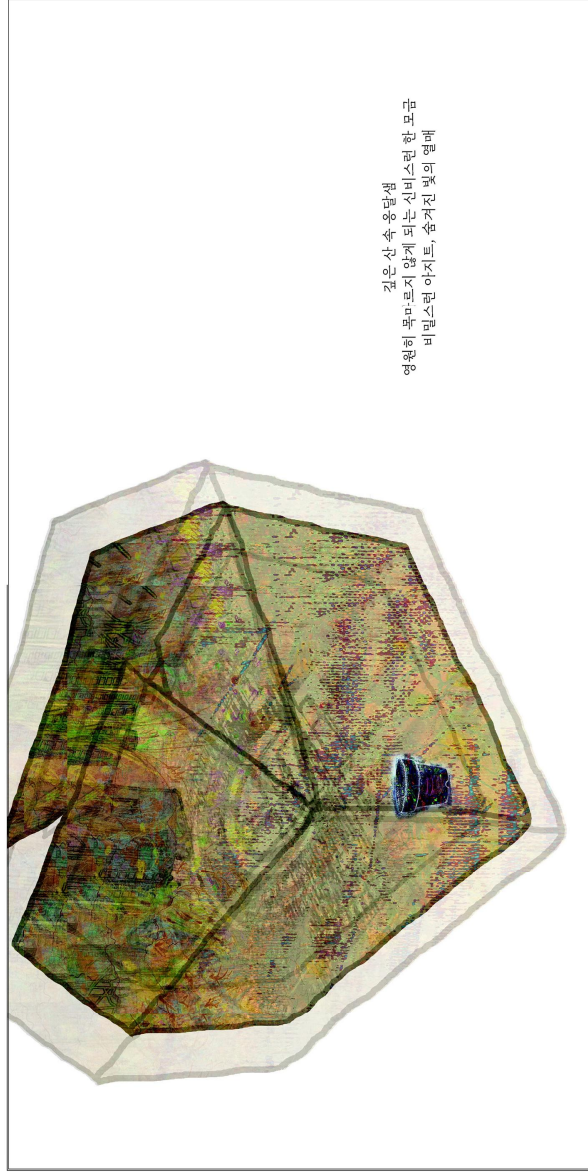


그림 28. 『어떤 선물』 프레임 8



깊은 산 속 울림새
영원히 품안르지 않게 되는 신비스런 환모금
비밀스런 아서드, 물거진 빛의 열매

그림 29. 『이편 선물』 프레임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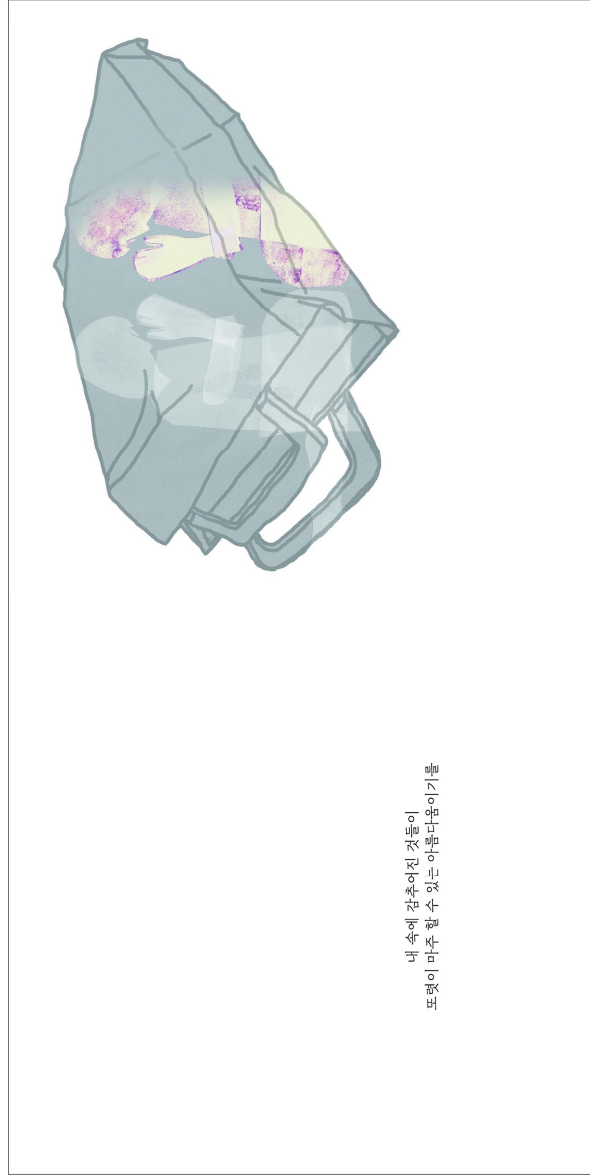


그림 30. 『어떤 선물』 프레임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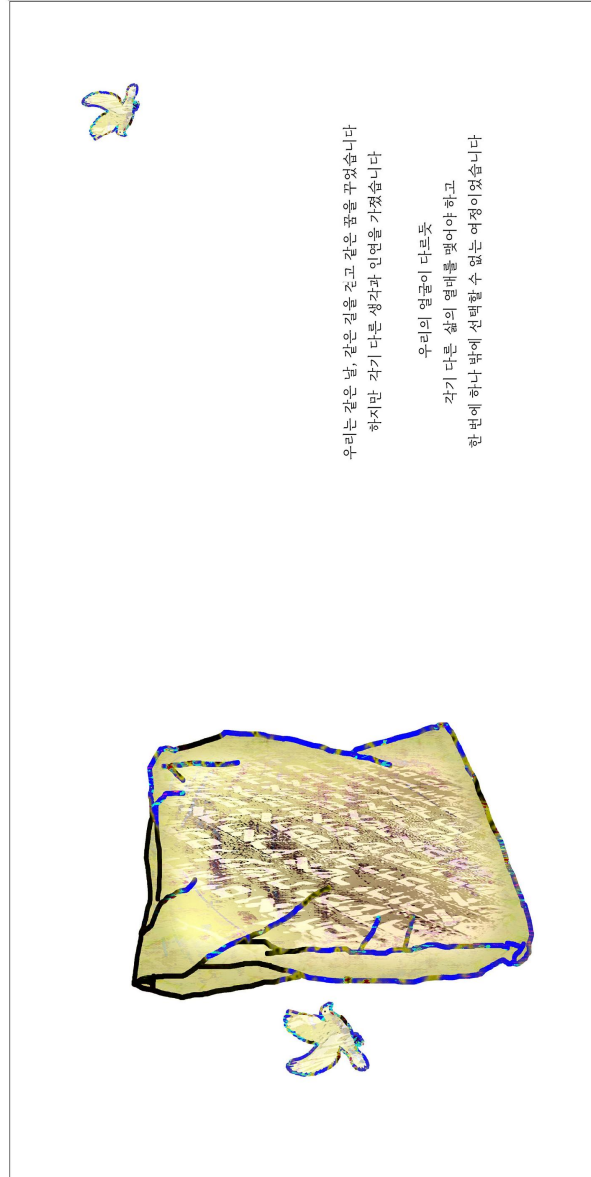


그림 31. 『어떤 선물』 프레임 II



그림 32. 『어떤 선물』 프레임 12

헤아릴 수 없이 많았던 배려, 인내, 친절
나를 위한 사람들의 몸짓들.... 스쳐 사라진 희생의 조각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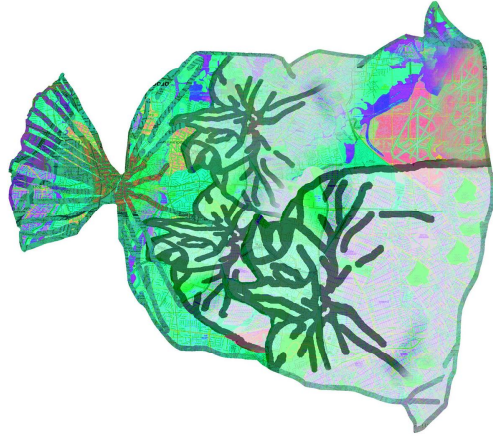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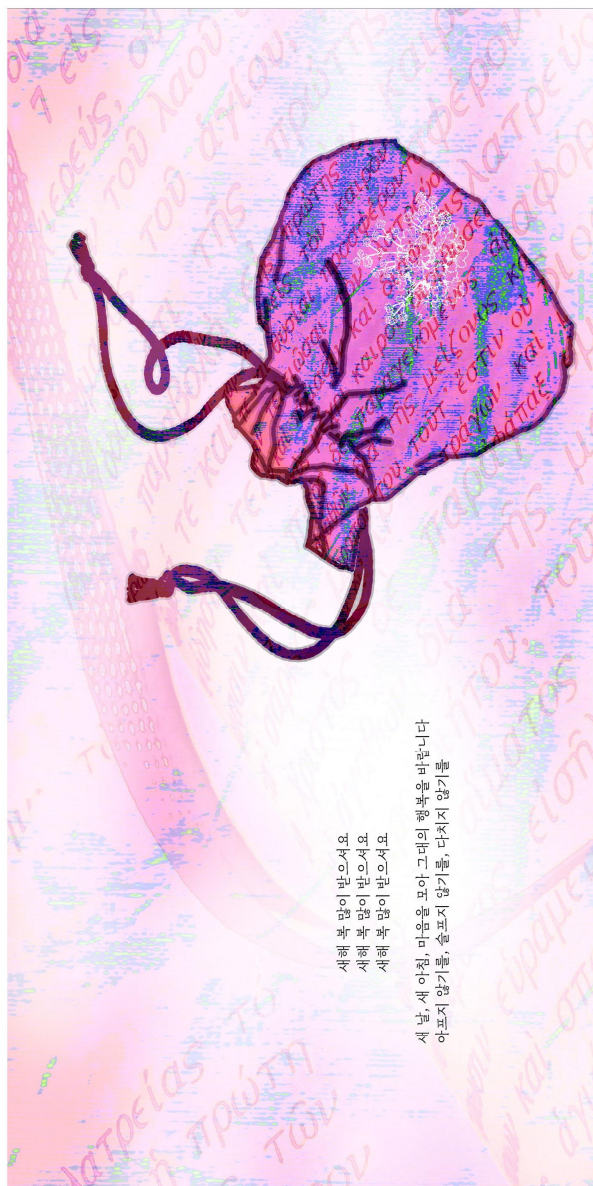


그림 33. 『어떤 선물』 프레임 13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 날, 새 아침, 미운을 모아 그대의 행복을 바랍니니다
 아프지 않기를, 슬프지 않기를, 다치지 않기를

그림 34. 『어떤 선물』 프레임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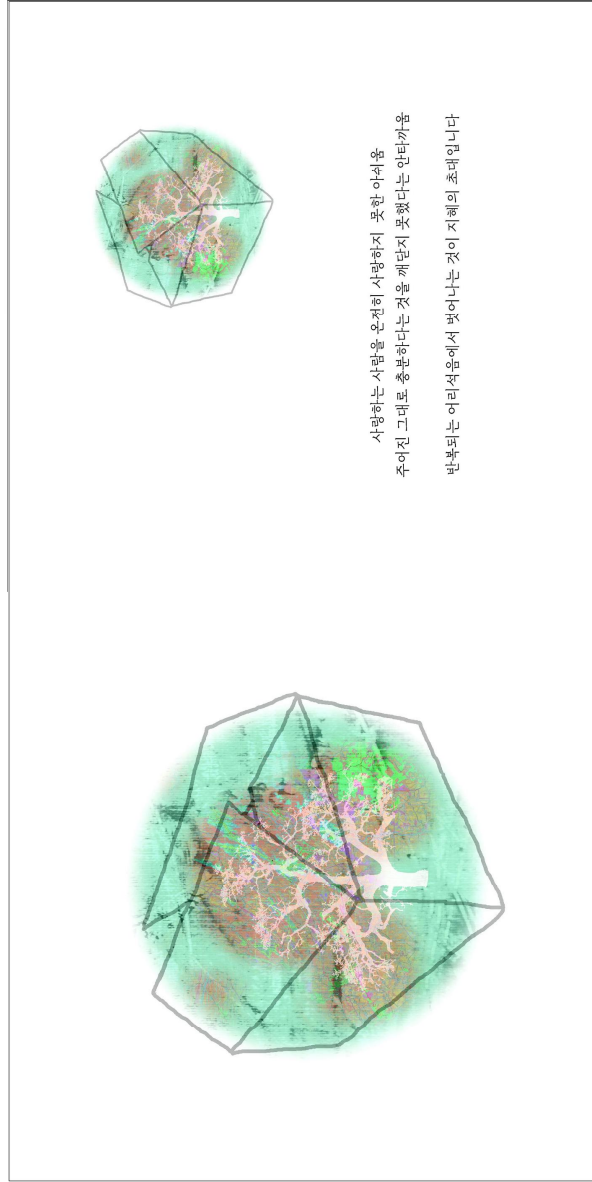


그림 35. 『어떤 선물』 프레임 15

흔들과 슬픔으로 가득한 날에도
보살피 주시던 그 날의 인물이 새겨져, 감사의 길로 이끌어 줍니다



그림 36. 『어떤 신물』 프레임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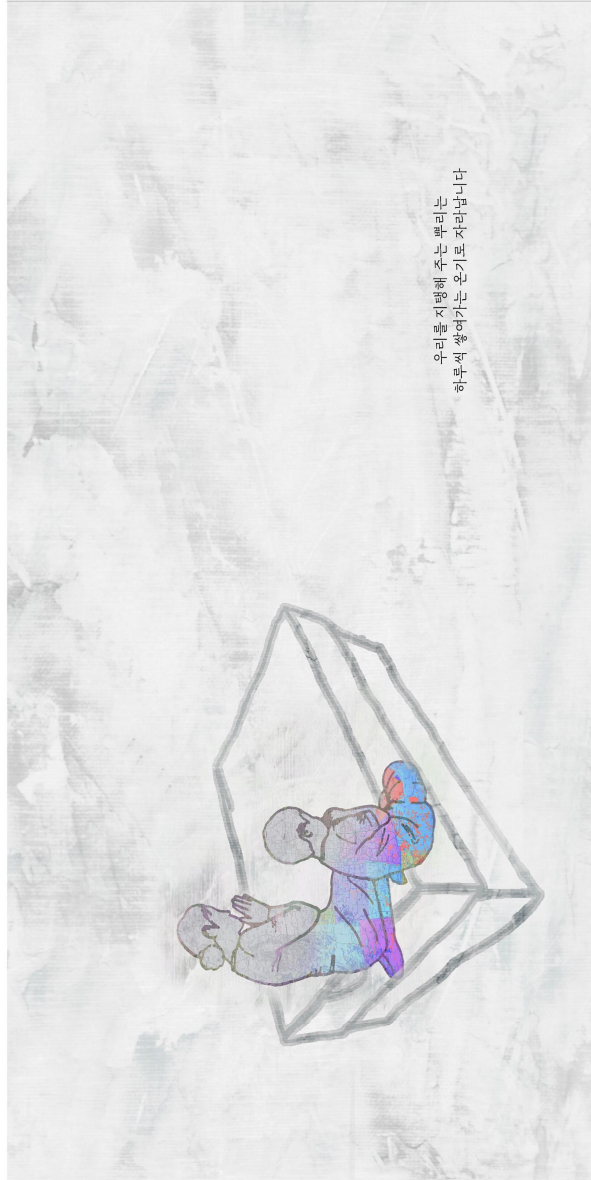


그림 37. 『어떤 선물』 프레임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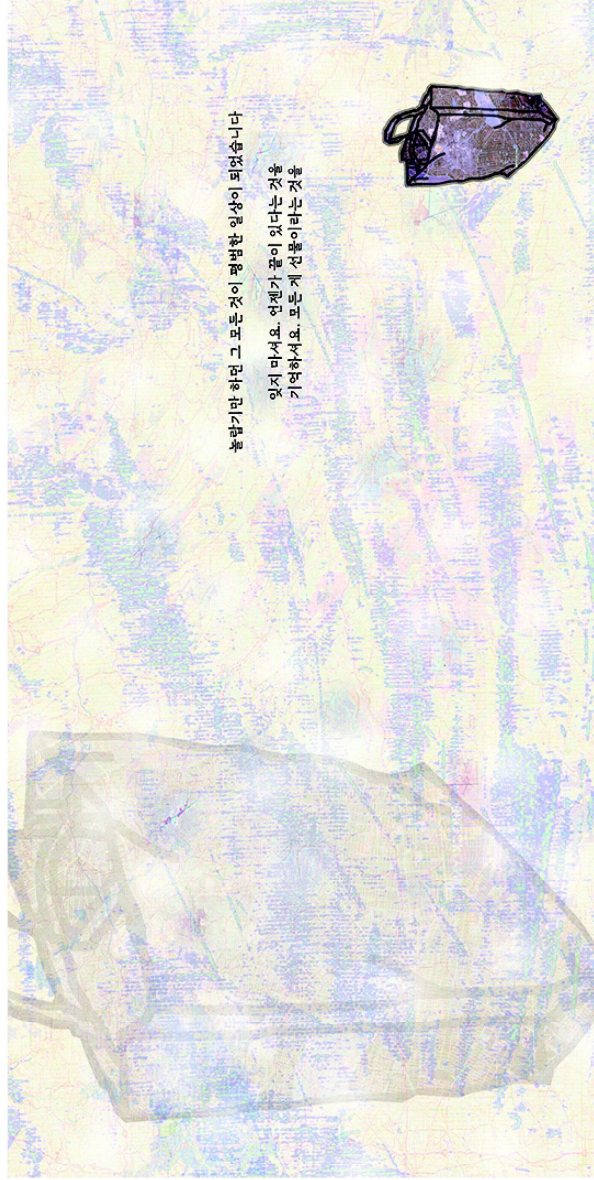


그림 38. 『어떤 선물』 프레임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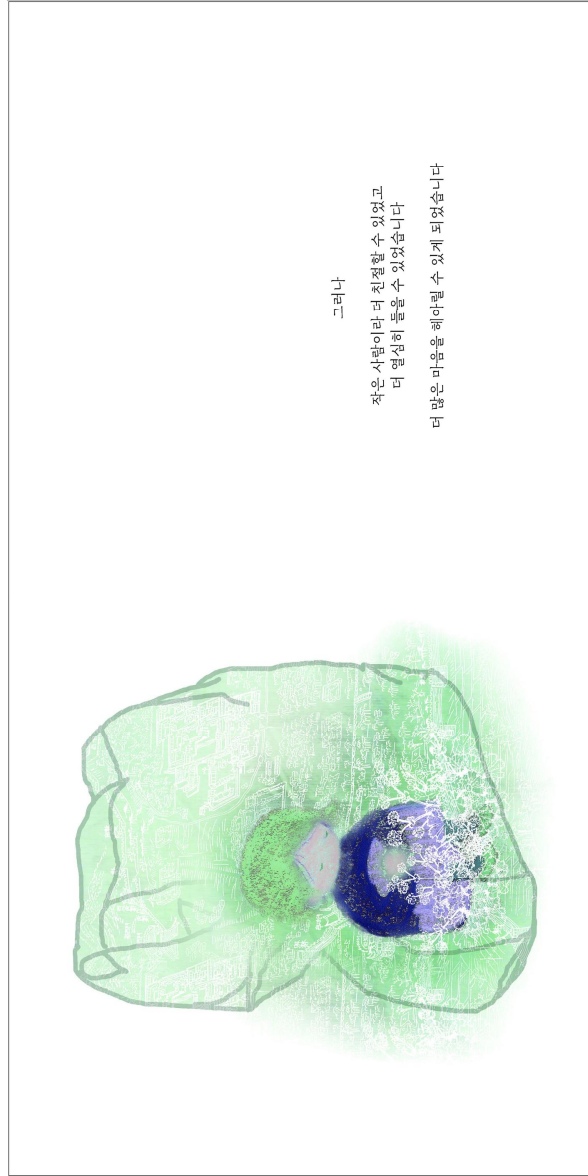


그림 39. 『어떤 선물』 프레임 19

긴 겨울이 지나고 봄 소풍을 갑니다
설레임이 가득한 그 길이 싱그럽고 활기합니다
또 다른 추억이 기다리지만 오늘은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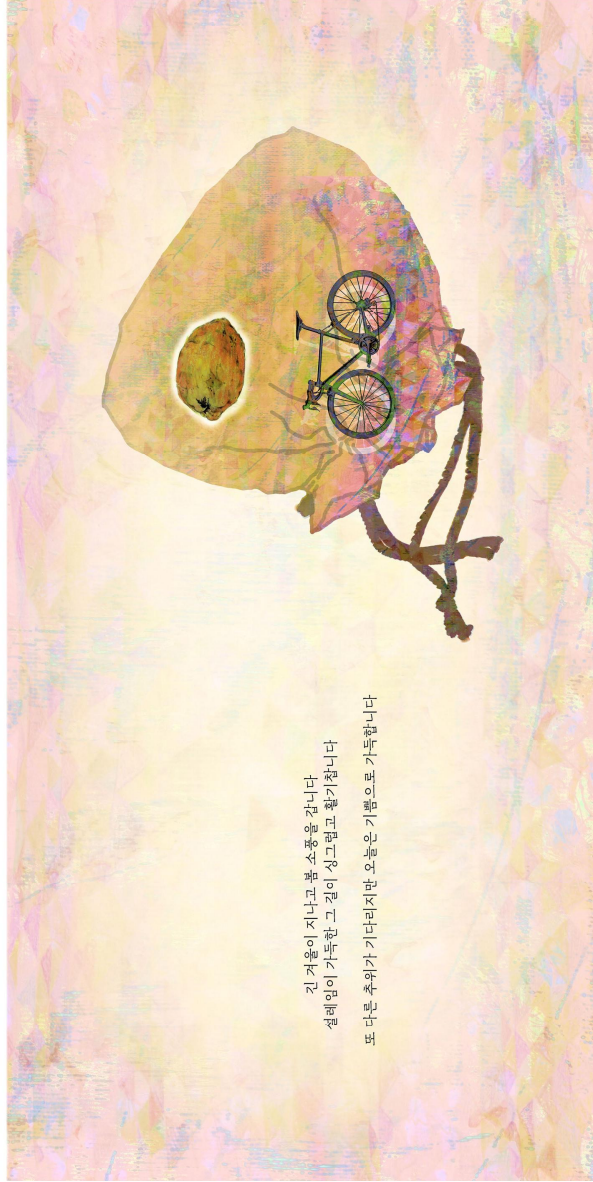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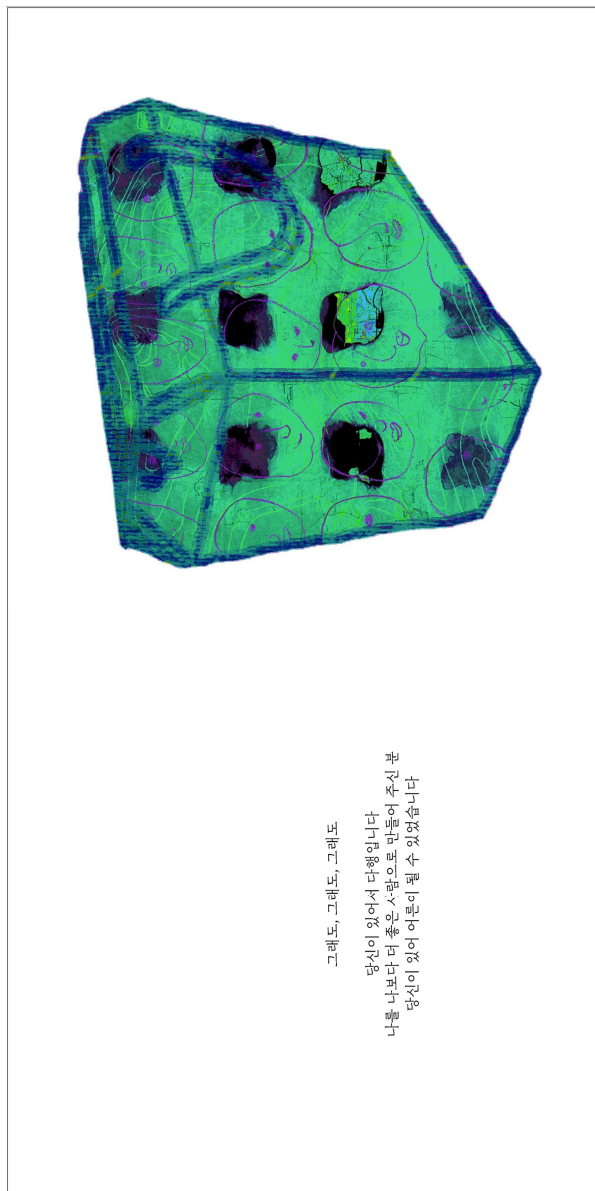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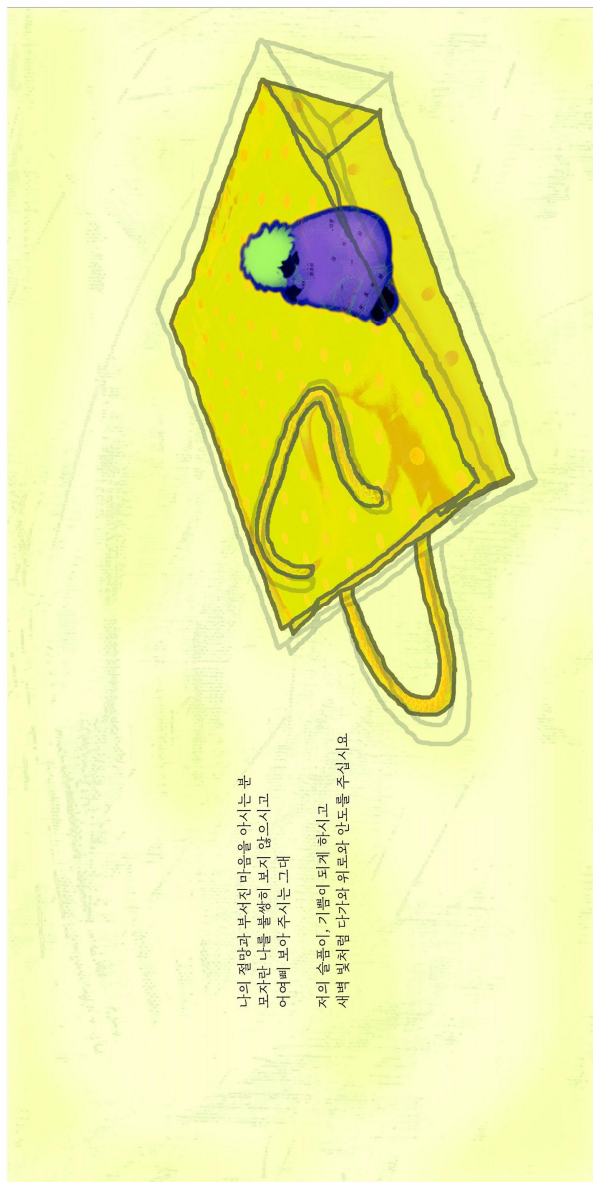
그림 40. 『어떤 선물』 프레임 20



그레도, 그레도, 그레도

당신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나를 나보다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분
당신이 있어 어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림 41. 『어떤 선물』 프레임 21



나의 절망과 부서진 마음을 아시는 분
모처럼 나를 보셨을 땐 보지 않으시고
이더베 보아 주시는 그대

저의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새벽 빛처럼 다가와 위풍의 안도를 주십시오

그림 42. 『어떤 신물』 프레임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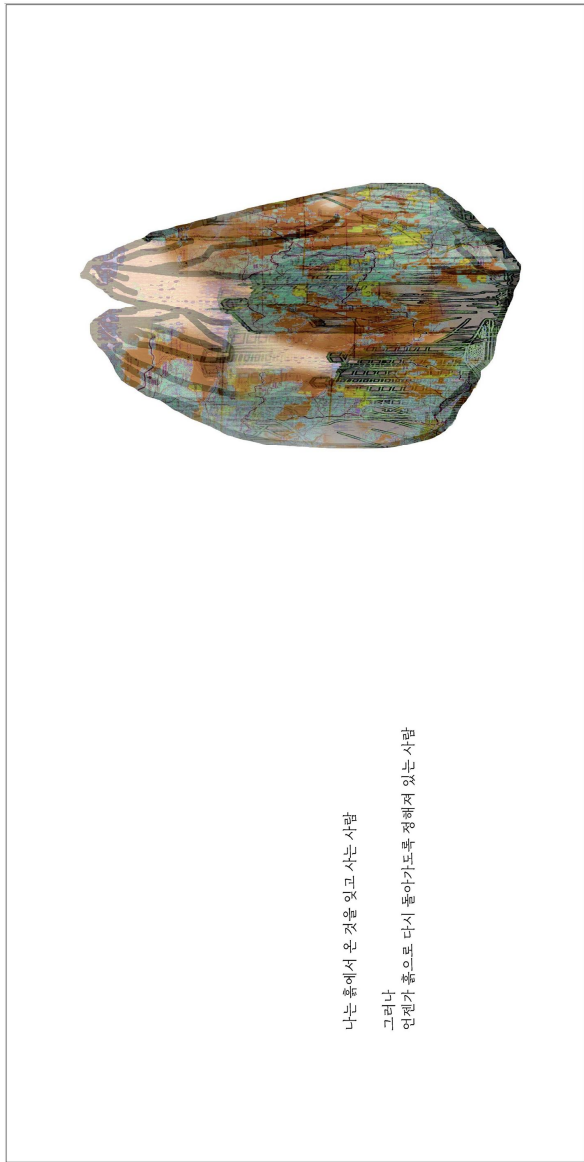
그림 43. 『어떤 신물』 프레임 23



그림 44. 『어떤 선물』 프레임 24



그림 45. 『어떤 선물』 프레임 25



나는 꽃에서 온 것을 잊고 사는 사람
그러나
입ぜん가 홀로 또 다시 돌아다니도록 정해져 있는 사람

그림 46. 『어떤 신물』 프레임 26



그림 47. 『어떤 신물』 프레임 27



그림 48. 『어떤 선물』 프레이임 28



그림 49. 『어떤 선물』 프레임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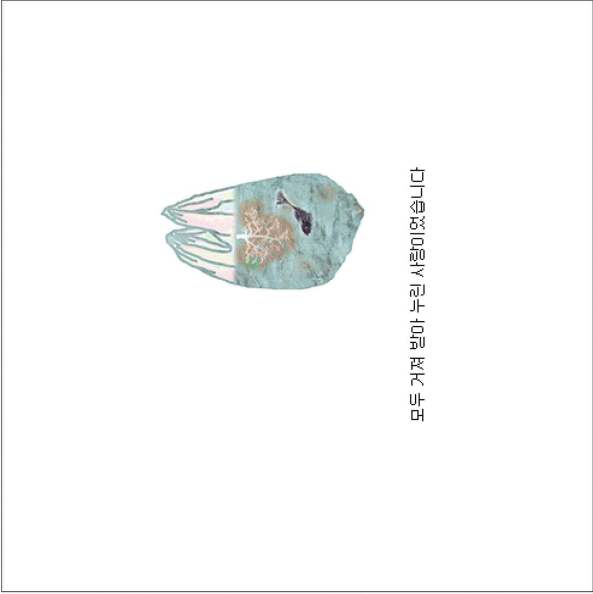


그림 50. 『어떤 선물』 프레임 30

2.2 『어떤 선물』의 이분법적 의미 작용 분석

2.2.1 통합체 분석

철학적 그림책인 『어떤 선물』의 이분법적 의미 작용을 연구하기 위해 표를 만들어 분석한다.

표 43. 그림책 텍스트 『어떤 선물』의 이분법적 의미 작용

구성		형식	내용	통합체 분석	계열체 분석	
				구간별 분할(시퀀스)	이항대립적 요소	
01	앞표지	주변 텍스트				
02	앞면지					
03	속표지					
04	본문-p.3-4	전개	첫 번째 선물	S*1 시작 글,	하늘	땅
05	본문-p.5-6	현상	하루, 하루	S*2 일상		
06	본문-p.7-8	실재	기원	S*3 축복의 기원		
07	본문-p.9-10	현상	희망	S*4 깨달음의 상태	기다림	도착
08	본문-p.11~11		충만			
09	본문-p.13~14		보물		목마름	한 모금
10	본문-p.15~16		소망		감춤	또렷이
11	본문-p.17~18		열매, 여정		같음	다름
12	본문-p.19~20		선물		내가	네가
13	본문-p.21~22		사랑의 몸짓		많았던	사라진
14	본문-p.23-24	축원	새해	S*5 축복의 기원	행복	아픔
15	본문-p.25~26	권고	지혜	S*6 깨달음의 상태	온전	이쉬움
16	본문-p.27-28		감사		슬픔	감사
17	본문-p.29-30	현상	뿌리			
18	본문-p.31~32	권고	선물		평범함	놀람
19	본문-p.33-34	현상	겸손			
20	본문-p.35~36	명령	소풍	S*7 충만의 상태	겨울	봄
21	본문-p.37-38	의문	사람	S*8 깨달음의 상태		
22	본문-p.39-40	위로	치유	S*9 청원의 상태	슬픔	기쁨
23	본문-p.41~42	현상	은총의 날	S*10 은총의 상태		
24	본문-p.43~44		기적			

25	본문-p.45~46	반전	어둠	S*11 깨달음의 상태		
26	본문-p.47~48	대조	흠에서, 흠으로		움	돌아감
27	본문-p.49~50	현상	탄생			
28	본문-p.50~51	추측	마지막 선물	S*12 희망의 메시지	고단함	쉽터
29	뒤면지	주변 텍스트				
30	뒤표지					
<p>S*1. 시작 글로서 그림책 『어떤 선물』에서 작가가 생각하는 ‘선물’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자연을 인간에게 주어진 첫 번째 선물로 꼽는다.</p> <p>S*2. 두 번째 선물은 하루의 평범한 일상을 선물로 이야기한다. 기억도 하지 못하는 반복되는 삶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인 것이다.</p> <p>S*3. 매일의 시간이 기도와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하길 축복한다.</p> <p>S*4.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깨달음을 얻는다. 때론 기다림으로, 기쁨으로, 충만함으로, 희생으로 다양한 체험과 경험으로 지혜를 얻는다. 그것은 숨겨져 있는 보물과도 같은 것이다. 개인에게 체득된 연륜과 선한 경험이, 참된 이치로 향하는 보편성과 사회적 공감으로 연결될 때 삶의 철학이 된다.</p> <p>S*5. 새해를 여는 전통적인 인사 문구이다. 아프지 않고 슬프지 않고 다치지 않기를 소망하는 선물을 건넨다.</p> <p>S*6. 우리는 아쉬움, 혼돈, 슬픔, 미숙함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는다. 어렵고 힘든 시기가 지난 후에 얻어지는 것들이 잘 성숙된다면, 보다 정화되고 정련된 것들이 된다.</p> <p>S*7. 지금을 바라보며 기쁨을 만끽하는 하루를 이야기한다. 긴 겨울이 지나가고 새봄을 기다리며 소풍을 가지만, 내일에 겨울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안다. 미래와 과거에 매이지 않고 현재를 누리는 모습을 보여 준다 .</p> <p>S*8. 사람과의 관계는 미묘하고 어려워, 우리를 힘들고 병들게 한다. 그러나... 사람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회적 동물이다. 사랑받고 사랑하며 그 관계 안에서 성장한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사람은 가장 큰 선물이다.</p> <p>S*9. 절망과 아픔으로 괴로운 날, 나를 사랑해 주었던 기억을 되새기며 치유와 회복을 청원한다.</p> <p>S*10.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것들은, 계속되어 기적을 이루기도 하고, 흔적 없이 잊히기도 한다. 그것들은 인식했던, 못했던 모두 특별한 선물이다.</p> <p>S*11. 사람들은 한계를 가진다. 사람은 많은 것을 만들고 이루어내지만, 또한 자신의 마음도 다스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흠으로 만들어져 흠으로 돌아가는 유한</p>						

한 존재다. 이렇게 불완전한 사람의 첫 모습은 ‘선물로 태어난 갓난아기’ 이다 S^{*12}. 하느님께서 당신을 위해 마련해 두신 것들에 대하여 희망적인 추측을 하며 절대자에게 돌보아주심을 의탁한다.

2.2.2 계열체 분석

통합체 분석은 텍스트에서 의미를 파생시키는 이항대립 쌍을 찾는 것으로서, 그림책 『어떤 선물』의 이항대립적 요소를 찾아, 문장에서 보이는 이면에 잠재적 구조를 탐색하는 과정이다. 문장 안에서 확연히 드러난 이항대립 쌍들을 찾아보았다.

하늘/땅, 기다림/도착, 목마름/한 모금, 감추어진/또렷이, 같음/다름, 내가/네가, 행복/아픔, 충분/아쉬움, 슬픔/감사, 평범한/놀람, 겨울/봄, 슬픔/기쁨, 오다/돌아옴, 고단함/쉽터

위에 문구들은 『어떤 선물』에서 본문 안에서 보이는 이항대립적 요소의 명확한 구절들이다. 그 밖의 본문의 의미에서 드러나는 이항대립적 요소를 찾았다면 그 영역은 더욱 넓어진다. 프레임 7의 ‘오래도록 기다렸던 것들이 도착했습니다.’ 라는 문장에서 ‘오래도록 기다렸던 것’ 과 ‘도착’ 은 상반된 대치의 문구로서 이항대립적 요소를 나타낸다. 프레임 8에서 ‘당신의 한 마디’ 는 ‘나의 온 우주’ 라는 대치된 문장은 간접적인 의미에서 이항대립적이다. 프레임 12에서도 ‘네가 나에게’, ‘내가 너에게’ 에서도 이러한 대치가 발견된다. 프레임 14에서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가 세 번 반복되는 데 그 ‘복’ 이라는 것과 대립되는 의미로서 ‘아프지 않기를’, ‘슬프지 않기를’, ‘다치지 않기를’ 라는 문장으로 마무리한다. ‘복’ 이라는 것을 이항대립적인 의미로서 구체화할 때 ‘다침’, ‘슬픔’, ‘아픔’ 이 된다. 프레임 21에서 ‘그래도, 그래도, 그래도’ 가 세 번이나 반복되는데 이것은 작가가 서술하지 않은 앞 문장 즉 인위적으로 생략한 부

분이 ‘그래도’에 이어지는 내용과 대칭되는 암시적이고 상징적인 첫 문장이라는 것을 드러낸다. 두 프레임 27과 28은 이항대립적 배치다. 프레임 27 갓난아기의 모습과 프레임 28은 빈 봉투가 뒤집어져 하늘로 올라가는 형상이다. 이 구도는 탄생과 죽음이라는 것과 대비를 이루며 아기는 왼쪽 하단 ‘땅’에 누워 있고 빈 봉투는 오른쪽 상단 ‘하늘’로 날아가는 형태를 취하는 이미지로 구상되었다. 이 그림책이 말하고 싶은 ‘어떤 선물’의 주제를 확실히 표현하였다고 볼 수 있다.

2.3 『어떤 선물』의 삼분법 분석적 의미 작용 분석

본 연구에서는 삼분법적인 의미 작용 분석에서 보다 밀도 있는 연구를 위해 외적으로 드러나는 주변 텍스트와 주변 텍스트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프레임 1, 2, 3, 28, 29를 주변 텍스트로 구분하여 그 의미와 내용을 확인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2.3.1 주변 텍스트 분석

표 44. 『어떤 선물』 삼분법적 의미 작용 분석-프레임 1


프레임 1		앞표지	
표상체	이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적인 바탕배경은 흰 색, 외각의 두 개의 명도차가 나는 회색의 테두리. • 사실적인 묘사의 봉투외곽선 • 봉투 안에 거꾸로 된 나무, 살아 돌아다니는 물고기가 담겨져 있다. • 오른쪽 하단에 ‘어떤 선물’이라는 연한 회색 글씨 제목이 있다.
	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떤 선물 • 신소연 글, 그림 	
대상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방형의 가로형(19cm×19cm) 판형, 개인 작품. • 2019 미발표 된 작업의 초안으로서 박사학위 논문 안에 수록 되어질 그림책. • 산돌정체, 가로 방향의 구도로 정렬. • 그림책 ‘어떤 선물’의 표지로서 그림책 전체를 소개하고 느낌을 전달하는 타이틀 페이지. • 거꾸로 된 흰색 나무, 물고기는 여행하는 듯, 유유자적한 모습. • 봉투 안에 들어 있는 이미지는 투명하게 비치는 어항 같은 느낌. 		
해석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림책 ‘어떤 선물’로 초대하는 상징이미지. • 그림책 안에서 펼쳐질 사색적 분위기를 반영. • 성경안에서의 물은 죽음과 혼돈이며 또한 정화와 시작을 상징함. • 물고기는 그리스도인을 대변하는 상징체이다. • 흰색 배경색은 여백의 미를 느끼게 하여 독자들이 채워가게 유도함. • 한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창 1,1). • 주 하느님께서 사람을 데려다 에덴동산에 두시어, 그곳을 일구고 돌보게 하셨다(창 2,15). 		

표 45. 『어떤 선물』 삼분법적 의미 작용 분석-프레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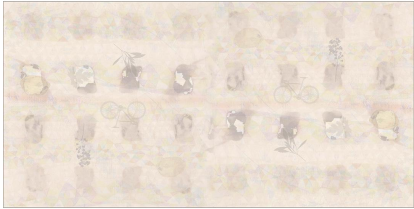
프레임 2		앞면지
표상체	이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적으로 희미하고 밝고, 채도 낮은 연한 노란의 삼각형 패턴 배경. • 그 안에 다양한 패턴과 사실적 요소들의 열매, 자전거, 나뭇잎 형체. • 작게 반복되는 기하학적인 삼각형들이 형형색색으로 바닥을 채움. • 다양한 패턴과 사실적 요소들이 희미하게 비춰짐.
	문 자	
대상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 면지(프레임의 크기(38cm×19cm), 펼쳐진 두 페이지의 합쳐진 정면). • 그림책 딱딱한 표지를 이어주는 기능적 역할. • 면지는 그 자체로 그림책 본문을 감싸는 배경과 같은 역할. • 텍스타일 같은 이미지. 	
해석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잘한 구성적 이미지가 많이 보이지만 희미해서, 궁금함에 들여 다 보고 싶은 호기심을 자극 • 그림책 ‘어떤 선물’ 로 향하는 다채롭고 따뜻한 이미지의 메시지 • 그림책의 내용을 암시하는 예술적 장치로서 호기심을 유발함 	

표 47. 『어떤 선물』 삼분법적 의미 작용 분석-프레임 29

프레임 29		뒤면지
표상체	이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적으로 희미하고 밝고, 채도 낮은 연한 노란의 삼각형 패턴 배경. • 그 안에 다양한 패턴과 사실적 요소들의 열매, 자전거, 나뭇잎 형체. • 작게 반복되는 기하학적인 삼각형들이 형형색색으로 바닥을 채움. • 다양한 패턴과 사실적 요소들이 희미하게 비춰짐.
	문 자	
대상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뒷 면지 • 그림책 딱딱한 표지를 이어주는 기능적 역할. • 면지는 그 자체로 그림책 본문을 감싸는 배경과 같은 역할. • 텍스타일 같은 이미지. 	
해석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많은 자잘한 구성적 이미지가 보이지만 희미해서, 들여다보고 싶은 호기심을 자극. • 그림책 ‘어떤 선물’ 로 향하는 다채롭고 따뜻한 이미지의 메시지. • 그림책의 내용을 암시하는 예술적 장치로서 호기심을 유발함. 	

표 48. 『어떤 선물』 삼분법적 의미 작용 분석-프레임 30

프레임 30		뒤표지
표상체	이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적인 바탕 배경은 흰색, 외각의 두 개의 명도 차가 나는 회색의 테두리. • 사실적인 묘사의 봉투의 외곽선. • 봉투 안에 거꾸로 된 나무, 살아 돌아다니는 물고기가 담겨져 있다. • 중앙 하단에 검은색 글자.
	문 자	
대상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방형의 가로형 판형(19cm × 19cm), 그림책의 뒷 표지 정면. • 산돌정체, 가로 방향의 구도로 정렬. • 그림책 ‘어떤 선물’의 뒤표지로서 그림책 전체를 마무리한다. 	
해석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림책 ‘어떤 선물’ 앞표지와 짝을 이루며 그림책 본문, 전체 내용을 함축한 메시지. • 앞표지의 그림을 축소되고 반복된 이미지 통해 통일성을 준다. • 정돈되고 차분한 구성 그림책의 사색적 분위기를 반영. • 거꾸로 된 흰색 나무는 오래된 경험과 지혜를 상징하고, 물고기는 여정을 끝낸 듯하다. • 모든 것이 모두 거저 받아 누린 사랑 즉 ‘어떤 선물’ 입을 말한다. 	

2.3.2 본문 텍스트 분석

표 49. 『어떤 선물』 삼분법적 의미 작용 분석-프레임 4


프레임 4		본문
표상체	이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경이 생략된 형태, 전체적인 바탕 배경은 흰색 • 파스텔 톤의 이미지 • 사실적인 묘사의 봉투 외곽선 • 봉투 안에 거꾸로 된 흰색 나무, 살아 돌아다니는 물고기가 담겨져 있다
	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가 받은 첫 번째 선물은 나를 감싸는 하늘과 나를 받쳐 주는 땅
대상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방형의 가로형 판형, 개인 작품의 첫 본문 페이지 • 본문 각 프레임의 크기(38cm×19cm), 펼쳐진 두 페이지의 합쳐진 정면. • 산돌정체 타이포그래피, 가로 방향의 구도로 정렬 • 그림책 ‘어떤 선물’의 본문의 시작으로 그림책 전체를 압축할 수 있는 중심 메시지 • 봉투 안에 들어 있는 이미지는 투명하게 비치는 어항 같은 느낌을 준다. • 거꾸로 된 흰색 나무, 물고기는 생생히 살아있는 모습 	
해석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림책 ‘어떤 선물’로 초대하는 상징이미지 • 그림책 안에서 펼쳐질 사색적 분위기를 반영 • 성경안에서의 물은 죽음과 혼돈이며 또한 정화와 시작을 상징함 • 물고기는 그리스도인을 대변하는 상징체이다. • 흰색 배경은 여백의미를 느끼게 하여 독자로 하여금 사유적 초대로 유도함. • 봉투는 지구를 상징한다.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께서 온전히 온 우주를 담아 우리에게 하늘과 땅을 선사한다. • 우리가 받은 선물 ‘지구’를 잘 돌보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인간의 욕심으로 파괴되는 환경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는 이 시대에 거저 받은 이 선물을 관리하고 보전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 • 한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창 1,1). • 주 하느님께서 사람을 데려다 에덴동산에 두시어, 그곳을 일구고 돌보게 하셨다(창 2,15). 	

표 50. 『어떤 선물』 삼분법적 의미 작용 분석-프레임 5


프레임 5		본문
표상체	이미지	
	문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곽의 형태는 납작한 상자들, 그 안에 두 소녀가 기도하며 서 있는 이미지 • 배경은 아파트단지 내의 길거리 풍경 • 전체적으로 따뜻한 노란색 파스텔톤의 이미지로 묘사 • 두 손을 모아 고개를 숙이고 있는 정적인 이미지
대상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림책 ‘어떤 선물’의 본문의 두 번째 페이지 • 인물, 배경, 상자가 묘사되었고, 길 위에 서 있는 두 소녀 • 전체인 색감과 형상은 따뜻하고 평화로운 아파트 단지의 풍경. • 잠시 멈춘 듯한 모습의 이미지 그러나 문자에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삶 속에서의 온 여정을 이야기함 	
해석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날에 대한 일상적인 생활, 하루하루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메시지 • 어제 내가 힘을 다해 했던 일들을 뒤돌아보면 어디로 가는지 어떠한 일을 했는지도 생각나지 않을 정도의 미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일 수 있다. 우리는 오늘 그것들에 매여, 오히려 소중한 것들을 잊고 살아간다. 어떤 것이 중요한지 어떻게 살아야하는지 목적을 잃지 않게 성찰해야 한다. • 반복되는 일상들이 지나가지만 그 의미와 목적들을 잊고, 그저 바쁘게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멈춰 서서 삶의 의미를 성찰하라고 초대함 • 하루 하루가 모여져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이루고 그 모든 날 등과 함께 하시고 허락하신 하느님을 노래한다. • 이 날은 주님께서 만드신 날 우리 기뻐하며 즐거워하시라(시편 118,24). 	

표 51. 『어떤 선물』 삼분법적 의미 작용 분석-프레임 6


프레임 6		본문
표상체	이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적으로 청색 느낌의 이미지와 희미한 배경 • 비슷한 3개의 봉투가 불규칙적으로 가로 방향으로 마주보고 있음 • 오른쪽의 두 봉투는 같은 방향이고 오른쪽 봉투는 다른 방향으로 서 있음 • 봉투와 배경에 패턴 같은 문자 이미지
	문자	
대상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적으로 문자 패턴이 들어 있는 배경과 봉투들. • 축복해 주는 글귀. • 깊은 심연의 바다 같은 이미지. • 세 개의 봉투에서 보이는 통일성과 변화 • 색감은 심연의 푸른색, 정적, 안정감, 고요함을 구축 	
해석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의 하루를 축복해 주는 메시지. • 감사, 기쁨과 기도는 친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가르침. • 깊은 심연의 바다 같은 이미지는 삶을 감싸는 축복과 은총처럼 헤아릴 수 없는 신비스러움의 상징적 표현. • 봉투에 감사와 기쁨과 기도를 담아 선물로 한다. •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1 테살 5,17). 	

표 52. 『어떤 선물』 삼분법적 의미 작용 분석-프레임 7

프레임 7		본문
표상체	이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친 캠퍼스 붓질 질감을 가진 바탕의 배경은 파스텔 톤의 연하고 밝은 색 • 연보라색에 흰색 선으로 묘사된 소녀는 사실적으로 묘사됨 • 상반신을 숙여 물을 뿌리고 있는 듯한 식물은 날카롭고 거친 느낌의 이미지 • 오른쪽에는 소녀의 이미지가 봉투 속에 왼쪽에는 문자가 배열됨
	문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날, 오래도록 기다렸던 것들이 도착했습니다. 그 기억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씩씩하게 기다릴 수 있습니다.
대상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라색 봉투가 오른쪽 상단에 놓여 있음 • 봉투 위 소녀는 거친 식물을 보살피고 있는 듯한 행동을 하고 있음 • 가시 풀 같은 뼈죽한 식물에 물 뿌리는 도구로 들여다보고 있음 • 옛 시절, 그날, 오래도록 기다렸던 것들이 도착했고 그 기억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기다림을 견딜 수 있다. 	
해석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희망하고 그것이 완성되기를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린다. • 어떤 무엇에 정성을 쏟고 기다리는 과정은 희망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 꽃을 기다리는 것, 미래를 기다리는 기쁨의 과정이 된다. • 우리는 희망으로 살아간다. 보이는 것을 희망하는 것은 희망이 아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희망하기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린다. • 우리는 희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보이는 것을 희망하는 것은 희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희망합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희망하기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나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올바른 방식으로 기도할 줄 모르지만, 성령께서 몸소 말로 다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로마 8,24-26). 	

표 53. 『어떤 선물』 삼분법적 의미 작용 분석-프레임 8

프레임 8		본문
표상체	이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친 캠퍼스 붓질 질감을 가진 바탕의 배경은 파스텔 톤의 붉고 고운 색 • 작고 다채로운 꽃 화분을 사실적으로 묘사 • 오른쪽 전체를 꽉 채운 하얀색 꽃무늬 문양 • 오른쪽에는 커다란 흰색 꽃문양이 왼쪽에는 문자와 작은 꽃 화분이 배열됨
	문 자	
대상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은 꽃무늬 문양과 사이즈가 대비되는 커다란 하얀 색 꽃무늬 문양 • 다양한 색감과 단색의 대비, 두 가지 요소의 크고 작은 대비를 극대화하여 구도를 잡음 • 한마디의 말을 향기로 비유하여 이야기함 • 향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후각적인 감각. • 전체적으로 밝은 파스텔 톤으로서 따뜻한 느낌의 색조. 	
해석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떤 이의 향기로운 한 마디 말에 위로와 기쁨을 누린다. • 모든 치유와 사랑은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비롯된다. • 대비를 이루는 이미지에서 시작과 결과를 보여준다. • 한마디 말은 왼쪽의 작고 선명한 꽃무늬를 오른쪽의 흰 꽃문양은 퍼져나가는 향기를 표현하는 듯. • 오른쪽의 하얀색 무늬는 눈에 보이지 않은 향기의 이미지 왼쪽의 화분에서 나오는 한마디의 여파를 담아 확산된다. • 한마디 말이 가지는 힘을 생각해야 한다. 말이 위로와 사랑과 희망을 전하기도 하지만 말 한마디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도 한다. • 한마디 말이 내게 남몰래 다다르고 그 속삭임이 내 귓가에 들렸네(욘 4:12). 	

표 54. 『어떤 선물』 삼분법적 의미 작용 분석-프레임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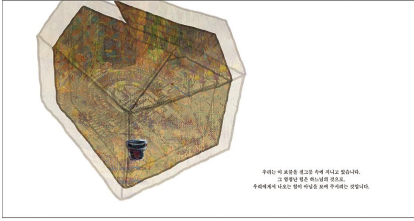
프레임 9		본문
표상체	이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흰색 바탕으로 생략된 배경의 깔끔하고 시원한 여백 • 갈색 톤의 상자 안에는 화분이 사실적으로 묘사됨 • 겹쳐진 듯한 반복된 상자의 이미지는 그 바닥에 십자가의 형상이 보인다. • 오른쪽에는 문자가 왼쪽에는 커다란 상자의 이미지가 배열됨
	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깊은 산 속 웅달샘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는 신비스런 한 모금. 비밀스런 아지트, 숨겨진 빛의 열매
대상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겹겹이 포개진 박스의 이미지, 반투명한 상자의 틀이 겹겹이 반복됨. • 박스 바닥에 보이는 화분에 무언가가 숨겨져 있는 듯 묘사함. • 검은색 화분은 작고 깊게 상자 속에 놓여 있는 형상. •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빛의 열매’는 보이지 않음. 	
해석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겹겹이 둘러싸인 상자의 이미지는 성스러운 공간으로 묘사됨 • 화분은 ‘빛의 열매’를 품고 있으며, 완성되지 않는, 아직 기다리고 있는 질그릇의 상태를 대변한다. • 우리의 보물은 완성되지 않은 희망이며 외형적으로는 투박하게 비취진다. • 전체인 색감과 형상은 시간이 멈춘 고요한 정적인 느낌이나 그 멈춤 안에서 살아있는 열매를 이야기함. • 반투명한 상자의 틀이 겹겹이 반복됨은 깊은 삶의 순환 같은 여운으로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을 대변한다. • 검은 화분의 상징은 우리가 마음 속 깊이 간직하며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 염원, 기도, 청원이다. • 꽃피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한 나의 내면의 상처나 아픔의 상징. • 꽃이 피는 순간은 아픔, 어둠, 바람, 소망, 상처, 갈망 등이 완전히 성취되거나 온전히 치유된 상태가 될 것이다. •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 속에 지니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힘은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에게서 나오는 힘이 아님을 보여 주시려는 것입니다. (II 코린 4,6). 	

표 55. 『어떤 선물』 삼분법적 의미 작용 분석-프레임 10

프레임 10		본문
표상체	이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흰색 바탕으로 생략된 배경의 깔끔한 여백 • 전체적으로 회색 톤으로 간결하고 생략하여 묘사 • 측면의 기도하는 두 사람의 모습이 질감과 느낌을 달리하여 마주보고 앉아 있다. • 두 손을 모으고 거울에 비춰 보는 듯한 몽환적 이미지
	문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 속에 감추어진 것들이 또렷이 마주할 수 있는 아름다움이기를
대상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주 앉은 두 사람의 형상은 기도하고 있는 듯 무릎을 꿇어앉아 있음. • 수도원의 두 남자는 수사 같은 성스럽고 고요한 이미지. • 회색 톤의 봉투는 오른쪽 상단에서 정적인 묘사로 표현됨. • 반투명한 두 개 중 하나의 이미지는 반복과 대칭으로 대비와 변화를 보여줌. 	
해석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멈추어 버린 듯, 고요한 기도의 시간을 통해 묵상으로 초대. • 전체인 색감과 형상은 신비함과 자신을 투영한 반영의 이미지다. • 내 속에 감추어진 것들이 또렷이 마주 할 수 있는 아름다움이기를 바라는 정화의 자세이며 반성의 시간. •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성찰의 순간은 자신을 보다 더 아름답게 성장시켜 나가는 힘을 얻게 하는 숙성의 시간이다. •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느님과 대화이며 하느님 앞에서 자신을 들여다보는 과정이다. •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것은 없어집니다. 내가 아이였을 때에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생각하고 아이처럼 헤아렸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아이 적의 것들을 그만두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에 비친 모습처럼 어렴풋이 보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하느님께서 나를 온전히 아시듯 나도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1 코린 13,9-12). 	

표 56. 『어떤 선물』 삼분법적 의미 작용 분석-프레임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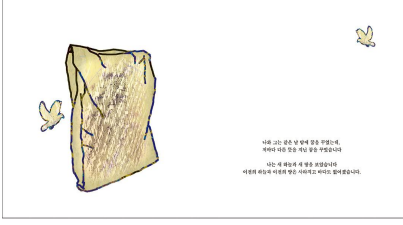
프레임 11		본문
표상체	이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흰색 바탕으로 생략된 배경의 여백 • 전체적으로 밝고 깨끗한 이미지 커다란 봉투에는 문자 같은 패턴이 묘사됨 • 두 마리의 비둘기가 좌우 중심을 향하고 있는 이미지 • 오른쪽에는 투박한 사료 포대 이미지가 왼쪽에는 문자와 비둘기가 배열됨
	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같은 날, 같은 길을 걷고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각기 다른 생각과 인연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얼굴이 다르듯 각기 다른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하고 한 번에 하나 밖에 선택할 수 없는 여정이었습니다.
대상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료 포대에 새겨진 문자. • 두 마리의 비둘기는 서로 같은 모양이나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 • 한 번에 하나밖에 선택할 수 없는 독립된 여정과 인연을 말함. • 단순하고 깨끗한 색감으로 담백하게 상황과 진리를 설명 • 전체인 색감과 형상은 디자인적인 간결함으로 묘사 	
해석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의 꿈에 대하여 생각하게 하는 글 • 같은 꿈을 가져도 저마다 이루는 방법이 다르고 그에 따른 결과도 다르다. • 두 마리의 비둘기는 같은 꿈을 가진 동료나 친구가 될 수 있다. • 경쟁으로 시기로 같은 꿈을 향해 달리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길이 각각 유일하고 특별함을 알아야 한다. •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은 하나 밖에 없는 유일하고 되돌릴 수 없는 시간들이다. • 저와 그는 같은 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저마다 다른 뜻을 지닌 꿈을 꾸었습니다(창세 41,1). • 그 뒤에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요한복 21,1). 	

표 57. 『어떤 선물』 삼분법적 의미 작용 분석-프레임 12

프레임 12		본문
표상체	이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낮은 채도의 거친 캠퍼스의 질감을 가진 짙은 갈색 바탕의 배경. • 소녀가 홀로 봉투 안에 기도하며 서 있는 형태로 묘사. • 소녀의 등 뒤 배경으로 다채롭고 아름다운 꽃 봉우리가 피어 있다. • 벚꽃이 흩날리는 작은 꽃잎의 이미지를 볼 수 있다. • 오른쪽에는 하얀색 문자와 왼쪽에는 봉투 이미지가 배열됨.
	문자	
대상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른쪽에 서서 떨어지는 벚꽃 나무 밑에 있는 듯한 밤의 풍경. • 생각에 잠겨 기도하는 듯한 소녀의 전신상. • 선물이 되어 기다리는 소녀의 모습. • 밤하늘에 흩날리는 벚꽃은 은은한 낭만과 정취를 자아냄. 	
해석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군가 기다리는 듯, 따뜻하고 고운 색감의 정취. • 깊은 밤이지만 아름답고 고요히 감싸는 휴식과 안정된 거쳐 같은 편안한 이미지. • 시간이 멈춘 듯 안정감, 고요함 속에 빛나는 향기로운 아름다움이 있다 • 내가 너에게 선물이 되어 주었던 날과 네가 나에게 선물이 되어 주었던 날의 기억이 새겨져 있는 풍경. • 주는 기쁨, 받는 감사함을 묘사하는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 • 나는 주님의 눈에 소중하게 여겨졌고 나의 하느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 주셨다(이사 49,5ㄴ). 	

표 58. 『어떤 선물』 삼분법적 의미 작용 분석-프레임 13


프레임 13		본문
표상체	이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흰색 바탕으로 생략된 배경의 깔끔한 여백. • 비닐 투명 봉지의 사실적으로 묘사. • 봉투 안에 들어가 있는 또 다른 봉투들. • 오른쪽에는 초록색 봉투 이미지가 왼쪽에는 문자가 배열됨.
	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헤아릴 수 없이 많았던 배려, 인내, 친절. 나를 위한 사랑의 몸짓들.... 스쳐 사라진 희생의 조각들.
대상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흔해 보이는 봉지의 외각선 안에 담겨져 겹쳐 들어가 있는 또 다른 봉투들의 조합들, 투명 봉지 안에 또 다른 봉지들이 각각의 조각의 의미로 가득 차 있음. • 봉지 속의 봉지는 많은 것이 중복된 감정과 관계의 이미지. • 헤아릴 수 없이 많았던 배려, 인내, 친절 등을 나열하며 나를 위한 사랑의 몸짓들이라고 말함. • 스쳐 사라진 희생의 조각들을 봉지로 이미지화. 	
해석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인을 위한 배려, 인내, 친절을 사랑의 몸짓이라 묘사함 • 우리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알아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불완전한 존재들 자신이 받은 많은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산다. • 타인과의 관계도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늘 자각하지 못하고 흐려지나 보내는 부분들이 있으나 그것들은 감사한 희생의 조각들이다. • 배려, 인내, 친절이라는 많은 스쳐진 희생에 조각들에 대한 감사함을 묘사함과 더불어 타인에게 행해야 할 사랑을 생각하게 함. • 부모의 사랑을 시작으로 많은 타인들의 관계 안에서 도움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크고 작은 사랑에 대한 감사는 하나하나 다 헤아릴 수 없고, 기억 할 수 없지만 나를 존재하게 만든 몸짓들이다. • 우리의 내면에는 이러한 사랑, 희생으로 성장하고 배부른 포만감으로 삶이 풍요롭고 충만해진다. • 사랑받는 사람답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동정과 호의와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참아 주고 서로 용서해주십시오(골로 4,13). 	

표 59. 『어떤 선물』 삼분법적 의미 작용 분석-프레임 14

프레임 14		본문
표상체	이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흐리고 밝은 붉은 바탕은 책의 펼친 페이지로서 희미한 선의 굴곡진 리듬감을 가진 배경 • 주머니에는 붉은색 패턴의 글자들이 무너로 형성됨. • 파스텔 톤의 핑크색 배경과 핑크 주머니 이미지에 흰색의 작은 풀이 자라고 있다 • 오른쪽에는 복주머니가 왼쪽에는 문자가 배열됨
	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 날, 새 아침, 마음을 모아 그대의 행복을 바랍니다. 아프지 않기를, 슬프지 않기를, 다치지 않기를
대상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해 인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가 세 번 반복됨. • 축원하는 메시지, 마음을 모아 그대의 행복을 바람. • 아프지 않기를, 슬프지 않기를, 다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염원. • 부드러운 파스텔 톤의 색감과 같은 부드러운 곡선의 형상. • 복주머니에 하얀 식물 한 포기를 담고 있음. 	
해석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방에게 전하는 새해의 메시지, 축복의 덕담. • 당신이 주신 한 해로 은혜로운 시간을 살 수 있음을 감사함. • 우리의 모든 여정에 당신이 계시기에 달콤하고 풍족하다. • 색감과 형상에서 잔잔하고 고운 편안한 평화로움을 드러낸다. • 복주머니에 새해의 소망을 담아 사랑하는 이에게 전달하고 싶은 마음. • 진정한 행복이란 건강하고 기쁘고 사고가 없는 것. 마음과 몸의 축복 즉 아프지 않기를, 슬프지 않기를, 다치지 않기를 염원. • 당신의 선하심으로 한해를 꾸미시어 당신께서 가시는 길마다 기쁨이 방울져 흐릅니다(시편 25,7). • 그 모든 여정 중에 이스라엘의 온 집안이 보는 앞에서, 낮에는 주님의 구름이 성막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자리를 잡았다(탈출 40,38). 	

표 60. 『어떤 선물』 삼분법적 의미 작용 분석-프레임 15

프레임 15		본문
표상체	이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흰색 바탕으로 생략된 배경의 깔끔한 여백 • 푸르고 신비스러운 나무 형태 • 크기가 다른 두 개의 박스, 그 안에 들어 있는 하얀색 나무는 화면에 좌우로 배치 • 오른쪽에는 작은 이미지와 문자가 왼쪽에는 큰 이미지가 배열됨
	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랑하는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 아쉬움. • 주어진 그대로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안타까움. • 반복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것이 지혜의 초대입니다.
대상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 개의 박스는 대칭으로 방향과 크기를 달리해 좌우로 정적으로 배치. • ‘반복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것이 지혜의 초대’ 라는 메시지 • 전체인 색감과 형상은 푸른색과 적갈색의 나무, 정적, 안정감, 고요함을 구축. • 사랑하는 사람을 주어진 그대로 충분히 사랑하자는 메시지. 	
해석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깨닫지 못해 아쉬움이 남았던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반성함 • 아쉬움 없는 사랑을 하기 위해 깨닫고 성찰하는 것은, 우리의 사랑의 의무이자 지혜로운 삶의 방법. • 남에게 해야 할 의무는 아무리해도 다할 수 없는 의무가 한 가지,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다. • 반복되는 어리석음, 실수에서 벗어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사람은 사랑을 하며 산다. 하지만 사람이 편협된 범주를 벗어나 박애적인 하느님의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어쩌면 완전한 사랑이란 인간의 영역이 아니고 신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라 불리는 영역, 방법, 깊이, 대상을 다시 점검해 봐야한다 •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사랑으로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코린토 I 16,13-14). • 남에게 해야 할 의무를 다하십시오. 그러나 아무리해도 다할 수 없는 의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의무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미 율법을 완성했습니다(공동번역성서로마 13:8). 	

표 61. 『어떤 선물』 삼분법적 의미 작용 분석-프레임 16

프레임 16		본문
표상체	이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흰색 바탕으로 생략된 배경의 깔끔한 여백 • 열린 봉투를 내려다보는 시점 • 노란색 봉투 속에 고래와 아파트 자전거가 떠다니는 풍경의 이미지 • 오른쪽에는 봉투가 왼쪽에는 문자가 배열됨
	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돈과 슬픔으로 가득한 날에도 보살펴 주시던 그날의 은총이 새겨져, 감사의 길로 이끌어 줍니다.
대상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란 봉지 안에 들어 있는 아파트 풍경과 커다란 고래가 환상적이고 몽환적인 느낌을 자아내게 한다. • 혼돈과 슬픔으로 가득한 날에도 감사할 수 있다는 메시지. • 감사의 길은 늘 보살펴주시던 은총의 기억을 잊지 않는 것. • 고래, 자전거의 동적 움직임의 이미지가 표현되어 환상적인 느낌. 	
해석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가치는 허공에 떠 다니지만, 그것들은 유한성을 지닌 선물이다. • 삶 속에서의 혼돈과 슬픔은 존재하지만 그것을 이겨낼 힘도 있다. • 노란빛의 반투명성을 지닌 봉투처럼 우리의 삶도 반쯤 투영되는 유사한 형태. • 보살펴 주시던 그 날의 은총을 기억 할 때 늘 감사하며 살 수 있다. • 우리의 삶은 몽환적인 기적과 현실이 공존하는 세상이다. • 하느님께 맞갖은 제물은 부서진 영. 부서지고 꺾인 마음을 하느님, 당신께서는 업신여기지 않으십니다(시편51,4). • 행복하여라, 그분께 피신하는 이들 모두!(시편1:12ㄷ). •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떨쳐내며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 	

표 62. 『어떤 선물』 삼분법적 의미 작용 분석-프레임 17

프레임 17		본문
표상체	이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캠퍼스 질감을 가진 바탕의 배경은 베이지 색 톤의 흐린 갈색의 붓질자국이 있다. • 두 손 모아 무릎 꿇고 기도하는 엄마와 소년의 이미지. •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듯한 모자의 시선은 아래로 향해 눈을 감은 듯하다. • 오른쪽에는 문자가 왼쪽에는 박스 이미지가 배열됨.
	문자	
대상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엄마와 아들은 한 곳을 향해 무릎 꿇고 앉아 있다. • 정적이고 따뜻한 공간에서 고요하고 안온하게 몰입한 기도 분위기. • 소년과 어머니의 하체에 다채로운 색감의 그라데이션이 있음. • 아이를 지탱해 주는 성장의 뿌리는 하루씩 쌓여가는 추억. 	
해석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엄마와 아들은 함께 소망을 희망을 위해 기도한다. • 모자의 기도는 다가 올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자양분이다. • 그들의 기도는 행복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큰 기쁨이고 혜택이다. • 하느님이 맺어주신 가족이라는 안전한 울타리는 우리를 교육하고 성장하게 한다. • 정적인 멈춤 속에 내일을 향한 새로운 출발이 시작된다. • 엄마의 기도는 아이를 향한 사랑이며, 아이는 자라는 내내 이러한 엄마의 사랑을 느끼며 성장한다. • 사랑받고 자라 성인이 된 아이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 엄마의 사랑을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 당신의 거룩한 이들에게는 아주 큰 빛이 비쳤습니다. 저들은 그들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소리만 듣고서 그들은 고통을 받지 않으니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하였습니다(지혜 18,1). 	

표 63. 『어떤 선물』 삼분법적 의미 작용 분석-프레임 18

프레임 18		본문
표상체	이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캠퍼스 천 바닥 재질에 거친 붓 자국의 터치감. • 배경은 연한 파스텔 톤의 부드러운 연보라와 미색(연한 노란색)의 어우러짐. • 오른쪽 희미한 큰 봉투. • 왼쪽에는 작고 선명한 봉투가 하단에 위치.
	문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놀랍기만 하던 그 모든 것이 평범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잊지 마세요. 언젠가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모든 게 선물이라는 것을
대상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크고 연한 왼쪽의 보라색 봉투와 오른쪽 작고 선명한 보라색 봉투가 마주 보고 대칭을 이루며 서 있다. • 왼쪽의 작은 보라색 봉투에는 지도 무늬가 선명히 보인다. • 밝고 화려한 배경과 함께 스산하고 넓은 공간감으로 묘사함. • 오른쪽의 작은 봉투에서 시작된 모든 일은 평범한 일상이며 왼쪽은 점점 커져 놀랍기도 한 선물, 기적을 이룬다. • 배경의 거친 붓의 터치는 바람이나 공기의 흐름을 형상화. 	
해석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른쪽의 작은 봉투는 현실의 자각이며 이러한 작은 일상은, 왼쪽의 커다란 봉투의 기적과 같은 것으로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 • 평범한 일상은 언젠가 끝이 있다는 것, 모든 게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환기시킨다. • 우리의 평범한 일상은 사실 기적 같은 은총의 나날이다. • 거듭되고 반복되는 하루는 영원히 계속 될 것 같은 생각에 빠지게 하지만 그 하루는 참으로 값지고 소중한 것이다. • 본질을 기억한다는 것은 유한한 삶을 가치 있게 살아가게 한다. • 당신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느님(시77:15ㄱ). 그분은 헤아릴 수 없는 위엄을, 셀 수 없는 기적들을 이루시는 분(욥5:9). 	

표 64. 『어떤 선물』 삼분법적 의미 작용 분석-프레임 19

프레임 19		본문
표상체	이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흰색 바탕으로 생략된 배경의 깔끔한 여백. • 파스텔 톤의 녹색계열의 잔잔하고 오밀조밀한 배경의 무늬가 사실적으로 묘사. • 하얀 꽃 속에 쪼그리고 앉은 소녀의 귀엽고 신비스러운 이미지. • 오른쪽에는 문자가 왼쪽에는 커다란 포대 자루 같은 이미지가 배열됨.
	문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러나 작은 사람이라 더 친절할 수 있었고 더 열심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더 많은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상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분법적인 대비의 개념(큰사람, 작은 사람), • 작은 사람이 가지는 장점을 이야기함. • 부드러운 파스텔의 연두 빛의 따사로운 소녀의 이미지는 작은 사람. • 더 많은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작은 사람. • 더 친절할 수 있는 앉아서 밑을 내려 다 보는 작은 사람. 	
해석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개 숙여 겸손히 앉아 있는 정적인 소녀의 모습, 시선을 작은 식물에 고정하며 교감하는 모습. • 전체인 색감과 형상은 소담스럽고 정겨움, 안정감, 고요함 속에서 겸손을 이야기함. • 높은 사람, 큰 사람이라 불리는 자는, 늘 타인에게 대접을 받는 위치에 있기에 낮은 사람들의 고충을 이해하기 힘들다. • 부와 성공만을 추구하는 세상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이야기함. • 나쁘고 부족한 것들이라 생각되는 것들도 나름의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이야기한다. 모두 하느님의 선물이며 각 개체의 존재 이유가 있다. •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의 도움에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겨 내고도 남습니다(로마8.37). •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로마 8.28). 	

표 65. 『어떤 선물』 삼분법적 의미 작용 분석-프레임 20

프레임 20		본문
표상체	이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캠퍼스 질감을 가진 바탕의 배경은 파스텔 톤의 붉은 색. • 잔잔하고 고운 파스텔톤 색채로 전체적인 이미지를 만듦. • 주머니 모양의 형태 안에는 모과 열매와 자전거나 세로 배열로 나란히 배치됨, • 오른쪽 중앙에 문자가 왼쪽에는 북주머니 같은 형태의 이미지가 배열됨.
	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 겨울이 지나고 봄 소풍을 갑니다. 설레임 가득한 그 길이 싱그럽고 활기칩니다. 또 다른 추위가 기다리지만 오늘은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대상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기가 넘치고 설레임 가득한 봄놀이 가는 풍경. • 북주머니 모양의 외형적 틀 안에 모과열매와 자전거. • 모과는 봄의 향기, 색감, 등의 상징적 표현으로 묘사. • 자전거는 소풍을 떠나면서 활기차고 싱그러운 마음을 전하는 메시지. • 추운 겨울이 다시 올 것을 알지만 지금의 이 시간을 기쁨으로 만끽함 • 전체 이미지는 밝고 곱고 부드러운 형태. 	
해석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계절의 새 봄을 맞이하는 기쁨은 반복 되어 돌아오지만, 늘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 • 오늘을 오늘로 맞이할 때만이, 누릴 수 있는 소중한 선물은 기쁨과 설레임으로 함께 한다. • 전체인 색감과 형상은 향기롭고 달콤한 봄의 정취를 형상화했다. •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오늘을 놓치지 말고, 현재를 감사하게 살아가자. • 자전거는 동적인 젊음, 모과는 후각적 향기를 내뿜는 듯, 경쾌한 생동감이 펼쳐진다. • 북새야, 일어라. 마파람아, 불어라. 나의 사랑하는 임이 이 동산에 오서 달콤한 열매를 따 먹도록, 내 동산의 향기를 퍼뜨려라(아가 4,16). • 자귀나무가 향기를 뿜는데, 문 밖에는 온갖 열매가 있습니다. 햇것도 해묵은 것도 입을 기다리며 마련해 두었습니다(아가 7,14). 	

표 66. 『어떤 선물』 삼분법적 의미 작용 분석-프레임 21

프레임 21		본문
표상체	이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흰색 바탕에 생략되고 깔끔한 배경 • 딱딱하고 단단해 보이는 상자에 사람의 얼굴들이 스케치한 드로잉 선으로 묘사됨 • 박스는 푸른색의 비취의 같은 색감이 주된 색으로 다채로운 색들이 조금씩 보임 • 오른쪽에는 박스 이미지가, 왼쪽에는 문자가 배열됨
	문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래도, 그래도, 그래도 당신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나를 나보다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분. 당신이 있어 어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대상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묵상 • 박스 안에 보이는 사람얼굴형상에 무엇인가 탄 듯, 태운 듯, 흔적으로 패턴이 이루어짐. • 견고하고 단단해 보이는 상자는 하나의 건축물 같은 형상 • 당신으로 인하여 성숙해지고, 그 성장으로 어른이 된다. • ‘그래도’ (3번 반복: 강조함)는 부사, 뒤 문장의 내용이 앞 문장을 양보한 사실과는 상관이 없음을 나타냄. ‘그러하여도’, ‘그리하여도’ 가 줄어든 말. 	
해석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신의 존재가 나에게 긍정으로만 존재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래도 당신이 없는 것 보다 있는 게 좋다. • 사람과의 관계는 우리를 성숙한 인간으로 완성시킨다. • 사람은 우리에게 커다란 선물이다. 그들을 통해 은혜도 함께 한다 • 사람은 완고하고 단단하고 때론 상처를 주는 존재이기도하다. • 태워지고 그을린 자국은 그러한 관계성의 흔적으로 표현되었다. • 전체인 색감과 형상은 초록의 심연, 바다 같은 구역으로 모여 산다. • 신앙적인 관점에서 사람과의 관계는 하느님께 요구하시는 사랑의 실천이다. 하느님과 관계 다음으로 중요한 타인과의 관계에 관해 두 가지 계명을 꼭 지키라고 명령 하신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한다(마태 22,39).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마태 25,40ㄴ). 내 양들을 돌보아라(요한 21,17ㄷ). •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서 공동체적 삶이 없다면 살아갈 수 없다. 서로를 향한 도움과 협력에 인색하지 말아야한다. 	

표 67. 『어떤 선물』 삼분법적 의미 작용 분석-프레임 22


프레임 22		본문
표상체	이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캠퍼스 붓질 질감을 가진 노란색 바탕의 배경은 연한 채도로 표현. • 노란색 봉투의 무늬는 동그라미 패턴, 외곽선은 회색의 테두리로 이중으로 묘사. • 쪼그리고 앉아 고개를 숙여, 상심한 듯한 아이의 이미지. • 오른쪽에는 사람의 이미지가 왼쪽에는 문자가 배열.
	문자	<p>•나의 절망과 부서진 마음을 아시는 분. 모자란 나를 불쌍히 보지 않으시고 어여뻐 보아 주시는 그대 저의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새벽빛처럼 다가와 위로와 안도를 주십시오.</p>
대상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밝고 환한 원색적인 봉투에 비해 그 안에 앉아 있는 아이는 어둡게 표현됨. • 고개를 숙여 웅크리고 있는 침울하고 정적인 포즈와 용기를 말하는 문장은 위로와 사랑의 메시지. • 나를 알아주시고 어여뻐 보아 주시는 분. •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해주십시오하고 염원하는 기도. • 상자는 작은 방과 같은 공간을 만들며, 쪼그려 앉은 소외된 아이. 	
해석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기소침해져 슬픔에 잠겨 있는 소녀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치유와 회복의 단계적 마음의 변화. • ‘너의 빛이 새벽빛처럼 터져 나오고 너의 상처가 곧바로 아물리라’ 고 한 성경구절을 떠올리게 함. • 슬픔에 잠긴 듯, 정적인 이미지와 앞서 올 회복의 메시지, 즉 희망의 메시지로 위로함 • 전체인 색감과 형상은 고요함과 따뜻함을 표현해 치유와 회복을 암시 • 나에게 슬픔이 닦혔을 때, 거기에 잠시 주저앉아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시기는 지나갈 것이다. • 네 기도를 내가 들었고 네 눈물을 내가 보았다. 내가 너의 병을 낫게 해주리라. 삼 일 만에 너는 야훼의 전에 올라가게 되리라(열왕II 20,5). • “애야, 용기를 내어라. 하늘의 주님께서 너의 그 슬픔 대신에 이제는 기쁨을 주실 것이다. 애야, 용기를 내어라.” 그리고 나서 아드나는 방을 나갔다(토빗 7,17). • 그리하면 너의 빛이 새벽빛처럼 터져 나오고 너의 상처가 곧바로 아물리라. 너의 의로움이 네 앞에 서서 가고 주님의 영광이 네 뒤를 지켜 주리라(이사 58,8). 	

표 68. 『어떤 선물』 삼분법적 의미 작용 분석-프레임 23


프레임 23		본문
표상체	이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흰색 바탕의 배경은 거친 캔버스 붓질 질감. • 작고 검은 물고기의 동적인 묘사 하얀색 상자를 바라보는 물고기 시선의 사실적으로 묘사 • 배경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게 묘사된 하얀 상자 • 오른쪽에 상단에 물고기 이미지, 왼쪽 중앙에 하얀 상자, 하단에 문자가 배열됨
	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총이 가득한 오늘, 잊혀지고 사라진 선물들이 떠오릅니다. 그것들이 무엇이었는지,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 이제야 새삼 궁금합니다.
대상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개에 묻혀 있는 듯, 물속에 있는 듯, 비현실적인 공간과 색감. • 기억과 상실에 관하여 이야기함. • 은총이 가득한 시간에 떠오른 기억들을 더듬어 생각함. • 하얀 박스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의문을 가지게 함. • 조금은 열려져 있는 하얀 상자를 향해 시선을 고정한 검은 물고기. 	
해석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문을 가지고 명확한 답을 묻는 듯, 다가가고 있는 동적 움직임은 우리에게 주어진 은총의 시간들이다. •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선물들을 관심도 없이, 잊고 지낸다. • 물고기의 눈동자가 향한 방향성은 성찰로 초대하는 명료함을 대변. • 전체인 색감과 형상은 시간이 멈춘 듯, 신비스러움, 정적, 안정감, 고요함을 구축. • 주님, 저의 기도가 당신께 다다르게 하소서. 은총의 때입니다. 하느님, 당신의 크신 자애로 제게 응답하소서. 당신은 참된 구원이시옵니다(시편 69(68),14). 	

표 69. 『어떤 선물』 삼분법적 의미 작용 분석-프레임 24


프레임 24		본문
표상체	이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깊은 바다 속 혹은 하늘 같은 넓고 깊은 푸른색의 배경. • 왼쪽 핑크색 지도 무늬 봉투. • 크고 작은 하얀 색 고래 두 마리. • 오른쪽 상단에 아파트단지가 흐릿한 형태로 보임.
	문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의지와 상관 없이 어떤 힘으로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우연이 우연을 거듭하여 기적을 만들어 갑니다.
대상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머리서 보이는 희미한 아파트 단지들이 아련하게 보임. • 바닷속 풍경 같기도 하고 하늘 위의 풍경 같기도 한 몽환적 이미지. • 봉투 속에 있는 복잡한 지도 속 장소가 보인다. • 고래는 유유자적하게 공간을 가로지르고 있다. 	
해석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의 공간에서 고래와 봉투는 신비하고 이상한 형상과 색감으로 공중에 부유하듯, 존재하고 있다. • 인생의 기적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하느님이 정하신 그 때,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하느님의 선물이라고 말한다. • 흰 고래는 의외의 형상으로서 놀랍고 비밀스러움과 신비함을 보여주며 기적의 상징체다. • 조용하고 차분한 느낌, 사색적이고 서정적인 이미지로서 인생의 기적 같은 선물들에 대한 성찰을 묵상하게 한다. • 우리의 노력과 의지가 개입되지 않은 많은 일에 예상치 못한 행운들이 이어져 놀랍고 감사하다. 부모의 사랑도 이와 같이 자식에게 미리 헤아려 챙겨주고 배려해주는 사랑일 것이다. • 그 분께 노래하여라. 그분께 찬미 노래 불러라. 그 모든 기적을 이야기하여라(역대 16.9). •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 자애를 사람들을 위한 그 기적들을(시편 107,8). 	

표 70. 『어떤 선물』 삼분법적 의미 작용 분석-프레임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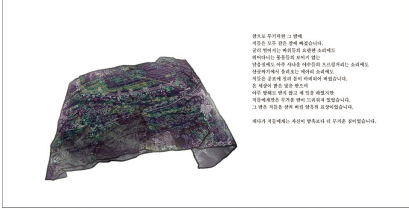
프레임 25		본문
표상체	이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구가 접혀진 검은 봉지의 이미지, 흰색 바탕에 생략된 배경 • 검은 봉지의 꺾데기에 오래된 지도가 사실적으로 묘사 • 지도 선의 색감은 흰색 가는 선으로 나무와 집, 길이 표현되어 있다. • 오른쪽에는 문자가 왼쪽에는 이미지가 배열됨
	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깊은 잠에서 깨어나려 해도 헤어 나올 수 없었던, 무기력한 그 밤에 늘처럼 밀려오는 어둠은 치유되지 않았던 상처들입니다.
대상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들이 겪는 절망상태의 무기력한 밤을 이야기함. • 치유되지 않는 상처들은 늘처럼 발목을 잡고 어둠으로 향하게 한다. • 검은 봉지는 어떤 옛 도시의 어두운 밤을 표현함. • 옛지도 문양이 봉지 꺾데기에 ‘깜깜한 밤의 마을풍경’으로 형상화. 	
해석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통의 시기는 그 고통이 해결되기 전까지 아무리 벗어나려 해도, 그 어려움에 붙들려 헤어 나오기 힘들다. • 삶의 여정에서 겪는 질병, 슬픔, 고통, 시련, 절망 등의 어둠의 시기. • 조용하고 차분한 느낌의 간혀진 듯, 소외된 듯, 폭풍전야의 고요함 • 자신의 생각, 의지, 행동이 뜻하는 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고 느낄 때, ‘무기력한 밤’, ‘늘처럼’ 생각된다. • 내면적 고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이미지. • 지난날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되지 않고 왜곡되어 현재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성찰함. • 밤이 끝나면 기필코 새벽은 온다. 약한 존재인 나는 스스로는 어둠을 걷어 낼 수 없지만,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그 어둠을 끝내고 한다. 내면의 어둠은 치유라는 과정을 거쳐 새벽을 맞이한다. • 어둠 속을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봅니다. 암흑의 땅에 사는 이들에게 빛이 비칩니다. 당신께서는 즐거움을 많이 하시고 기쁨을 크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당신 앞에서 기뻐합니다(이사 9,1-2). 	

표 71. 『어떤 선물』 삼분법적 의미 작용 분석-프레임 26

프레임 26		본문
표상체	이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낮은 채도의 갈색 봉지 흰색 바탕에 생략된 배경 • 봉지 안에는 건물이 가득 든 도시의 풍경이 반 사실적인 표현으로 담겨져 있다. • 오른쪽 이미지는 쾌적한 현대 도시의 건축물이자 생활환경. • 지도이미지가 배경사이사이에 배경으로 깔림 • 왼쪽에는 문자가 오른쪽에는 이미지가 배열됨
	문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는 흙에서 온 것을 잊고 사는 사람 그러나 언젠가 흙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정해져 있는 사람.
대상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할 수 없는 부동산을 봉투에 담아 형상화. •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건축물이며 쾌적한 현대 도시의 환경이다. •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 죽는다. 그 명명백백한 사실을 잊고 사는 사람. • 유한성을 가진 사람의 생명, 재산, 재물을 묘사. • 다갈색의 세련되고 도회적인 색감 그 이미지 사이에 지도 같은 패턴. 	
해석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려하고 세련된 도시의 풍경은 세속적인 가치와 물질만능주의가 만연한 현대사회의 모습이다. • 하느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고 사람은 죽으면 흙이 된다. •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지만 영원히 살 것 같이 욕심을 버리지 못한다. • 사람은 재물에 욕심을 두고 끊임없이 소유하려하지만 결국 빈손으로 죽어야 할 처지이다. • 흙에서 온 것은 흙으로 돌아가고, 물에서 온 것은 바다로 돌아간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양식을 먹을 수 있으리라. 너는 먼지이니 먼지로 돌아가리라(창세 3,19). 교회력 사순절의 메시지, 흙에서 온 것은 흙으로 돌아가고, 물에서 온 것은 바다로 돌아간다는 신앙적 메시지. • 기억해 주십시오, 제 목숨이 한낱 입김일 뿐임을. 제 눈은 더 이상 행복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욥기 7,7). 	

표 72. 『어떤 선물』 삼분법적 의미 작용 분석-프레임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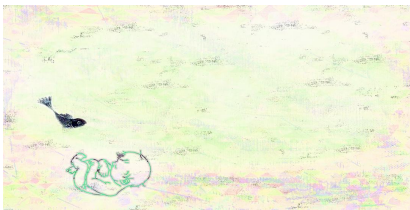
프레임 27		본문
표상체	이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낮은 채도의 거친 붓자국이 있는 캠퍼스의 질감을 가진 따뜻한색이 주가 된 배경. • 왼쪽 하단에 갓난아기와 물고기가 마주한다. • 갓난아기는 하늘을 향해 누워있음. • 연한 파스텔톤의 포근한 이미지와 사실적인 아기와 물고기의 형상
	문 자	•없음.
대상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넓은 공간에 왼쪽 하단에 아기와 물고기가 서로 가까이 배치. • 아기의 모습은 무방비 상태의 태아 같은 모습. • 평화롭고 안온한 풍경, 색감과 형상은 물속에 있는 듯, 조용하고 정적인 분위기. • 본문 페이지 중 유일하게 문자가 없는 프레임. 	
해석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궁 안에 있는 아기, 보호 받고 사랑받는 평화로운 형상. • 물고기는 친구, 부모, 보호자, 돌봄이, 천사 같은 우호적인 느낌의 동적인 생물체로 등장하여 아기 주변을 배회한다. • 천국의 평화를 느끼게 하는 고요함.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는 비밀스럽고 아름다운 사랑과 공간으로의 초대하는 메시지. • 전체인 색감과 형상은 시간이 멈춘 듯, 신비스러움, 정적, 안정감, 고요함을 구축. • 하느님께서 보시니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이 참 좋았다(창세 1,32). 태초의 모든 것들이 하느님 보시기에 참 좋은 것이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시기, 질투, 비교하는 마음들로 인해 퇴색한다. 갓난아기가 타인에게 온전히 의지하며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내 듯, 우리도 자신의 벼은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 어린아이처럼 하느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삶을 이야기한다.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이 확연해지는 시간이기도 하다. 	

표 73. 『어떤 선물』 삼분법적 의미 작용 분석-프레임 28

프레임 28		본문
표상체	이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낮은 채도의 거친 붓자국이 있는 캠퍼스의 질감을 가진 밝은 채도의 배경. • 하얀색 비닐봉지가 오른쪽 상단에 둥둥 날아가듯, 멈춘 듯 떠 있다. • 봉지의 외곽선은 붉은색 계열의 혼합색. • 왼쪽 하단에 문자가 배치.
	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선물은 무엇입니까? 긴 여정을 끝낸 고단한 자의 쉼터? 서럽던 세월을 위로해 줄 안락한 위로처?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평화의 집인가요? 두려워할 저를 따뜻한 손길로 이끌어 주십시오.
대상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문 마지막 프레임. • 배경과 봉지가 구별되지 않을 것 같이 비슷한 톤으로 구성됨. • 오른쪽 상단에 하늘로 날아가는 봉지, 반투명한 상태로 뒤집어져 있는 상태 봉지로 배치됨. • 마지막 선물에 대한 질문, 추측, 의탁과 바람을 적음. • 전체인 색감과 형상은 시간이 멈춘 듯한 신비스러움, 정적, 안정감, 고요함을 구축. • 배경의 거친 붓의 터치는 바람이나 공기의 흐름을 형상화. 	
해석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얀 봉지는 육체를 떠나 하늘로 향하는 영혼(죽음의 상징체). •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느님께 향한 의탁과 희망과 믿음의 메시지. • 쉼터, 위로처, 평화의 집 같은 아름다운 거처를 소망함. • 빈껍데기는 날아가고 보이지 않는 영혼의 행선지를 추측하게 함. • 하느님께서 돌보아주시리라는 큰 믿음과 확신. • 죽음을 거쳐 향하는 여정의 종착점은 하느님의 집. • 성경에 천사들이 롯에게 성읍의 멸망을 알리자, 망설이는 롯의 손을 잡고 데리고 나가는 장면(창 19,16)이 나온다. 우리의 미래는 예측 할 수 없으므로,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모르며 표류한다. 언젠가 죽을 인간의 유한한 여정에 주님을 향한 믿음은 엄마 손을 잡고 있는 아이와 같이 두려움이 없고 못 갈 곳이 없는 상태가 된다. 믿고 의탁할 수 있는 주님의 손길이 늘 우리를 이끌어 준다면 어떠한 순간에도 기쁘고 감사할 수 있기에 청원기도(엄마 어디 가지마! 엄마 내 손을 놓지 마!)를 올린다. 	

3. 『어떤 선물』의 기호학적 분석 결과

철학적 그림책 『어떤 선물』의 기호학적 제작 분석 과정을 결과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대사회는 전 세계 지구공동체에서 사용되는 일회용 봉투의 환경 파괴와 훼손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을 바탕으로 외적으로 드러나는 표피적인 유한성에 대한 성찰을 철학적 그림책을 제작할 때 기본 배경으로 삼았다. 묘사된 구상적 이미지는 물질과 정신을 동시에 담고 있는 반투명성과 신비스러움을 내재한 봉투, 상자, 쇼핑백 등으로 구성하였다. 그림책을 기획하면서 제목은 주제와 합당한 『어떤 선물』로 정하였다. 그림책 본문에 있는 문자 텍스트는, 최장기 베스트셀러이며 많은 학자와 예술가에게 영감을 주었던 ‘성경’에 영감을 받은 묵상들이다. 20년 이상 ‘가톨릭성서’ 공부를 하면서 느낀 감동과 지혜를 담아내고자 하였다. 우리가 거저 받아 누리는데 어떤 선물에 관한 이야기로 역어진다.

둘째, 그림책 『어떤 선물』을 만들기에 앞서 ‘그림책의 7유형 분석’를 통해 그림책들의 유형별 특징을 알아보았다. 먼저 그림책 『어떤 선물』은 낱장보다는 하나의 묶음으로 만들어진 그림책으로 제작하려 하고 그 문장은 본인의 묵상글이다. 그림책 『어떤 선물』은 통일된 메시지로 이루어진 묶음의 형태로, 각 프레임은 연결성을 갖고 한 권의 책으로 취합된다. ‘그림책의 7유형 분석’에서 이러한 특징을 살릴 수 있는 유형은 비연대기적 통합체다. 그림책 『어떤 선물』은 주인공도 없고 순차적인 일정이나 사건,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비연대기적 통합체라 분류될 수 있다. 이 그림책의 구조는 봉투 안에 들어 있는 ‘어떤 선물’이라는 일관된 주제로 이어진다. 개별적인 프레임에서 각기 다른 단상들로 변화를 주어 각각의 차별되는 소재(각 프레임)들은 교차 없이 ‘선물’이라는 단상을 묘사한 그림책이다. 이

러한 특징은 ‘그림책의 7유형 분석’의 세 번째 유형인 ‘괄호연결통합체’이며, 작가 본인은 계획에 적합한 비연대기적 통합체인 ‘괄호연결통합체’ 그림책 유형을 선택하여 그 특징을 바탕으로 제작하였다.

셋째, 기호학은 두 가지 흐름을 가지고 연구되어 왔는데 그중 하나인 구조주의 언어적 기호 체계인 통합체와 계열체 방식인 이분법적 의미 작용 방법이다. 먼저 이러한 방식으로 언어적 요소를 집중적으로 분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림책 『어떤 선물』을 전체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제작 중에 검증을 위해 활용하고자 하였다. 통합체와 계열체 분석표를 만들어 『어떤 선물』은 구간별(시퀀스) 분할로 전체적인 사유의 진행, 연결 과정들을 확인하고 배열하는 데 이용할 수 있었다. 또 통합체 분석으로 이항대립적 요소들을 찾아 문장 안에서의 갈등과 대립적 요소들이 적절히 배치되었는지 확인하였다.

넷째, 낱장별로 세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비언어적 분석 체계인 ‘삼분법’은 앞서 활용했던 언어적 기호 체계인 이분법적 방식과 차별되는 분석 방법으로 정밀하고 구체적인 검증을 위해 이용하였다. 그림책 『어떤 선물』은 ‘프레임 29(전체 페이지)’로 나뉘어, 삼분법의 틀에 넣어 살펴보았다. 먼저 그림책 전체를 주변 텍스트와 본문 텍스트로 나누었다. 각 프레임 29개를 삼분법의 표 3에 대입하여 ‘표상체’, ‘대상체’, ‘해석체’로 분리해, 세부적인 것들의 외적 구성과 내용적인 측면을 검증하고 걸러내는 과정으로 활용하였다.

이와 같은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기호학적 분석 방법은 다층적이고 다의적인 철학적 『어떤 선물』을 제작할 때 그림책의 전체적이고 커다란 흐름과 동선을 탐색하고, 세부적이고 함축적인 부분을 단계적으로 점검하는 도구로서 철학적 그림책을 만드는 데 활용되었다.

VI. 결 론

21세기 현대 그림책 시장에는 실험적이고 독창적인 형태의 작품성을 지닌 다양한 그림책들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어린이들의 전유물이었던 단순하고 평면적이었던 과거의 그림책과 차별화된 더욱 다층적 의미가 내재된, 예술적 가치를 지닌 작품으로서의 그림책은 세대를 초월하여 독자층과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그림책 안에서 만나는 철학적 성찰은 급변하는 이 시대에 수많은 지식, 넘치는 정보, 다양한 가치관 속에서 근본적인 삶의 문제를 사유하게 하는 가치 있는 질문들이다. 철학적 그림책의 출판 증가와 국제 공모전의 수상작들을 통하여 이런 관심과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철학적 그림책은 심층적 의미를 내재한 복합적이고 상징적인 형태를 하고 있다. 새로운 경향의 그림책에 대한 대중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이런 그림책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나 체계적인 분석 방법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철학적 그림책들이 현대인들에게 어떠한 가치와 의미를 갖는지 연구하고 기호학적 분석을 통해 함축되고 내재된 내용과 구조에 대해 알아보았다. 명확하고 단순한 기존의 그림책과 달리 철학적 그림책은 더욱 많은 상징과 의미들을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 다층적 의미를 가진 이런 철학적 그림책을 효과적으로 독해하고 교감하기 위해 기호학적 분석에 대한 기존 연구 결과를 검토하고 3단계에 걸친 기호학적 분석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이보나 호미엘레프스카의 『마음의 집』을 분석하고, 그림책 『어떤 선물』을 직접 제작하는 과정에서 전체 구조와 각 페이지를 점검하는 도구로 활용하였다. 이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현대 그림책 시장에서 높은 예술성과 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그림책을 ‘철학적 그림책’이라 명명하고 정의하였다. 철학적 그림책은 삶을 성찰하는 메시지와 미술 작품적 요소가 어우러져 현대인들에게 삶의 의미를 반추하고 사유하게 하는 예술 매체다. 바쁜 일상으로 인해 두껍고 어려운 책을 꺼리는 현대인에게 높은 작품성을 갖춘 철학적 그림책은 예술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예술적 매체로서 인식되기 시작한 그림책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성인 독자의 적극적인 활동과 호응으로 이어져, 타 장르와도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며 성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철학적 그림책을 ‘자의식의 성장과 성찰’, ‘타인과의 관계’, ‘사회적 인간으로서 환경과 세상과의 연대’와 같이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철학적 메시지가 독자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전달하고 소통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였다.

둘째, 철학적 그림책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표현과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러한 철학적 그림책을 더욱 효과적으로 독해하는 방법으로 3단계의 기호학적 분석 방법을 제시하였다.

1단계는 ‘그림책의 7유형 분석’으로 각각의 그림책을 통합체적 기호로 보고 전체 스토리와 구성 형식으로 그림책의 유형을 파악하는 서사적 분류 체계에 따른 분석이다. 그림책의 7유형 분석은 크리스티앙 메츠가 영화 분석에 활용한 기호학적 연구를 응용한 것으로 그림책 분류에 적합하도록 각 항목을 수정·보완하였다. 일반적인 그림책 분류 체계가 주제나 학문적 카테고리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라면 그림책의 7유형 분석은 서사적 연결 흐름에 따라 그림책을 분류하여 기존 분석과 차별된다. 그림책과 영화라는 두 장르의 기초가 되는 ‘서사적 연결 형태’에 주목하여 접근한 새로운 연구 방법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2단계는 그림책 한 권을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언어적 기호 체계의 ‘이분법적 의미 작용 분석’으로 소쉬르의 이분법 개념에 중점을 둔 분석 방법이다. 전체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표를

만들어 이분법의 개념 원리인 순차적인 통합체의 흐름과 계열체를 분석하였다. 그림책 구성의 커다란 흐름을 찾아 문단을 나누고 이항대립 요소를 찾아 종합적인 체계를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 단계는 각 페이지를 면밀히 분석하는 비언어적 체계의 ‘삼분법적 의미 작용 분석’ 방법이다. 퍼스의 삼분법은 기존의 그림책을 분석하는 이분법적 방법들 중에서 바르트르의 신화 개념과 그레마스의 행위소 분석을 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분석 과정이 명료하고 실용적이다. 또한 무한하게 계속 이어져 해석할 수 있는 세미오시스라는 개념을 지닌 분석 방법으로서 그림책을 분석하는 마지막 단계에서 이상적인 방법이다. 삼분법의 표상체, 대상체, 해석체의 의미 작용이 일차성, 이차성, 삼차성으로 단계적으로 분석된다.

기존의 그림책의 분석 연구는 이분법적 계열과 삼분법적 계열의 분석 방법으로 나누어진다. 소쉬르의 이분법 체계는 그림책을 분석하기에는 너무 간단하고 단순하여 바르트르의 신화나 그레마스의 사각형 행위소 같은 개념이 추가되어 발전하였다. 바르트르의 분석 방법은 여러 층의 분석 단계로 나누어져 복잡한 층위를 지닌 매체를 분석하는 데에는 용이하지만, 간단한 구조의 그림책을 분석할 경우에는 오히려 그 세분화된 틀이 필요하지 않다. 그레마스의 행위소는 주인공이나 사건의 동선을 중심으로 한 분석 방법으로 그런 요소들이 배제된 현대 그림책을 분석하는 데에는 적절하지 않다.

삼분법은 그림책의 세부 구조와 전체 구조를 연구하는 데 탁월한 분석 방법이지만, 그림책은 낱장이 모여 이루어진 거대한 통합체로서 개별적 프레임 간의 연결과 흐름을 파악하기에는 아쉬운 측면이 있다. 기존의 분석연구들이 이분법적 분석 방법과 삼분법적 분석 방법으로 구분되었다면, 본 연구에서는 두 연구 방법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독자적인 방법들을 취사선택하고, 효과적으로 보완하여 새로운 단계별 분석 방법을 도출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서 제안한 3단계의 기호학적 분석 방법으로 세계적인 권

위의 국제 공모전 수상작이자 철학적 그림책인 『마음의 집』을 분석하였다. 『마음의 집』은 현재 한국에서 철학적 그림책 작가로 활발히 활동 중인 이보나 호미엘레프스카의 작품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볼로냐 라가치상 수상작이기도 하다. 세계적 비평가들에게 극찬을 받은 그림책을 기호학적 방법으로 단계별로 분석함으로써 작가의 의도와 상징적 요소들을 면밀하게 찾아내고 그 체계와 내용을 심도 있게 유추하였으며 작품 속에 숨어있는 예술적 표현들을 찾아낼 수 있었다. 이 그림책은 스토리나 사건을 중심에 두지 않고 그 속에 담긴 인간 삶에 대한 사유와 성찰의 메시지가 전달에 중심을 둔, 그림책의 7유형 분석의 ‘괄호연결통합체’로 전개된다. 철학적 그림책은 서사 유형에 영향을 받지 않고 다채로운 형식으로 표현되고 제작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두 번째 이분법적 의미 작용 분석 단계를 통하여 『마음의 집』의 통합체적 구조와 각 페이지의 계열체적인 요소를 연구하였다. 구간별(시퀀스) 분할로 중심 주제가 되는 사유의 흐름, 질문의 형식, 성찰의 진행 등 구조를 파악하고 문장 안에서의 갈등과 대립의 이항대립적 요소를 찾는 분석으로 조화롭고 완성도 있는 언어적 구성과 짜임새를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 삼분법적 의미 작용 분석을 통해 『마음의 집』의 미술적 표현 방식, 문자적 의미 전달, 내적 외적으로 내포된 철학적 메시지와 예술적 표현의 비언어적인 측면을 세부적으로 탐색하여 교감하였다. 『마음의 집』은 마음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종이 집’이라는 가시적인 이미지로 표현하여 찢기고, 상처받고, 얼룩질 수 있는 마음의 변화들을 묘사하였고,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관계성을 생각하게 하는 그림책이다. 현대인들에게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는 성찰을 이끌어 내며 자신의 마음을 치유하고 타인의 마음에 공감하게 하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었다. 단순하고 절제된 색채와 구도, 글과 이미지가 조화를 이루어 더욱 탁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언어적, 비언어적 기호학의 분석 과정을 통하여 이 그림책이 가지는 깊

이 있는 철학적 메시지와 예술적 의미를 짚어나갈 수 있었다. 『마음의 집』의 분석을 통해 독자가 무심히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밀도 있게 접근하여, 작가의 함축적 의미를 심도 있게 독해하는 분석 도구로서의 유용성을 확인하였다.

넷째, 철학적 그림책인 『어떤 선물』을 직접 제작하였다. 그림책에 등장하는 봉투들은 상점, 마트 등에서 누구나 일상적으로 주고받는 소모품들이다. 봉투는 물질적 유한성을 지닌, 인간을 비롯한 모든 자연과 사물들의 구체적인 외형을 표현한다. 『어떤 선물』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거저 받은 거’라고 생각하며 그 안에 깃든 감사에 대한 사유를 형상화하였다. 우리는 일상적이고 평범한 삶이 얼마나 소중한고 감사한 일인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 『어떤 선물』은 삶에서 만나는 과거, 현재, 미래의 ‘선물’에 대한 이야기다. 이 그림책에서 언급하는 선물들은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주어진 것, 존재하는 환경이나 물질, 감정까지도 포함한다. 영속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인간의 삶과 자연의 모든 것은 유한성을 지닌 선물이다. 선물은 주체적 의지로 생성되지 않고 존재의 노력과 의지와도 상관없이 타자에게 전달되어 일정 시기가 지나면 소멸된다. 인간도 본인의 의지와 상관 없이, 태어나 사멸하는 한정된 삶을 살기 때문에 봉투나 상자의 유통 기한과도 일맥상통한다. 가치 없이 생각하는 봉투 같은 소모품은 이러한 우리의 평범한 삶의 상징체이며 봉투 안의 이미지들은 소중한 ‘어떤 선물’을 담고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유한한 것임을 안다면 누리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질 것이다. 우리가 거저 받아 누리는 많은 혜택과 은총들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길 바라는 마음과 그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들인가를 깨달으면서 현재를 살아가기를 바라는 메시지를 담았다. 이 그림책을 제작할 때 위에서 제시한 기호학적 분석 방법을 도구로 활용하였다. 철학적 그림책 『어떤 선물』의 전체적 주제와 계획을

세우고 3단계의 기호학적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어떤 선물』을 제작하였다. 프레임마다 독립적인 하나의 스토리를 가지고 철학적 메시지를 건네는 서사 구조인 괄호연결통합체의 유형을 선택하였다. 그림책의 7유형 분석은 서사 유형 중 비非연대기적 통합체의 형식으로서 통합된 줄거리 없이 시간과 사건의 흐름을 따르지 않는 특징을 가진, 세 번째 유형이다. 이분법적 의미 작용 분석에 대입하여 『어떤 선물』의 전체 구조와 문단의 기승전결, 문단의 흐름, 이항대립적 요소들이 적절히 배치되었는지를 점검하였다. 본문 텍스트의 시작과 마지막을 처음 받은 선물과 마지막 받을 선물로 대치시키고 주변 텍스트의 배열도 반복하여 주체가 되는 이미지와 표현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삼분법적 의미작용 분석 틀을 통해 각 프레임의 세부적 요소들을 체크하며 완성도를 높였다. 『어떤 선물』에서 일관되게 반복되는 봉투와 상자 속에 담긴 철학적 메시지는 사랑, 위로, 축복, 격려, 공감 등의 인생 여정에서 만나는 소중한 선물들이다. 이러한 작가의 의도가 프레임별 미술적 표현 방식, 문자적 의미 전달, 내적·외적인 요소들에 적절히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조율하였다.

맥루언(McLuhan)은 낡은 매체는 새로운 매체의 내용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또 낡은 매체 형식은 새로운 매체 형식으로 전환되어 모습을 드러내기도 한다고 말한다¹³⁵⁾. 그림책은 짧고 의미 있는 메시지와 예술적 시각 이미지를 담을 수 있는 매체이며, 디지털 매체 시대에 과거에 대한 복고적인 향수를 일깨우면서 동시에 오늘의 삶을 반영한 농도 깊은 철학적 사유를 담기에 적합한,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매체다. 현대인들에게 ‘그림(繪畫)’은 여전히 소수를 위한 예술 장르이고 그들만의 리그로 단혀 있다. 고급스럽고 특별하고 어렵고 비싸다는 인식은 대중의 접근성을 막고 오히려 그 본연의 미술적 가치와 매력을 쇠퇴하게 만들고 있다. 복제된 작업이 더 이상의 아우라를 지닐 수 없다는 편견을 버린다면, 이 시대에 그림책의 영역은 미술적 가치를 가장 효과적이

135) Marschall McLuhan, 『Understanding Media: The Extensions of Man, 미디어의 이해』, 커뮤니케이션북스, 1997, PP.26-27

고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대중적 매체로서 발전될 수 있다. 그림책에서 만나는 철학적 메시지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단순한 것들 속에 있는 삶의 의미, 다양한 교훈, 인생의 진리, 도적적 방향성을 질문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기호학이론을 바탕으로 철학적 그림책을 하나의 기호체로 보며 접근하여 더욱 깊이 있는 감상과 창작을 이끌어 내려고 하는 논리적인 분석 도구에 관한 연구다. 현대인들에게 철학적 사유와 예술적 감성을 일깨우는 새로운 예술 매체인 철학적 그림책에 대한 기호학 분석은 철학적 사유를 더욱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또한, 철학적 그림책을 기획하는 제작자나 작가가 점검하는 분석 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철학적 그림책의 기호학적 연구들을 통하여 더욱 수준 높은 철학적 그림책들이 보급되고 많은 독자의 호응과 관심으로 이어져 철학적 그림책을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기 바란다. 철학적 그림책이 삶의 의미를 각성하게 하고, 미술작품을 향유하게 하는 바람직한 대중적인 매체로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 이러한 철학적 그림책이 현대인들에게 ‘어떤 선물’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국내 문헌

단행본

- 강미정, 퍼스의 기호학과 미술사, 이학사, 2011
- 개러스 매슈스, 남기창(역), 아동기의 철학, 2013, 필로소픽, 2013
- 게오르크 W. 베르트람, 언어, 의미 그리고 철학, (주) 박이정, 2015
- 기쿠치 치키,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 시공주니어, 2017
- 김경용, 기호학이란 무엇인가, 민음사, 1994
- 김영욱, 그림책 영화를 만나다, 교보문고, 2010
- 김우창 외 6명 역음, 103인의 현대사상: 20세기를 움직인 사상의 모험가들, 민음사, 2003
- 다비드 칼리(저), 세르주 블로슈(그림), 적, 문학동네어린이, 2008
- 다비드 칼리(저), 세르주 블록(그림), 싸움에 관한 위대한 책, 문학동네어린이, 2014
- 대니얼 챌들러, 미디어기호학, 소명출판, 2006
- 데이비드 루이스, 현대 그림책 읽기, 작은씨앗, 2008
- 람바로스 자, 물 속 생물들, 보림
- 레오 리오니, 프레드릭, 시공주니어, 2017
- 레이먼드 브릭스, 눈사람 아저씨, 마루별, 2000
- 로리 슈나이더 애덤스, 미술사방법론, 서울하우스, 2014
- 로이 미키(저), 줄리 플렛(그림), 구조 바람, 씨드북, 2018
- 로제 폴 드루아, 이창실(역),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철학 이야기, 동문선, 2006

- 마셜 맥루언, 미디어의 이해: 인간의 확장, 커뮤니케이션북스, 2011
- 가와이 하야오, 마츠이 다다시, 야나기다 구니오, 그림책의 힘, 마고북스, 2003
- 마틴 솔즈베리, 모랙 스타일스, 그림책의 모든 것 Children' s Picture books, (주)시공사, 2012
- 모디케이 저스타인, 쌍둥이 빌딩 사이를 걸어난 남자, 보물창고, 2004
- 모르텐 뒤르(저), 라스 호네만(그림), 제노비아, 지양어린이, 2018
- 모리스 샌닥, 괴물들이 사는 나라, 시공주니어, 2002
- 미야니시 타츠야, 고 녀석 맛있겠다, 달리, 2017
- 바루, 꼬끼리는 어디로 갔을까?, 사과리, 2015
- 박영원, 광고디자인 기호학, 범우사, 2003
- 백선기, 미디어, 그 기호학의 해석의 즐거움,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7
- 백희나, 구름빵, 한솔수북, 2004
- 베아트릭스 포터, 피터래빗이야기, 더클래식, 2014
- 브라이언 와일드스미스, 펠리컨, 시공주니어, 1999
- 비르지니아 아라가 드 말레르브, 깃털과 단어, 보림, 2014
- 샤를로트 문드리크(저), 이경혜(역), 올리비에 탈레크(그림), 무릎딱지, 한울림어린이, 2010
- 세르주 블로슈(저), 다비드 칼리(그림), 나는 기다립니다, 문학동네, 2007
- 솔 운두라가, 여름 안에서, 그림책공작소, 2018
- 송문석, 예술의 기호 기호의 예술, 푸른사상사, 2006
- 손 탠, 도착, 사계절, 2008
- 신명호, 그림책의 세계, 김영사, 2009
- 실비아 반 오먼, 실비아 반 오먼, 사탕, 월천상회, 2018

- 아민 그레더, 빼앗긴 사람들, 지양어린이, 2018
- 아민 그레더, 섬, 보림, 2009
- 알랭 세르, 으르렁 아빠, 그림책공작소, 2016
- 앤서니 브라운, 돼지책, 웅진주니어, 2001
- 앤서니 브라운, 터널, 논장, 2018
- 에릭 칼, 배고픈 애벌레, 더큰, 2007
- 에즈러 잭 키츠, 휘파람을 불어요, 시공주니어, 2017
- 움베르토 에코, 김광현(역), 기호: 개념과 역사, 열린책들, 2009
- 윌리엄 스타이그, 슈렉, 비룡소, 2001
- 윌리엄 스타이그, 아모스와 보리스, 비룡소, 2017
- 윌리엄 조이스(저), 노은정(역), 달빛 왕자와 가디언즈의 탄생, 비룡소, 2012
- 유영옥, 상징과 기호의 사회과학, 홍익재, 2007
- 유타 바우어, 할아버지의 천사, 비룡소, 2014
- 이보나 호미엘레프스카, 두 사람, 사계절, 2008
- 이보나 호미엘레프스카, 블룸카의 일기, 사계절, 2012
- 이보나 호미엘레프스카, 우리 딸은 어디 있을까?, 논장, 2011.
- 이호백(저), 이억배(그림), 세상에서 제일 힘 센 수탉, 재미마주, 1997
- 재니 호커(저), 앤서니 브라운(그림), 아빠는 내 맘을 몰라, 푸른숲주니어, 2012
- 정진호, 위를 봐요, 은나팔, 2014
- 조창연, 기호학과 뇌인지과학의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북스, 2014
- 조창연, 이주영, 기호학과 미학, 커뮤니케이션북스, 2016
- 존 니클, 조세현(역), 개미나라에 간 루카스, 비룡소, 2006
- 존 버닝햄, 깃털 없는 기러기 보르카, 비룡소, 1998

- 존 버닝햄, 알도, 시공주니어, 2017
- 존 버닝햄, 야, 우리 기차에서 내려!, 비룡소, 1999
- 존 버닝햄, 우리 할아버지, 비룡소, 1995
- 찰스 키핑, 낙원섬에서 생긴 일, 사계절, 2008
- 크리스 반 알스버그(저), 신지식(역), 북극으로 가는 기차, 한국프뢰벨, 2003
- 크리스티안 메츠, 영화의 의미 작용에 관한 에세이 2, 문학과 지성사, 2011
- 클라우스 슈밥, 송경진(역), 제 4차 산업혁명(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새로운 현재(메가북스), 2016
- 페르난도 사바테르, 장혜경(역), 세상이 던지는 질문에 어떻게 답해야 할 까?, 갈매나무, 2012
- 피터 시스, 장벽, 아이세움, 2010
- 한스 요아힘 슈퇴리히, 박민수(역), 세계철학사, 이룸, 2008
- 헬메 하이네, 코끼리 똥, 베틀북, 2001
- 현은자, 강은진, 변윤희, 심향분, 최경, 그림책과 예술교육, 학지사, 2008

국내 학위 논문

- 김민규, 도상학과 기호학을 활용한 미술작품의 해석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2
- 김혜리, 동화의 이항대립과 화해의 양상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6
- 문지현, 어린이 도서 분류표 개발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8
- 박인하, 만화기호의 통합체적 구현 양상 연구, 광운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3

- 방혜옥, 공공도서관 영유아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2
- 이수경, 시각적 문해력 신장을 위한 창의적 수업 모형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6
- 이종호, 글 없는 그림책의 기호학적 의미와 구조 분석,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1
- 임기수, 어린이도서관의 그림책 분류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2
- 전성희, 기호학을 통한 미술 감상 지도 방안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1
- 한아름, 해외 아동문학상 수상 한국 그림책의 페리텍스트(Peritext)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7
- 허예름, 조형 기호학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5

학술논문

- 강미정, 출판물에 나타난 크로스오버 디자인에 관한 연구,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 연구 제27호, 2008
- 김영옥, 그림책의 영상매체 변환과 공간의 서사-그림책 『플라익스프레스』와 영화 〈플라익스프레스〉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스토리&이미지 테링 연구소 제2호, 2011
- 김영옥, 전자매체 시대 그림책의 ‘그림 쓰기’와 ‘글 그리기’, 인문콘텐츠 제17호, 2010
- 김정선, 그림책 언어로서의 프레임: 데이비드 위즈너의 그림책 텍스트를 중심으로, 조형미디어학 16권 1호, 2013
- 김정열, 최인영, 그림책 표지의 시각적 구성요소에 대한 사례 분석 -

- 2017~2018년 베스트셀러를 중심으로, 일러스트레이션 포럼 55권, 2018
- 나선희, 그림책 면지와 서사의 관계-한국 그림책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동화와 번역연구소(구 건국대학교 중원인문연구소), 동화와 번역, 19권 0호, 2010
 - 박상률, 그림책의 힘, 기획회의 424호, 2016
 - 박영선, 이코노텍스트의 관점에서 그림책 일러스트레이션의 역할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18권 2호, 2012
 - 백승국, 소쉬르 기호학 이론과 게임콘텐츠 연구, 기호학연구 21권, 2007
 - 변윤희. 현은자, 기호학적 관점에서 본 그림책의 글과 그림 읽기, 유아교육연구 22권 2호, 2002
 - 신소연, 장혜진, 이보나 호미엘레프스카의 그림책에 관한 연구 - 퍼스의 기호학을 바탕으로 한 분석을 중심으로, 기초조형학연구 15권 5호, 2014
 - 신소연, 장혜진, 퍼스의 기호학을 활용한 그림책 분석, 기초조형학연구 18권 3호, 2017
 - 신혜선, 유아그림책 『100만 번 산 고양이』의 구조 분석을 통한 교육적 이해,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5권 2호, 2014
 - 이성엽, 그림책 번역: ‘그림 속 텍스트’를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21권 제1호, 2017
 - 이지현, 그림책의 역사, 그리고 현대문학이론과 기호학적 관점에서의 그림책의 커뮤니케이션 분석, 조형미디어학 10권 1호, 2007
 - 이화정, 김종덕, 애니메이션<슈렉>에 재현된 기호학적 캐릭터 분석, 디자인학연구 통권 제91호(23권 5호), 2010
 - 임영내, 이규백, 김개천의 종교 공간에 나타난 기호학적 특성 연구: 그래픽마스 기호사변형을 중심으로, 기초조형학연구 16권 5호, 2015
 - 조은숙, 1990년대 이전 한국그림책의 시대 사회적 조건고찰, 어린이문학

교육연구, 17권 1호, 2016

- 최성진, 서정숙, 퍼스의 기호학적 관점에 의한 그림책 분석, 어린이문화 교육연구 15권 4호, 2014
- 홍승연, 그림책 〈지각대장 존〉의 의미구조에 관한 기호학적 분석, 기초 조형학연구 14권 3호, 2013

국외 문헌

- Brett Axel (author), Terra Bidlespacher (illustrator), Goblinheart, East Waterfront Press, 2012
- Christine Baldacchino, Morris Micklewhite and the Tangerine Dress, Groundwood Books, 2014
- Jaros ł aw Miko ł ajewski (author), Joanna Rusinek (illustrator), Wędrówka Nabu, Austeria Publishing House, 2016.
- Michael Hall, Red: A Crayon's Story, Greenwillow Books, 2015

사이트

- <http://dl.nanet.go.kr/SearchList.do> 2018-04-15
- http://book.interpark.com/product/BookDisplay.do?_method=detail&sc.prdNo=1747052&bid1=search&bid2=contents&bid3=review&bid4=img
- https://ko.wikipedia.org/wiki/%EA%B4%B4%EB%AC%BC%EB%93%A4%EC%9D%B4_%EC%82%AC%EB%8A%94_%EB%82%98%EB%9D%BC
- <https://ko.dict.naver.com/#/entry/koko/14865696e8084e53905cbe1850532b45>, 2019.01.22.

- <https://dspace.inha.ac.kr/bitstream/10505/414/1/%EC%86%8C%EC%89%AC%EB%A5%B4%20%EA%B8%B0%ED%98%B8%ED%95%99%EA%B3%BC%20%EB%AC%B8%ED%99%94%20%EC%B2%B4%EA%B3%84.hwp>
- http://www.culturecontent.com/content/contentView.do?search_div=CP_THE&search_div_id=CP_THE004&cp_code=cp0238&index_id=cp02382344&content_id=cp023823440001&search_left_menu=2019,03,03
- <http://www.yes24.com/Product/Goods/3678434?scode=029> 2019.03.15.
- http://book.interpark.com/product/BookDisplay.do?_method=detail&sc.shopNo=0000400000&sc.prdNo=204222024&sc.saNo=003002001&bid1=search&bid2=product&bid3=title&bid4=001, 2019.03.16
- http://book.interpark.com/product/BookDisplay.do?_method=detail&sc.shopNo=0000400000&sc.prdNo=204222024&sc.saNo=003002001&bid1=search&bid2=product&bid3=title&bid4=001, 2019.03.15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4346196&cid=42251&categoryId=59873>)

ABSTRACT

Semiotic study on philosophical picture book

Shin So-Yean

Department of Industrial Design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In his book 『The Third Wave』, Alvin Toffler says that although he has long sought the answer, he knew that ‘right questions’ are more important than correct answers to false questions. Philosophical reflection is valuable questions that make us think about fundamental life problems in the numerous pieces of knowledge, overflowing information, and diverse values in this rapidly changing era. Modern people become to go forward to practical thinking through philosophical thinking that can ask right questions to themselves and find the meanings of society, others, and their personal life. In the modern picture book market in the 21st century, diverse picture books with quality of work in experimental and original forms have been appearing to make new changes. Reader classes and demand for picture books with artistic value containing more multi-layered meanings, differentiated from the simple and flat picture books, which were exclusive properties of children, are expanding beyond generations. In particular, the emergence of philosophical picture books that enable modern people to undergo philosophical reflection should be one of areas

that are the most noteworthy in the recent picture book market.

Picture books, which have begun to be recognized as an artistic medium in a new area, have been leading to positive activities and responses of adult readers both online and offline thereby growing in close relations with other genres. The interest and tendency as such can be confirmed through the increase in the publishing of philosophical picture books and winning works in international competition exhibitions. The philosophical picture books are in complex and symbolic forms containing in-depth meanings, and the philosophical reflection encountered in the picture books are valuable questions that make the readers think about fundamental life problems in the numerous pieces of knowledge, overflowing information, and diverse values in this rapidly changing era.

Although public interest in picture books in new trends is increasing, academic studies of or studies on systematic analysis method for such picture books are insufficient. Therefore, this study was intended to present a semiotic analysis method in three stages to read and communicate philosophical picture books more effectively and deeply. Furthermore, based on the semiotic analysis method proposed in this study, the philosophical picture book 『The House of Mind』 of Iwona Chmielewska was analyzed and a philosophical picture book 『A Gift』 was produced to identify the usefulness of the semiotic methodology.

This study was conducted in the following order.

First, in this study, the characteristics and values of philosophical picture books are studied and defined, and philosophical picture books classified by type. The philosophical picture books noted here are an artistic medium

that makes modern people ruminate and think about the meaning of life because messages for reflection of life and elements of works of art are in harmony in the philosophical picture books. Philosophical thinking can lead modern people to practical thinking toward others and society through a process to throw a question about the meaning of life to themselves. The philosophical picture books were classified into three types according to the messages conveyed by them; 'growth and reflection of self-consciousness', 'relations with others', and 'solidarity with environments and the world as social human beings' .

Second, a semiotic analysis method in three stages is presented for more in-depth and effective reading comprehension of and communication with the philosophical picture books containing ideational and abstract concepts. The first stage is 'analysis of seven types of picture books' . This is an analysis according to the narrative classification system, in which each picture book is regarded as an integrated symbol and picture books are classified into seven types according to their whole stories and composition forms, for understanding of them. The second stage is a 'dichotomous semantic analysis' of the linguistic symbol system that comprehensively analyzes each picture book. In this stage, the sequential paragraph flows of the integrated body and the binary opposition elements of the paradigm are found for understanding of the entire structure. The third stage is an 'analysis of the tripartite meaning' of nonverbal symbol systems that analyzes each page closely. In this stage, actual characters and images are connected and the symbolic meanings are interpreted concretely and closely. Although picture book analyses have been divided

into dichotomy series analyses and tripartite series analyses thus far, in this study, a method to conduct the two types of analyses, stage by stage was presented considering the methodological limitations of previous studies.

Third, using the three-stage analysis method of this study, the philosophical picture book 『The House of Mind』 of Iwona Chmielewska, which is the first Bologna winner in South Korea, was analyzed. This picture book develops into a ‘parenthesis connected integrated body’ of the analysis of seven types of picture books that does not focus on stories or events but can emphasize characteristic elements centering on the conveyance of messages of thinking and reflection on human life contained in the stories and events. It was identified that the philosophical messages can be expressed and produced in various forms without being influenced by the types of the narratives being delivered. Through the second stage of dichotomous analysis of meanings, the integrated structure of 『The House of Mind』 and the paradigmatic elements of each page were studied. With division by section (sequence), the structures such as the flow of thinking, the form of questions, and the progress of reflection, which are central subjects, could be understood and with the analysis to find the binary oppositional elements of conflicts and opposition in sentences, harmonious and completed linguistic composition and weave could be identified. Through the last stage of tripartite analysis of meanings, the artistic expression method, the conveyance of transmission of the literal meaning, the internally and externally contained philosophical messages, and the nonverbal aspects of the artistic expression of 『The House of

Mind』 were explored in detail and communicated. Through the analysis of 『The House of Mind』, the parts that may be missed carelessly by readers were densely approached to identify the usefulness of the analysis methodology as an analysis to deeply read the writer's implicative meanings.

Finally, a philosophical picture book, 『A Gift』, that makes modern people look back on the value of ordinary daily values, was produced. 『A Gift』 is a story about past, present, and future 'gifts' that are encountered in life. The gifts mentioned in this picture book include those that have been given to everybody without discrimination, such as the existing environments, materials, and even feelings. When seen from a perpetual viewpoint, everything in human life and nature is a gift with finitude. Gifts are not created by subjective will, but are delivered to others regardless of efforts and will for existence, and become extinct when a certain period of time has passed. Human life is in line with the service life of bags or boxes because humans are born regardless of their will and live for a limited period of time. After establishing the overall theme and plan of this philosophical picture book 『A Gift』, the three stage semiotic analysis method was applied to produce the philosophical picture book 『A Gift』. The type of parenthesis connected integrated body, which is a narrative structure in which philosophical messages are delivered with an independent story in each frame, was selected. The analysis of the seven types of picture books is a form of non-chronological integrated body among the types of narrations, which is characterized by not following the flows of time and events without any

integrated storyline. The entire structure of the philosophical picture book 『A Gift』, the introduction, development, turn, and conclusion of paragraphs, and whether binary oppositional elements were appropriately arranged were checked by substituting them into dichotomous analysis of meanings. The beginning and the end of the body text were replaced by the gift received first and the gift that would be received last and the arrangement of surrounding texts was repeated to emphasize the image and expression, which are the subjects. Finally, the detailed elements of each frame were checked with the frame of tripartite analysis of meanings to enhance the degree of completeness. The philosophical messages contained in bags and boxes, which are consistently repeated in 『A Gift』 are precious gifts being met in the journey of life such as love, consolation, blessing, encouragement, and sympathy. The intention of the writer as such was tuned to be in appropriate harmony with the artistic expressions by frame, the conveyance of the literal meanings, and the internal and external elements.

This paper is regarding a study on a logical analysis tool that approaches philosophical picture books regarding them as a symbol based on the semiotic theory in order to draw deeper appreciation and creation. Semiotic analysis can help interpreting philosophical thinking more systematically and logically, and can be used as a framework of analysis for checking by producers and writers who plan philosophical picture books. This study can contribute to the supply of philosophical picture books equipped with completeness through semiotic studies of philosophical picture books that are a new artistic medium that awakens modern people's philosophical

thinking and artistic sensibility that will lead to many readers' interest and good responses resulting in the activation of philosophical picture books.